

최원식 곽기영
권태윤 김승정
박연환 오연경
이삼남 이종은
이종호 임요한
정지영 최윤영
최형용

고등학교
공통국어1



교과서 물려주기 기록표

연도	교과서 사용자				상태
	학년	반	번호	이름	

※ 상태 표기 예시: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자, 이제 모험을 떠날 시간이야!
국어라는 세계에 들어가 보자.



모험하면서 나에게 힘이 될 만한
문구를 적어 보자.

모험 지침서

- 1 이 교과서는 국어과의 하위 영역 중에서 연계가 자연스러운 영역을 통합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영역별 학습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통합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2 이 교과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삶과 연계하여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학습자가 접하는 여러 삶의 문제가 반영된 글과 자료를 선정하였으며, '작가/전문가와 대화', '창의·융합 활동', '깊고 넓게 읽기' 등의 꼭지를 마련하여 학습자의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 3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학습자가 스스로 선택한 책을 긴 호흡으로 읽고 생각을 나누고, 표현하는 통합적인 독서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5단원 '함께 읽고 더불어 살아가기'에서 구현하였습니다.
- 4 학습자들의 모험이 더욱 의미 있기를 바라며 교과서에 '큐알(QR) 코드'를 넣었습니다. 그 코드를 스캔하면 작가가 직접 작품을 낭송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량상 장략된 문학 작품을 읽을 수 있고, 활동지와 누리집을 공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5 이 교과서는 새로운 세상을 만날 열일곱, 자기 언어를 갖고 세상에 질문을 던진 열일곱을 생각하며 만들었습니다. 이 교과서로 공부하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가기를 응원합니다.



■ 대단원 도입

- 대단원명, 소단원명, 학습 영역을 살펴면서 이 단원에서 무엇을 배울지 미리 파악해 보자.
- 대단원과 관련한 문구를 읽으면서 모험을 시작할 준비를 해 보자.



■ 대단원 길잡이

- 학습 목표를 잘 알아 두자. 단원을 모험하는 데에 나침반이 되어 줄 거야.
- 이 단원에서 무엇을 배울지, 그것을 왜 배워야 하는지 확인하고, 이 단원을 배우면 내가 무엇을 얻을지, 어떤 역할을 킴을 수 있을지 살펴보자.
- '생각 열기' 활동으로 배경지식을 활성화해 보자. 여기까지 하면 소단원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된 거야.

함께 모험을 떠날 다섯 친구들



연우



도연



유나



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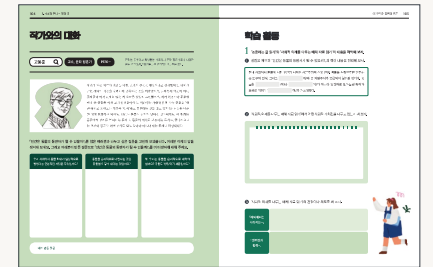


재이



■ 소단원 도입과 본문

- 소단원 표지 그림을 감상하고, 읽거나 활동하면서 중점을 두고 살필 점을 확인해 보자. 소단원 학습 목표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야.
- 본문을 꼼꼼히 읽어 보자. 이해를 도와주는 '읽기 중 질문', '도움말' 등을 잘 활용해 봐.



■ 작가/전문가와 대화(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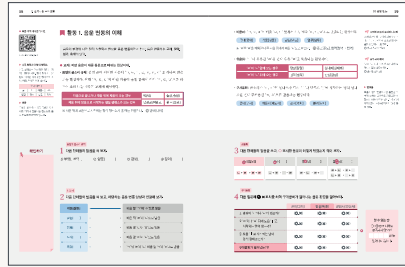
■ 학습 활동(우)

- 본문 공부가 끝나면 그 글을 쓴 작가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우리에게 말을 건네. 그분들이 던진 질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고, 본문이나 질문 내용과 관련한 궁금한 점을 질문으로 만들어 보자.
- '학습 활동'을 하면서 소단원 학습 목표를 달성하자. 개념 설명이나 도움말, 예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거야.



알고 가기

- 문법 단원에서는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알고 가기'를 살펴보자. 이 단원을 배우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아는지 확인하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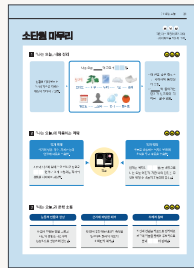
확인하기

- 문법 단원에서는 개념 설명 아래에 있는 '확인하기'로 배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바로 점검할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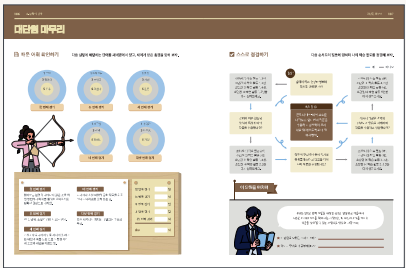
깊고 넓게 읽기

- 대단원과 관련한 글을 읽고 주어진 질문에 답하며 이해의 폭을 넓혀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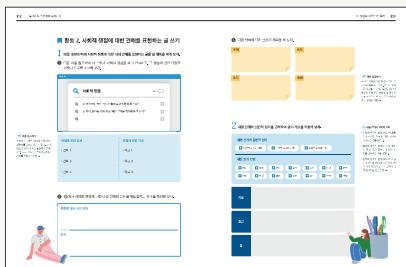
소단원 마무리

- '소단원 마무리'의 내용을 읽고, 빈칸을 채워 보자.
- 세 가지 얼굴 가운데 내 이해도에 해당하는 표정을 골라 표시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꼭 복습하자.



대단원 마무리

- '배운 어휘 확인하기'에 제시된 다양한 형식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어휘력을 키워 보자.
- '스스로 점검하기'에서 순서도의 질문에 답하며 대단원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해 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하는 활동을 다시 살펴보자.
- '이 단원을 마치며'에서 앞으로 우리가 국어 사용자로서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 짚어 보자. 그리고 이 단원을 배운 소감과 앞으로 더 공부하고 싶은 것을 적어 보자.



활동

- 일부 단원은 단계에 따라 활동하며 공부하게 되어 있어. 해당 단원의 학습 요소를 익힌 다음, 실제 활동을 하면서 학습 내용을 내 속에 자리 잡게 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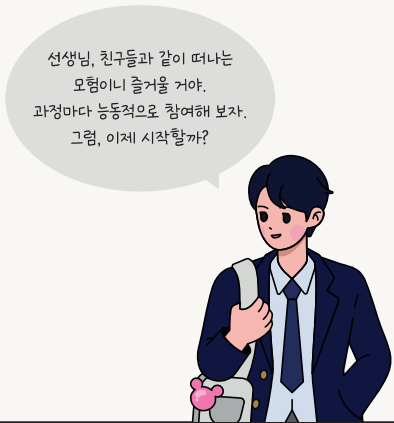


창의·융합 활동

- 친구들과 협력하면서 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수행해 보자.

활동 아이콘

- 친구와 함께 활동할 때
- 친구들과 모둠 활동을 할 때
- 영상을 보고 활동할 때
- 큐알(QR) 코드로 자료에 접근할 때
- 본문에서 개념을 설명할 때
- 활동에서 개념을 설명할 때
- 활동에서 도움말을 제시할 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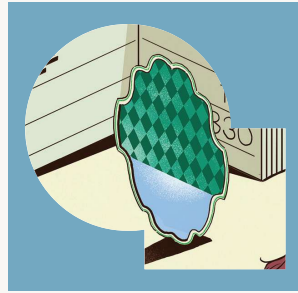
문학 | 쓰기

문학 소통과 개성적 표현

- (1) 나는 오늘 오온 14
- (2) 브로콜리 펀치 이유리 22
- (3) 소곤소곤 36
 - 외우기로 해요 김소영
 - 수어로 비밀 말하기 이길보라

창의·융합 활동 46
추천! 도서관 책에 메모 붙이기

깊고 넓게 읽기 48
이해라는 문 박준



2

문법 | 듣기·말하기

슬기로운 국어생활



- (1) 음운 변동 56
- (2) 문법 요소와 어휘 66
- (3) 대화 예절과 책임감 있는 국어 생활 78

창의·융합 활동 86
특종! 우리말 달인 찾기

깊고 넓게 읽기 88
당연하지 않은 부모 이슬아

3

읽기 | 매체 | 듣기·말하기

세상과 만나는 말과 글



- (1) 인간과 동물의 공존 96
 - 인간은 동물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고봉준
 - 해외에서는 사라지는 펫 슈, 국내에서는 불법 유통 조유정
- (2) 교실에 시시 티브이(CCTV) 설치할 의무화해야 한다 110

창의·융합 활동 126
출동! 문제 해결사 마니토 되기

깊고 넓게 읽기 128
가짜를 판별하는 능력 기르기 조병영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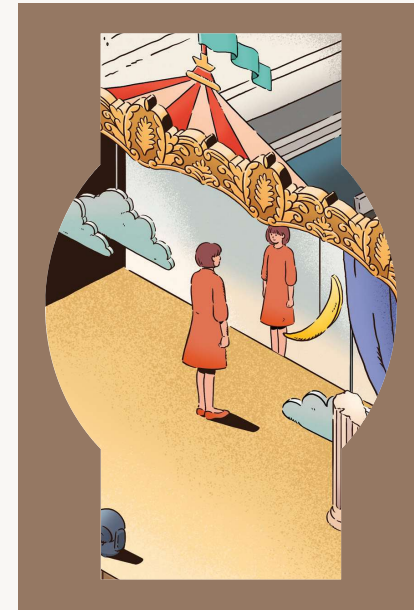
문학

문학의 갈래

- (1) 뿌리에게 나희덕 136
- (2)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윤홍길 144
- (3) 불편한 편의점 김호원 원작·홍현우 각색 160
- (4) 수오재기 정약용 174

창의·융합 활동 182
만남! 문학과 OO 연결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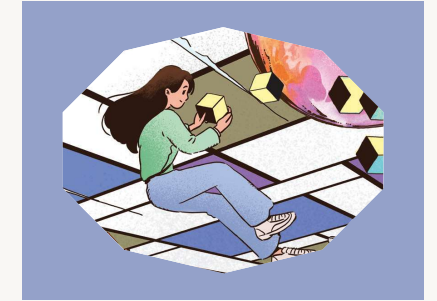
깊고 넓게 읽기 184
삶의 발명 정혜윤



5

읽기 | 매체 | 쓰기

함께 읽고 더불어 살아가기



- (1) 나만의 지도를 그리는 법 정재승 192
- (2) 세상을 바꾸는 한 걸음 204
 - 문해력 위기의 또 다른 배경 정지우

창의·융합 활동 218
멍둥! 뉴스레터 보내기

깊고 넓게 읽기 220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은 모두 한통속이다 홍민지

부록

- 듣기 대본 225
- 토론 기록지 226
- 글과 자료 출처 227

1

문학 소통과 개성적 표현

문학 | 쓰기

- (1) 나는 오늘 오은
- (2) 브로콜리 펀치 이유리
- (3) 소곤소곤 김소영, 이길보라

해석자의 얼굴이 아니어도 된다고 한다면
전부를 알지 못해도 된다고 한다면

물렁해져서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 안미옥, 「순간적」에서



대단원 길잡이

대단원 학습 목표

- 문학 소통의 특성을 고려하며 문학 소통에 참여한다.
- 다양한 언어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하며 필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글을 쓴다.

🔍 무엇을 배울까

(1) 나는 오늘



- 작가 맥락, 독자 맥락을 고려하며 작품 이해하기
- 작품을 쓰며 문학 소통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2) 브로콜리 편지



-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을 고려하며 작품 이해하기
- 작품을 비평하며 문학 소통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3) 소곤소곤



- 언어 공동체의 특성 및 다양성 인식하기
- 개성이 드러나는 글을 쓰며 의사소통 문화 발전시키기

창의·융합 활동

- 추천! 도서관 책에 메모 붙이기

깊고 넓게 읽기

- 박준의 「이해라는 문」 읽기
-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본 경험 생각하기

? 왜 배울까

풍요로운 삶과 언어 공동체 발전을 위해

우리는 주위의 많은 이와 소통하며 스스로를 가꾸어 갑니다. 그 소통에는 문학으로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세상을 만났던 경험도 포함되지요. 문학은 여러 맥락이 다양하게 작용하는 특성과 허구와 상상을 통해 아름다움이나 재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작가와 독자의 소통에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평가하는 비평들이 더해지면 풍부한 소통의 장이 펼쳐지지요. 이러한 문학 소통의 특성을 이해하고 작품을 능동적으로 감상하는 것은 물론, 직접 작품을 쓰거나 비평하며 문학 소통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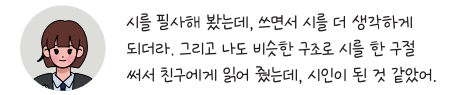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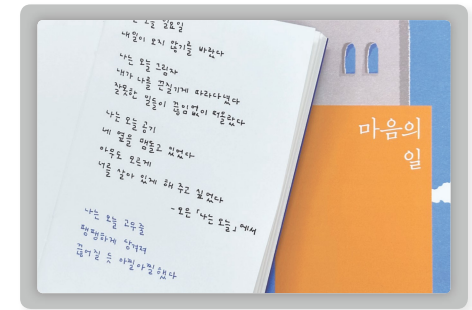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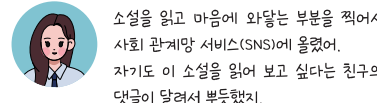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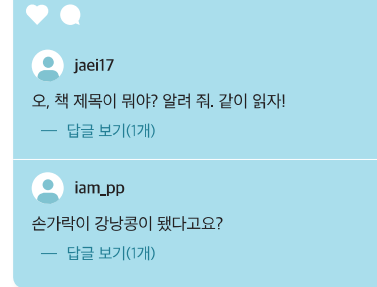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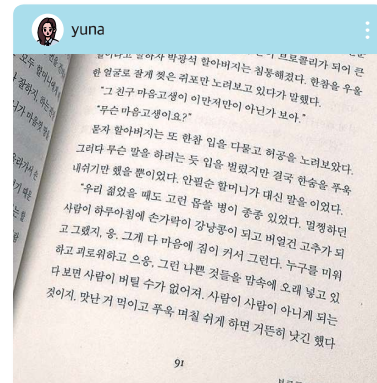
이렇게 문학 소통을 하다 보면 세상에 나만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에서 출발하여 개성이 드러나는 글을 쓰다 보면 언어 공동체의 확장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이 단원을 배우면

- 문학 작품을 통한 소통은 작품의 갈래, 작가와 독자, 사회와 문화, 문학사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짐을 이해하며 문화 향유 역량을 기를 수 있다.
-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쓰기 경험을 통해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바람직한 언어문화를 만들어 가며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을 기를 수 있다.

📁 생각 열기

다음 학생들의 경험을 살펴보고, 문학 작품이나 글로 다른 사람과 소통했던 경험을 공유해 보자.



도운의 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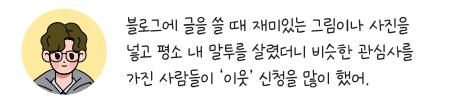
블로그

[생각] 도운 2000. 3. 3. 1

아니,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안녕, 도운입니다.
오늘 '이건 방송에 제보해야 하는 일 아니야?' 싶었던 사건이 생겼지 뭐야?
이런 일 겪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궁금해서 올려 보는 글.
무슨 일? 사건은 점심시간에 일어났어. 우리 반에는 먹는 것에 늘 진심인 친구가 있던 말이죠?

👤 이웃 추가



블로그에 글을 쓸 때 재미있는 그림이나 사진을 넣고 평소 내 말투를 살렸더니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웃' 신청을 많이 했어.

소단원
학습 목표

- 작품을 능동적으로 감상하며 문학 소통의 특성을 이해한다.
- 주제적인 태도로 작품을 써 보며 문학 소통에 참여한다.

(1) 나는 오늘

오은

• 작가 시 낭송



• 작가 인터뷰



나는 오늘 토마토
앞으로 걸어도 나
뒤로 걸어도 나
꽤 차 있었다

나는 오늘 나무
햇빛이 내 위로 쏟아졌다
바람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위로 옆으로
사방으로 자라고 있었다

나는 오늘 유리
금이 간 채로 울었다
거짓말처럼 눈물이 고였다
진짜 같은 얼룩이 생겼다

나는 오늘 구름
시시각각 표정을 바꿀 수 있었다
내 기분에 취해 떠다닐 수 있었다

「나는 오늘」은

오늘 '나'의 상태를 여러 대상에 빗대어 표현한 시이다. 화자가 표현하는 '나'의 상태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지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



나는 오늘 종이
무엇을 써야 할지 종잡을 수 없었다
텅 빈 상태로 가만히 있었다
사각사각
나를 쓰다듬어 줄 사람이 절실했다

나는 오늘 일요일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랐다

나는 오늘 그림자
내가 나를 끈질기게 따라다녔다
잘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나는 오늘 공기
네 옆을 땀똥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너를 살아 있게 해 주고 싶었다

나는 오늘 토마토
네 앞에서 온몸이 그만 붉게 물들고 말았다

— 『마음의 일』

작가와의 대화

오은



시인

1982~

2002년 『현대시』로 등단한 뒤 특유의 언어유희로 개성적인 시 세계를 펼쳐 왔다. 『우리는 분위기를 사랑해』, 『없음의 대명사』 등을 썼다.



우리는 보통 하나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지만, 삶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하나가 아닙니다. 성장이 늘 장밋빛을 띠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가 미울 때도 있고 커다란 도전 앞에서 한없이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슬플 때 슬프다고 말하는 게 웬지 부끄럽기도 하고 아픔을 듣키는 게 낙담함이 공개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성장하는 데 많은 시간이 남은 것 같아 불안하고, 같은 이유로 하루를 대충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오늘의 나는 미래를 향한 과정이지만 지금까지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나는 오늘 어떤 존재였나요. 무엇이 나를 그렇게 느끼게 만들었나요.

『나는 오늘』을 감상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질문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답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든 질문으로 『나는 오늘』을 더 다양하게 해 주세요.

동식물 및 사물에 빗대 나를 표현한다면 나는 오늘 무엇과 닮았나요? 왜 그렇게 느끼나요?

감정을 표현할 때 떠올릴 수 있는 사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사물의 어떤 점이 특정 감정을 불러일으키나요?

나는 내일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그 대상의 어떤 속성이 오늘의 나를 뜨뜨게 하나요?

내가 만든 질문

학습 활동

1 이 작품에서 내 마음에 가장 와닿는 연을 하나 고르고, 그 까닭을 말해 보자.

2 각 연에 등장하는 대상의 속성을 써 보고, 그것과 관련한 화자의 마음을 정리해 보자.

<p>1연</p> <p>토마토</p> <p>속성: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같음.</p> <p>마음: 이래도 저래도 속은 짝 찬 '나'임.</p>	<p>2연</p>  <p>()</p> <p>세상의 모든 것들과 함께 성장함.</p>	<p>3연</p>  <p>금이 가고 얼룩이 생김.</p> <p>()</p>
<p>4연</p>  <p>()</p> <p>그때그때 '나'의 기분에 취함.</p>	<p>5연</p>  <p>텅 비어 있음, 무언가 적을 수 있음.</p> <p>()</p>	<p>6연</p>  <p>()</p> <p>계속 쉬고 싶음.</p>
<p>7연</p>  <p>대상을 끈질기게 따라다님.</p> <p>'나'의 잘못이 계속 생각남.</p>	<p>8연</p>  <p>()</p> <p>너를 살아 있게 해 주고 싶음.</p>	<p>9연</p>  <p>붉은색임.</p> <p>()</p>

3 작가의 인터뷰를 읽고 문학 소통의 특성을 고려하며 이 작품을 살펴보자.

기자 작가님, 청소년 독자들이 이 시를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작가 사람들이 제 시가 술술 읽힌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에 골몰하는 시인이예요. '토마토'나 '일요일'은 아주 쉬운 단어이지만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똑같은 게 너무 재미있잖아요? 이 시를 쓸 때에도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일상적인 단어들 가져와 그것들이 '되어 보기'로 한 거예요.

학교에 강연을 하러 가면 이 시를 읽은 학생들도 각자 다른 연을 골라 '되어 보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몰랐던 마음, 혹은 알면서도 외면했던 마음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청소년 시절을 떠올려 보면 저에게는 해소되지 않는 이상한 마음들이 있었고, 친구들도 각자 다른 이유로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를 통해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마음들을 보여 주고 싶었어요.

시를 쓰는 것이 '되어 보기'의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라면, 시를 읽는 것은 '되어 보기'를 따라가면서 내 마음을 살피는 일인 것 같아요. 시를 읽을 때 자신과 비슷한 상황과 감정을 가진 시를 발견하며 읽어 보기를 권합니다.

① “나는 오늘 _____”(이)라는 구절에 ‘오늘’을 넣은 작가의 의도를 추측해 보자.

② 작가가 1연과 9연에서 '토마토'를 반복해 제시한 까닭을 생각해 보고, 하나의 단어를 다르게 활용하는 방식에서 어떤 재미가 느껴지는지 말해 보자.

③ '되어 보기'의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일상적인 말하기와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보자.

▶ 문학 소통의 특성

문학 작품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소통을 '문학 소통'이라고 한다. 문학은 한 작품을 둘러싸고 작가 맥락, 독자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 등이 다양하게 작용하는 특성이 있다. 맥락은 작품 바깥에 존재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문학 소통을 할 때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문학 작품을 더 깊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



4-1 활동지



4 기억에 남는 어느 하루를 떠올려 보고, 이 작품의 형식을 참고하여 떠올린 내용을 시로 표현해 보자.

- 1 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적고, 그때의 느낌이나 마음 상태를 기록하여 '오늘 마음 일지'를 완성해 보자.

'오늘 마음 일지'

잠이 오지 않았어.

01:00

12:00

24:00

어제 들은 친구의 말이 떠올라 마음이 복잡했어.

4-2 활동지



- 2 '오늘 마음 일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선택한 후에 그때의 마음을 빗낼 대상을 찾아 짧은 시를 써 보자. 그리고 친구와 서로의 작품에 대한 감상 평을 나누어 보자.

나는 오늘 _____

소단원 마무리



해당하는 표정에 표시하여 나의 이해도를 점검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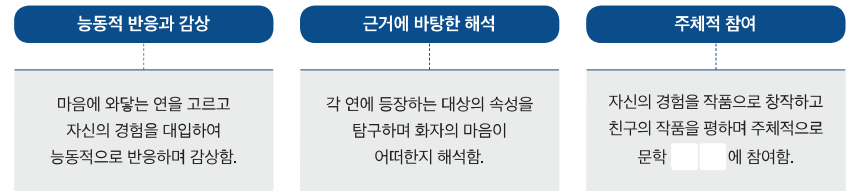
1 「나는 오늘」 내용 정리



2 「나는 오늘」에 작용하는 맥락



3 「나는 오늘」과 문학 소통





「브로콜리 펀치」는

오른손이 브로콜리로 변해 버린 복싱 선수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원래 손을 되찾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그의 손이 브로콜리가 된 사연이 무엇인지, 등장인물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피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

소단원
학습 목표

- 작품을 능동적으로 감상하며 문학 소통의 특성을 이해한다.
- 주제적인 태도로 작품을 비평해 보며 문학 소통에 참여한다.

(2) 브로콜리 펀치

이유리

● 작가 인터뷰



[앞부분의 줄거리]

5 요양 보호사인 '나'의 남자 친구 고원준은 복싱 선수인데, 어느 날 오른손이 브로콜리로 변하는 병에 걸린다. 의사는 마음 편하게 며칠 쉰 손이 낫다며 엽록소를 억제하는 약을 처방한다. '나'는 '나'가 돌보고 있는 안필순 할머니와 그녀의 애인인 박광석 할아버지와 함께 할머니가 키우던 양무새 말자의 장례식을 치른다. 이후 저녁에 담소를 나누다가 원준의 손이

10 브로콜리가 되어 걱정이라고 말한다. 박광석 할아버지는 그 병은 마음고생이 심하면 생기는데, 산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 금방 낫는다며 내일 같이 산에 가자고 제안한다. 안필순 할머니 덕을 나선 '나'는 원준의 집에 들러서 원준에게 힘든 일이 있는지를 묻는다.

“나는 말이야, 복싱을 하기가 싫어.”

원준은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내뱉었다. 그러고는 잠시 후, 배 속에 뭉친 무언가

15 를 풀어내듯이 느릿느릿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복싱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아냐. 집중이야. 뒤에 집중하냐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세계를 끈족¹으로 만들겠다는 집중. 왼손으로 안 되면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안 되면 머릴 들이받아서라도 뺏어 버리게 만들어야겠다는 집중. 그게 가능하려면 되게 디테일하게 생각해야 해.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잖아. 상대방이 피를 흘리는 모습, 조금씩 힘이 빠져 가는 모습, 내 펀치에 쓰러지는 모습 같은 걸 상상하는 거. 그런데 너 살면서 그런 상상을 해 본 일이 있냐. 진짜로 미워하는 사람이 너에게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을 때려서 무너뜨리는 모습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그려 내 본 적이 있냐 말아야.

나는 심지어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아. 아니 오히려 좋아해. 복싱에 목숨 걸고 나

1 끈족

몸이 지쳐 늘어진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원준이 복싱 시합의 상대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한 까닭은 무엇일까?

랑 비슷한 삶을 살아왔을 이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그런데 그런 사람을 곤죽으로 만드는 상상을 하는 게, 실제로 곤죽으로 만들기 위해 주먹을 내뻐는 게 어느 순간 부터 되게 힘들어진 거야. 이걸 스포츠다, 직업이다 하고 계속 생각했지만 스포츠건 직업이건 맞으면 아프고 아픈 건 싫거든. 진짜 싫고 기분 나쁘거든. 그런 걸 생각하게 된 날부터였어. 복싱이 하기 싫어진 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휘 그만둘 수 있는 일은 아니었지. 그리고 싶지도 않았고. 나는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 그러다가 그럴듯한 해결책을 찾았어. 상대방을 미워해 보기로 한 거야. 미운 상대를 때리는 건 그나마 좀 쉬울 것 같았거든.

그런데 좋아하지 않는 걸 좋아하려고 애쓰는 게 힘들듯이 미워하지 않는 걸 미워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는 말이야. 그래서 나는 미움을 억지로 만들어 냈다. 세상 나쁜 것들을 다 갖다 붙이면서 미워해야 돼, 미워해야 되만 반복한 거야. 저 사람은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 아닐 거야, 저 사람도 날 때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을 거야, 맞기 전에 먼저 때려눕혀야만 해, 다시는 내게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완전히 밟아 버려야 해 하면서. 경기가 없는 날에도 나는 온종일 그런 것들만 생각했어. 내게 주먹을 휘두르고 싶게 만드는 것들, 그 감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응축시켜! 오른쪽 글러브 안에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만.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됐어.”

원준이 허공에 브로콜리를 휘, 내뻐었다. 어둠 속에서 오토도들한 브로콜리의 모양이 반짝 드러났다.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 아무리 하려고 해도 화가 나질 않아.”

원준의 브로콜리가 몇 번 더 허공을 때렸다. 때리다가 결국 툭, 떨어졌다.

“그런 거 관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겠지. 그렇게 괴로운 일을 무엇 하러 해야 하는지 넌 모르겠지. 그렇지만 나는 이걸 너무 오래 해 왔어. 할 줄 아는 게 이것뿐이야. 남 미워하는 거. 미워서 곤죽이 되게 때려 주는 거.”

원준은 거기까지 말한 뒤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방 안은 다시 어둠과 침묵과 슬픈 풀냄새만이 가득했다. 나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가 않았다. 길고 힘든 이야기를 들었으니 무슨 말이란 해야 할 텐데, 위로든 핀잔이든 무어라고 대답을 해야만 하는데. 물 밖으로 끌려 나온 봉어처럼 입만 뻐끔거리다가 나는 겨우 한 단어를 말했다.

“내일.”

원준이 나를 힐끗 바라보았다. 아무런 기대도 없는 눈빛인 것을 어둠 속에서도 알 수 있었다.

1 응축하다
내용의 핵심이 어느 한곳에 집중되어 쏠여 있다.

원준의 이야기를 듣고 '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

“박광석 할아버지가, 내일 산에 가재. 가서 이것저것, 아무튼 하면 잘 낫는데. 내일 같이 가자. 가 보자 응. 지금은 꼭 자고, 내일 다 같이 가 보자.”

원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어둠 속에서 원준의 브로콜리를 더듬어 잡았다. 두툼하고 미지근한 줄기 밑에서 두근두근, 물이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이 물은 브로콜리를 한 바퀴 돌아 나와 원준의 어디로 갈까, 미움이나 분노를 만들어 내는 그런 곳으로 흘러가서 고일까, 거기에 맑게 섞여 들면 조금 묽어질 수 있을까. 나는 오래오래 브로콜리를 쓰다듬고 매만졌다. 내 손끝에도 푸른 물이 드는 것만 같아 내내 배 속이 저릿저릿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다음 날 정오쯤에 등산로 입구에서 만난 '나', 원준, 안필순 할머니, 박광석 할아버지는 산을 오르던 도중에 울타리를 넘고 풀숲을 헤쳐 낭떠러지가 있는 곳에 다다른다. 자리를 잡고 음식을 차린 후에 박광석 할아버지가 원준에게 갑자기 노래를 시키자, 원준은 당황한다.

원준이 우물쭈물하는 동안 나는 원준의 브로콜리에 돌돌 감아 놓았던 수건을 벗겨 냈다. 햇빛 아래에서 보아 그런지 브로콜리는 어젯밤보다 더 푸르고 신선한 것 같았다. 그때 원준의 브로콜리를 꼼꼼 바라보던 안필순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그러면 나도 노래는 아니구 소리 하나 질러도 되냐.”

“그럼, 지르고 싶은 대로 지르게.”

“그럼요, 지르세요.”

그러자 안필순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낭떠러지 끝 쪽으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가장자리로부터 두어 걸음 떨어진 지점에서 머리가 팽 도는 듯 쪼그려 앉더니 입 나팔을 했다. 어깨가 들썩이도록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뻐으며 외쳤다.

“말자아아아아!”

그다지 깊은 숲이 아니라서 그런가, 메아리가 들릴 줄 알았는데 소리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러나 안필순 할머니는 쪼그려 앉은 채 계속 외쳤다.

“내가 육현 것도 진심이 아니었구우우 때린 것도 진심이 아니었다아아아.”

“좋은 곳에 가라아아아.”

“곧 다시 만나자아아아.”

그리고 나서도 안필순 할머니는 잠시 허공을 바라보며 앉아 있더니, 한참 후에야 일어서서 엉덩이를 툭툭 털었다. 그러고는 꼭 무대 공연을 마친 가수처럼 수줍게 웃으며

● 중략 부분 내용



안필순 할머니가 죽은 영무새 말자를 떠올리며 느낀 감정은 무엇일까?

돌아왔다. 나와 박광석 할아버지는 열렬하게 박수를 쳤다. 옆에 와 앉은 할머니를 보고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었다.

“아이고, 내 속이 다 시원하네.”

“잘했어. 자, 이제 그러면 원준이 자네 차례.”

손사래를 치며 끝까지 뺨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원준은 큼큼 목을 가다듬더니 5 일어섰다. 우리의 얼굴을 한 번씩 차례로 들여다보고는 아까 안필순 할머니가 가서 앉았던 자리로 조심하 걸어갔다. 재가 뭘 하려고 저러나, 궁금하여 나는 조마조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원준은 아까 안필순 할머니가 쪼그려 앉았던 곳보다 한 걸음 정도 더 나아간 자리에 딱 버티고 섰다. 그러고는 허리를 숙여 낭떠러지 아래를 바라보았다. 순간, 나는 벌떡 일어섰다. 원준이 저대로 뛰어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 10 때 원준이 별안간 소리쳤다.

“아아아아—!”

엄청나게 큰 소리, 방금 안필순 할머니가 외친 것보다 열 배는 더 큰 소리였다. 우리는 깜짝 놀라 서로 눈을 마주 보았다. 좀 전까지 잠잠했던 낭떠러지 아래 잡목 숲에서 새들이 우르르 날아올랐다. 그러거나 말거나 요란하게 목을 푼 원준은 드디어 허리에 15 손을 얹었다. 숨을 훑 들이쉬더니 별안간 노래하기 시작했다.

“동해! 물과 배! 두산이 마르고! 님도륙!”

원준이 엄청나게 큰 소리로 소리 지르고 노래한 까닭은 무엇일까?

노래인지 괴성인지 모를 그 소리에 아이고! 우리는 동시에 경악한 얼굴로 고꾸라졌다. 할 줄 아는 노래가 없다는 건 정말이었구나, 그래도 그렇지 정말 이걸 너무하잖아. 나는 깔깔깔 큰 소리로, 가슴속에서 식식 쇳소리가 날 때까지 웃었다. 박광석 할아버지가 웃지 말라며 눈을 흘겼지만 할아버지도 이미 눈꼬리에 눈물이 맺혀 있었고 안필순 5 할머니는 수제¹ 없드려서 숨넘아가는 소리를 내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러나 등 뒤에서 폭소하는 관객들에는 아랑곳없이² 원준은 우렁차게 계속 불렀다, 애국가를.

“하!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 나라! 만! 세!”

아이고 잘한다! 안필순 할머니가 박수 쳤다. 나도 신이 나서 추임새를 넣었다. 원준아 10 더! 더 질러 봐! 그러자 원준이 돌아보며 씩 웃었다. 사진으로 찍어 남기고 싶을 만큼 상큼한, 그러나 웬지 코끝이 찡해지는 미소였다. 너무 웃어 가려운 뺨가죽을 부여잡고선 아이고 저 짠한 것, 생각하는데 이윽고 노래를 마친 원준이 목을 객객거리며 돌아왔다. 나는 일어서서 돌아오는 원준을 안아 주었다.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엉덩이를 툭툭 쳐 주며 머리도 쓰다듬고 볼도 꼬집어 주었다.

“이상하네요. 소리를 지른 것뿐인데 좀 시원한 거 같아요.”

15 오백 밀리리터짜리 물병을 한꺼번에 비운 원준이 목을 이리저리 돌리며 말했다.

“그거 봐, 그렇다니까. 이제 나를 거야.”

박광석 할아버지가 흐뭇하게 말했다. 정말 이래서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기분은 정말 좋았고 나는 어쩔지 울 것 같기도 했다. 참 이상한 일이었다. 고작 노래를 좀 불렀을 뿐인데, 평소보다 조금 더 크게 말을 한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기분이 좋을 일일까. 20 겨우내 땀에 전 숨이불을 알보드레한³ 봄 이불로 바꾸어 덮은 첫 밤처럼 온몸이 다 산뜻했다. 비결이 무얼까, 여기가 산이어서일까. 메아리도 없이 소리를 꾸울적 삼켜 버린 이 산의 청신한⁴ 공기 덕분일까. 그리고 보니 원준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저렇게 크게 소리도 지를 줄 아는 애였어, 보기보단 늙름하지, 산 공기를 흠뻑 들이쉬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콧구멍 앞으로 무언가가 속 들이밀어졌 25 다. 이쑤시개에 꽃힌 키위 조각이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란다.”

목소리에 아직 웃음기가 남은 안필순 할머니가 이쑤시개를 쥐여 주었다. 지금 우리는 관악산 그것도 한참 중턱, 금강산에는 대지도 못할 풍경이었지만 어쨌든 나는 고분고분 30 먹었다. 새콤한 것을 먹으니 입에 침이 확 들며 음식이 자꾸자꾸 뻥졌다. 원준도 그랬는지 멀쩡한 왼손으로 김밥을 두 개씩 집어 입에 옥여넣고 있었다. 그리고 보니 나도 원준

1 수제
처음부터 차례리. 또는 아예 전적으로

2 아랑곳없이
어떤 일에 참견을 하거나 관심을 둘 필요가 없이

노래 부르고 조금 더 크게 말하는 행위를 “이렇게까지 기분 좋을 일”로 설정한 까닭은 무엇일까?

3 알보드레하다
알고 꽤 보드라운 느낌이 있다.

4 청신하다
맑고 산뜻하다.



1 갈변하다

과일이나 채소 따위를 칼로 깎았을 때 그 부분이 갈색으로 변하다.

도 어제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다. 김밥은 금세 없어졌지만 아까부터 땡땡해서 수스타 싶던 안필순 할머니의 배낭에서는 유부초밥에 양갱에 땡튀기, 얼린 보리차까지 먹고 마실 것이 끝도 없이 나와 우리 무릎 앞에 펼쳐졌고 우리는 마음껏 씹고 삼켰다. 밥은 미지근하고 과일은 굳테굳테 갈변되어¹ 있었지만 눈물 나게 맛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유부초밥을 씹던 원준이 옥, 하며 인상을 확 찌푸렸다. 돌이라도 씹 5
었는가 하여 바라보니 원준은 브로콜리를 쳐들고 뻥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터진다.”

“터져? 뭐가?”

모두 이쑤시개를 그대로 든 채 원준의 브로콜리에 시선을 모았다. 계속 옥, 옥 하는 10
소리를 내던 원준이 이번에는 연둛빛 팔목 중간쯤을 꼭 부여잡았다.

“안에서 뭐가 자꾸만 터지는 것 같아.”

“터진다니?”

“모르겠어. 작은 불꽃 같은 것들이 막 따끔거리면서 터져.”

그게 뭐야 정확히 무슨 느낌이야, 터럭 겁이 나서 물으려는 참이었다. 갑자기 안필순 15
할머니와 박광석 할아버지가 동시에 어어! 소리를 질렀다. 할아버지가 원준의 브로콜리
즐거움을 부여잡고 얼굴 가까이로 잡아당겼다.

“이것 봐라, 여기!”

나도 얼굴을 들이대자 보였다, 노오랑고 작은 점이. 브로콜리 윗부분의 복슬복슬 보글 20
보글한 작은 봉오리들 중 하나가 다른 것들보다 쭈욱 길어 나, 그 끝부분에 노란 실금²
이 가 있었다. 쌀알만큼 작아 자세히 들여다봐야 분간할 수 있는 크기였지만 우리는 모
두 그게 뭔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이거, 이거 꽃 아니야? 맞지?”

“브로콜리가 원래 꽃봉오리 부분을…… 크게 자라도록 개량해서 만든 채소긴 한 25
데…….”

“시상에, 그럼 이 쪼그맣고 짜잘한 이게 다 꽃이야?”

우리는 원준의 브로콜리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대고 숨을 죽였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30
커다란 브로콜리의 가장자리 여기저기서 툭, 툭 하고 꽃봉오리가 터지고 있었다. 이내
처음 나온 봉오리 끝이 아주아주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했다. 뽀족한 총알 모양의 꽃자
루가 쏘옥 올라오더니 그 끝에서 길게 돌돌 말린 셋노란 꽃잎이 천천히 빙글빙글 돌며
비집고 나와 조금씩 펼쳐졌다. 몇 분이 지났을까. 드디어 최초의 한 송이가 완전히 개화

2 실금

그릇 따위가 깨지거나 터져서 생긴 가는 금.

했다. 녀장짜리 꽃잎이 고깔 모양으로 고개 숙인 작고 소박한 꽃이었다. 이윽고 첫 번
째 꽃을 따라 나머지 봉오리들도 경쟁하듯 쏘옥, 쏘옥 피어나기 시작했다.

“하이고, 참 예쁘네.”

“응, 정말 이쁘다.”

“장관이네, 장관이야.”

우리는 저마다 한마디씩, 웬지 조용히 말해야 할 것 같아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꼭 5
갓 태어난 아기 동물을 내려다보는 듯 가슴속에서 뭔가 벽차올랐다. 나는 원준의 어긋
죽지를 마구 쓰다듬었다.

“기분 되게 이상하네.”

10 원준이 브로콜리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눈가와 입가가 한결 풀어진 것이 좋아 보이는
얼굴이었다.

“그래그래, 이제 다 나왔다.”

박광석 할아버지가 흠족하게 웃었다.

한 시간이나 지났을까, 원준의 브로콜리는 커다란 꽃 뭉치가 되었다. 모든 봉오리가 15
저마다 한껏 피어나 가장자리의 꽃은 축 늘어지고 가운데의 꽃은 꽃꽂이 하늘로 뻗어,
마치 화려한 샹들리에³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모양이었다. 손끝으로 꽃송이 하나를 살
짝 꺾어 보니 갑작 놀랄 만큼 맵싸한⁴ 향이 물큰 퍼져 나왔다. 평범한 꽃향기와는 다른,
훨씬 강렬하고 정신을 정량하게 해 주는 향이었다. 우리는 번갈아 가며 조심조심 브로
콜리꽃 뭉치를 쓰다듬었다. 아주 대견한 일을 해낸 누군가를 칭찬하듯이, 손길이 스칠
20 때마다 꽃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향기를 내뿜었다. 꿈에서도 잊지 못할 진한 향기
를. 아마 요 매콤 달큰한 냄새는 바람을 타고 멀리멀리까지 가 닿을 거야, 지금 아마 못
해도 관악산 산책로 초입까지는 충분히 향긋할 거야, 하고 나는 생각하며 뿌듯해했다.

결국 우리가 산을 내려오는 것은 헤가 슬슬 저물어 갈 무렵이었다. 온 길을 그대로 되돌 25
아와 서울 대학교 앞쯤에서 우리는 헤어지기로 했다. 잔뜩 지친 박광석 할아버지와 안
필순 할머니를 택시에 태워 보낸 뒤, 원준과 나는 서로의 집으로 가는 갈릴길이 나올 때
까지 함께 천천히 걸었다. 원준은 브로콜리꽃을 수건으로 소중히 감싸 안고 있었다. 그
모양이 꼭 무슨 기쁜 일이 생겨 꽃다발을 한 아름 받아 안고 가는 사람 같았다. 나는 발
을 쿵쿵 구르며 집으로 돌아왔다.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싶은 기분이었다.

그날은 땀을 잔뜩 흘린 터라, 집에 도착하자마자 몸을 씻고 잠자리에 누웠다. 온몸이

브로콜리꽃이 개화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3 샹들리에

천장에 매달아 드리우게 된, 여러 개의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나간 모양의 등.

4 맵싸하다

맵고 하나 목구멍 또는 코에 자극을 받아 아린 듯한 느낌이 있다.

노곤노곤해 바로 잠들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누우니 그렇지가 않았다. 소풍 다녀온 아이처럼 즐거움과 흥분이 남아 눈을 감아도 눈꺼풀 뒤에 오늘의 온갖 장면들이 스쳐 가는 탓이었다. 나는 베개를 끌어안고 왼쪽으로 굴렀다, 오른쪽으로 굴렀다 하며 오늘을 두서없이 복기하기¹ 시작했다.

1 복기하다
비독에서 한 번 두고 난 비독의 판국을 비평하기 위하여 두었던 대로 다시 처음부터 돌아 보다.

2 오만
매우 종류가 많은 여러 가지를 이르는 말.

3 실의
뜻이나 의욕을 잃음.

그러고 보니 원준이 복싱을 그만두고 싶다는 얘길 내게 하지 않은 것이 새삼 조금 섭섭했다. 평소에는 세상 오만² 것들에 다 제 느낌과 견해를 떠들어 대는 녀석이, 정작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고런 중요한 일에 대해선 입을 꼭 다문 채 그 지경까지 혼자 괴로워했더니. 그런 건 좀 티놓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 사이에. 나는 어둠 속을 향해 혼자 입을 빼죽거렸다. 하긴 얘기했다 한들 내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긴 했다. 맛있는 걸 사 줄까, 아님 시원하게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하며 기분은 풀어 주려고 안간힘을 쓰기가 했을 테지만. 어젯밤 박광석 할아버지가 안필순 할머니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좀 민망한 기분이 들었다. 세상 사람들이 대개 비슷하구나, 실의³에 빠진 연인을 달래는 방식은.

박광석 할아버지는 안필순 할머니에게 새로운 앵무새를 사 줄까. 만일 그렇다면 그 녀석은 틀림없이 재롱도 잘 펴고 말도 잘하는 녀석일 게 틀림없다. 그 재롱은 말자와는 다른 귀여움이고 그 목소리도 말자와는 다른 목소리일 테지, 하지만 조금 지나면 그 녀석도 결국엔 쌍소리를 떠들어 대는 버릇없는 앵무새가 될 것이다. 분명 그럴 거야. 멀리서부터 사르르, 잠이 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 원준에게서 사진을 첨부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해 있었다. 나 복싱 관두기로 했다 사진은 원준의 오른손을 찍은 것이었다. 아직 끝에 시든 꽃봉오리들이 조금 달려 있고 색깔이 군데군데 푸르푸르했지만, 거의 온전한 손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

나는 잘됐네라고 답장을 보냈다. 정말 잘된 일이었다.

— 『브로콜리 펀치』

작가와와의 대화

이유리

소설가

1990~

2020년 『경향 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한 뒤 일상과 비일상, 환상과 현실을 능청스럽게 오가는 이야기를 펼쳐 왔다. 『모든 것들의 세계』, 『잠이 오나요』 등을 썼다.



이 소설을 읽은 많은 독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음의 병이 있으면 손이 브로콜리가 된다니 부럽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힘들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 텐데.” 맞아요, 마음의 문제는 스스로 표현하기도 어렵고 타인에게 이해받기도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살면서 마음의 문제를 겪지 않을 수는 없으니 현명한 대처 방법을 찾아야겠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혹시 걱정거리가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해소하나요? 저는 그럴 때 낮잠을 자거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나만의 걱정 해소 방법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평생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브로콜리 펀치』를 감상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질문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답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든 질문으로 『브로콜리 펀치』를 더 재미있게 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금 고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고민이 여러분의 신체 일부를 식물로 만든다면, 어느 부분이 어떤 식물로 변할 것 같나요?

몸의 일부가 식물이 된다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할 건가요?

내가 만든 질문

학습 활동

1 이 작품의 등장인물과 인물이 한 행동을 바르게 연결해 보자.

'나'	•	•	죽은 앵무새 말자를 생각하며 산에서 크게 소리를 지른다.
고원준	•	•	오른손이 브로콜리가 된 사건을 계기로 복싱 선수를 그만둔다.
안필순 할머니	•	•	브로콜리가 된 손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는 말에 원준에게 함께 산에 가자고 한다.
박광석 할아버지	•	•	원준의 브로콜리에서 꽃이 피는 것을 보고 다 나왔다며 흡족하게 웃는다.

2 원준에게 결국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떠올리며 처방전의 빈칸을 채워 보자.



처방전
+

환자명 고원준

증상 오른손이 브로콜리가 됨.

증상의 원인	처방

3 문학 소통의 특성을 고려하며 이 작품을 살펴보자.

1 다음 질문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작품을 능동적으로 감상해 보자. 🍀



2 다음 글을 참고하여 비현실적 요소가 이 작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파악해 보자.

「홍길동전」이나 「박씨전」처럼 초자연적이고 비현실적인 소재나 사건을 다루는 ‘환상 문학’은 예로부터 존재했다. 하지만 현대 문학에서는 인간의 현실적 경험을 재현하는 사실주의 경향이 주류를 이루면서 환상 문학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런데 1990년대 일부 소설가들이 여러 가지 환상적 요소를 소설의 주요한 장치로 사용하며 환상 문학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환상을 통해 현실을 재구성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한국 환상 문학이 한 단계 발전했다. 단순히 비현실적 요소가 등장한다고 좋은 환상 문학 작품이 되는 것이 아니다. 환상성을 통해 현실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할 때, 환상 문학은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다.

--	--

● 비평문

예술 작품이나 예술 활동의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따위를 분석하여 그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글이다.

1 스파링

관투에서 헤드기어를 쓰고 실전과 같게 하는 연습 경기.

4 다음은 이 작품에 대한 비평문의 일부이다. 글을 참고하여 이 작품을 비평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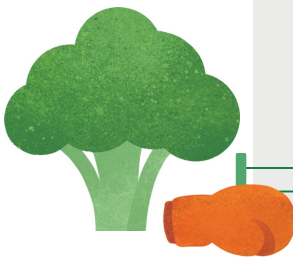
어쩌면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누군가와 경쟁하고 그로부터 기쁨이나 좌절을 맛보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점점 더 심한 경쟁을 강요받는 상황 속에서 개인의 경쟁심은 패배와 탈락에 대한 걱정으로 변질되며, 이는 다시 타인을 향해 휘두르는 폭력에 대한 감각을 점차 무디지게 한다. 아마 원준이 처음 복싱을 시작했을 무렵, 링 위의 상대는 비록 경기 중에는 최선을 다해 때리고 넘어뜨려야 하는 사람일지라도 경기가 끝나면 다시 친구로 돌아갈 수 있는 관계였을 것이다. 그러나 링 밖의 경쟁 체제는 원준이 더는 자신의 동료로 건강할 스파링¹ 상대가 아닌 반드시 이겨야 할 적으로 간주하게 한다. 이렇듯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만드는 체제 안에서 원준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인 복싱이 필연적으로 다른 누군가를 해하는 폭력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 박서양, 「성장의 계절」

1 이 비평문에서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2 다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이 작품에 대한 비평문을 짧게 써 보자.

마음의 집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	항당무계해 보이는 일을 겪은 소설 속 인물들의 반응
서로 돌보기	두 노인과 두 젊은이가 소통하는 방식	일상에 초자연적 사건이 불쑥 침범하는 작품 세계



▶ 비평문 쓰기

- 작품의 내용과 특징 이해
- 비평문의 목적 설정
- 비평문의 구조 계획
- 분석과 근거 제시
- 반응과 평가 제시
- 구체적인 예시 인용
- 개성적 문체와 정확한 표현 사용

● 4-2 활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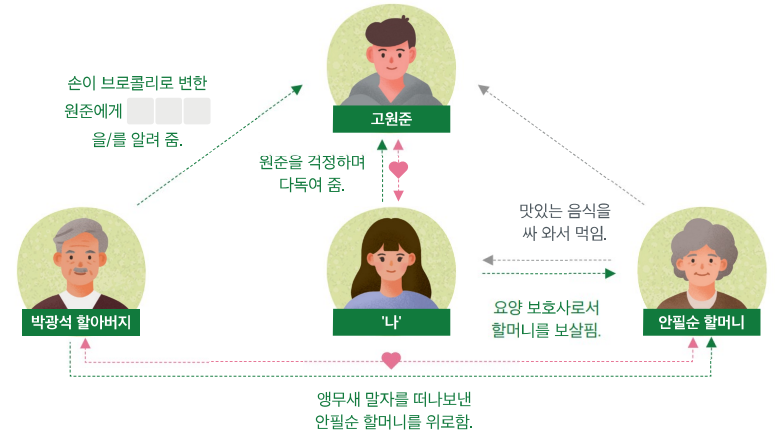


소단원 마무리



해당하는 표정에 표시하여 나의 이해도를 점검해 보자.

1 「브로콜리 편지」 내용 정리



2 「브로콜리 편지」에 작용하는 맥락



3 「브로콜리 편지」와 문학 소통

<p>능동적 반응과 감상</p> <p>여러 맥락을 고려한 질문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작품의 의미를 살핌.</p>	<p>근거에 바탕한 해석</p> <p>작품의 특징적인 요소를 설명한 글들을 참고하여 작품의 내용과 의미를 파악함.</p>	<p>주체적 참여</p> <p>자신의 생각이 담긴 <input type="text"/> 을/를 쓰면서 주체적으로 문학 소통에 참여함.</p>
--	--	---



「소곤소곤」에서는 두 명의 필자가 ‘소곤소곤’이라는 낱말과 관련한 각자의 경험을 쓴 글을 살펴본다. 필자가 자신의 개성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파악하며 글을 읽어 보자.

- 소단원** | • 다양한 언어 공동체의 특성을 이해한다.
학습 목표 | • 필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글을 쓴다.

(3) 소곤소곤

외우기로 해요 김소영

5 저는 어린이를 자주 만나기 때문에 글을 쓸 때뿐 아니라 말을 할 때도 어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당연히 저도 무심결에 잘못된 말을 쓸 때가 많습니다. 몰라서 틀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화 중에 누군가 그런 표현을 쓰면 속으로는 ‘앗’ 하고 움찔하지만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말¹이 아닌 글로 보면, 그러니까 문장으로 활자화된² 것을 보면 읽기를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저 자신이 너무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때도

10 있습니다.

그런데 의태어와 의성어, 즉 모양을 흉내 낸 말과 소리를 흉내 낸 말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일단 제가 그 말들을 좋아합니다. 품사로 치면 부사지요. 애초에 문장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낱말은 아닙니다. 스티븐 킹은 『유혹하는 글쓰기』에서 “지옥으로 가는 길은 부사로 뒤덮여 있다.”라면서 부사 없는 깔끔한 문장을 권합니다. 저도 한때는

15 부사를 안 쓰려고 노력했지만, 눈 딱 감고 쓰기 시작했더니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부사가 좋습니다. 입말이든 글말이든 의미가 풍성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흉내말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나 모양을 언어로 바꾸면서 얼마나 고민했을까 생각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고양이의 말을 ‘야옹야옹’으로 받아 적기까지, ‘미아옹, 미아오, 니야, 으아노’라고 적은 사람도 있었지요? 제 친구는 자기네 고양이(이

20 림은 두모)가 ‘이잉 우웡 위웅’ ‘으앵 오해에영’ 한다더라고요. 옛날 옛날 옛날에는 저마다 다르게 표현했을 텐데 어떻게 ‘야옹야옹’으로 합의가 되었을까요? 허둥지둥은 왜, 보송보송은 왜 그 모양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되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 말을 물렸다면, 또는 그 말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떤 표현을 썼을까요?

필자가 자주 대화하는 상대는 누구일까?

1 입말 글에서만 쓰는 특별한 말이 아닌, 일상 대화에서 쓰는 말.

2 활자화되다 원고가 인쇄되어 나오다.

소리나 모양을 언어로 바꾸는 일에서는 어린이들이 자주 과감한 답을 내놓습니다. 더 큰이는 강아지가 걷는 소리를 “축 축 축 축”이라고 적었습니다. 우산을 들고 온 미음이는 밖에 비가 “토 토 토 토” 온다고 했습니다. 김희석 시인은 1933년 작 「물오리 떼」에서 물오리 소리를 “뻑- 뻑-”이라고, 물오리가 걷는 모습을 “아그작 뽀그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모습이 보이는 듯해서 어린이들과 즐겨 읽고 외우는 동시입니다.

1 큰말

단어의 실질적인 뜻은 작은말과 같으나 표현상 크고, 어둡고, 무겁고, 약하게 느껴지는 말.

‘소곤소곤’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 나누는 소리나 모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큰말¹은 수군수군, 드러내 놓고 하는 말 같네요. 셴말은 쑤군쑤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지요. 국어사전에서 ‘소곤소곤’의 정확한 뜻을 찾아보다가 저는 다른 재미있는 말도 배웠습니다. ‘소득소득’은 풀이나 뿌리가 시들고 말라서 거친 모양을, ‘소락소락’¹⁰은 말이나 행동을 경솔하게 하는 모양을 뜻합니다. ‘소로소로’는 ‘살금살금’의 옛말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다양한 흉내말이 있으니 이걸 우리도 좀 지어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도 만들 수 있지요.

호랑이가 기지개를 켜는 모양, 여러 색깔이 겹친 해 질 녘의 하늘 모습, 부침개의 가장자리가 적당히 타는 소리, 어린이들이 어울려 놀 때 나는 기분 좋은 소리. 맞춤법이나 표기법을 생각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적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또 재미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가끔 해 보는데, 적어 놓은 것을 보면 웃음이 터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어법은 중요한 것입니다. ‘답그다’는 ‘답귀’가 아니라 ‘답가서’ ‘답그니’ 등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김치를 ‘담았다’라고 하면 통이나 그릇에 옮겼다는 뜻입니다. 김치를 만들었다면 ‘담갔다’라고 해야 합니다. ‘든가’와 ‘던가’도 잘못 쓰기 쉽습니다. ‘든가’는 선택, ‘던가’는 회상이나 의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든가 말든가’ ‘그러든가’라고 써야 합니다. “아, 얼마나 즐거웠던가!” “그날 그 사람이 거기 갔던가?” 라고 써야 하고요. 혹시 ‘설거지’의 표기가 헛갈리시나요? 그러면 외우기로 해요. 저는 어린이들에게 “설거지는 지로 끝난다!” 하고 외우게 합니다. 제가 또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설거지는 지로 끝납니다.

필자가 언급한 모양과 소리를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수어로 비밀 말하기 이길보라

수어²로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보이기 때문이죠. 물론 청자가 수어를 모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선 ‘청자’라는 단어를 살펴 보겠습니다. 청자는 ‘들을 청’이라는 한자와 ‘놈 자’ ‘사람 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이 단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수어는 시각을 기반으로 한 언어입니다. 수어의 세계에서 ‘청자’라는 말은 어쩔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는 수어를 알지 못하는 청인³이 대부분입니다.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⁴ 부모와 그에게서 나온 자란 저와 같은 코드⁵ 자녀에게 이 사회는 정말이지 불편한 것투성이입니다. 길거리에서 수어를 사용하더라도 하면 갖가지 시선이 쏟아집니다. 이상하거나 혹은 신기한 눈빛입니다. 수어를 모르는 사람이 수어 사용자를 얼마나 뻔히 쳐다보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책 한 권을 써도 모자라기에 이번에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어를 모르기 때문에 편하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언제냐고요? 바로 비밀 이야기를 할 때이지요. 가령 이런 순간들입니다.

“엄마, 저 사람 조금 이상해.”

“지금 지나가는 사람 손에 들고 있는 거 뭐야?”

“저거 맛있겠다. 옆 테이블에서 주문한 거 시키자.”

누군가는 수어를 아름다운 언어, 사랑의 언어라고도 부릅니다만 수어는 여타 언어와 같이 그냥 언어입니다. 수어라는 언어에는 ‘사랑해’와 같이 좋은 표현도 있지만 나쁜 말들도 있습니다. 비속어도 사투리도 줄임말도 유행어도 신조어도 존재합니다. 수어로 야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엉뚱한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손의 동작과 빠르기, 위치뿐 아니라 표정으로도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이유로 농인의 얼굴 표정은 꽤나 구체적이고 직접적입니다. 짜증이 나거나 싫거나 기분이 나쁠 때면 표정에 그렇다고 쓰여 있습니다. 기쁠 때는 그 누구보다도 즐겁고 행복한 표정이지요. 그래서 비밀 이야기를 할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남의 험담을 하거나 민망한 소재를 다루거나 숨겨야 하는 이야기를 할 때면 소곤소곤 말해야 합니다.

소곤소곤. 남이 알아들지 못하도록 작은 목소리로 자꾸 가만가만 이야기하는 소리나 모양을 뜻하는 ‘소곤소곤’은 수어로 어떻게 할까요? 손의 동작과 몸의 크기를 작게 하

2 수어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손과 손가락의 모양, 손바닥의 방향, 손의 위치, 손의 움직임을 달리 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 손짓말.

3 청인

청각 장애인에 상대하여 청력의 소실이 거의 없는 사람.

4 농인

청각에 장애가 있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청각 장애인.

5 코드(CODA)

‘Children Of Deaf Adults’의 약자.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청각 장애인이거나 청각 장애인 보호자에 의해 양육된 사람.

필자가 수어를 다른 언어와 같이 ‘그냥 언어’라고 설명한 까닭은 무엇일까?

고 몸을 조금 돌려 이야기합니다.

‘비밀’이라는 수어가 있습니다. 손을 하나 두고 그 안에서 손을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이때 크게 손동작을 한다면 비밀스러운 무언가가 아니겠지요. ‘소곤소곤’이라는 단어를 큰 목소리로 ‘소곤소곤’ 외치지 않고 입 모양을 작게 하려 ‘소곤소곤’ 하고 말하는 것처럼요.

5

‘비밀’이라는 수어는 이렇게 합니다. 수어를 보는 사람,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앞에 두고 왼손을 들어 마치 벽을 만드는 것처럼 가립니다. 손바닥에 오른손을 대고 손바닥을 굽는 모양을 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가린 왼손 사이로 제가 오른손의 손가락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표정과 몸동작입니다. 마치 “지기, 있잖아.” 하고 소리를 낮춰 말하는 것처럼 어깨를 움크리고 몸을 약간 돌려 눈을 작게 뜨고 작은 손동작으로 말해야 합니다.

10

이처럼 수어로 소곤소곤 말하기 위해서는 손과 몸의 동작을 작게 해야 하고 얼굴 표정도 최대한 작게 움직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말이지요. 주변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어깨나 등을 돌려 손가락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게 하는 것도 소곤소곤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요.

15

이처럼 소리로 듣는 사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사람이 중심이 되면 세상은 다르게 펼쳐집니다. 기존의 단어에 의심을 품게 되고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소곤소곤 말하는 엄마의 어깨와 그 이야기를 그 누구보다 비밀스럽게 듣고 있는 아빠의 등을 떠올립니다. 작은 몸짓과 손동작, 미세한 얼굴 표정 같은 요소는 세계 너무나 충분한 언어가 됩니다.

20

— 『일상의 날말들』

‘비밀’을 수어로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작가와의 대화

김소영 Q

독서 교육가

1976~



어린이책 편집자로 일한 뒤 어린이 독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어린이책 읽는 법』 『어린이라는 세계』 등을 썼다.

어린이는 언어를 배우기도 하지만 스스로 언어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서로 나누는 것만큼 정확해야 하는 한편,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이므로 개성 있게 사용할 수도 있지요. 언어를 잘 활용해서 우리 세계를 풍성하고 재미있게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이길보라 Q

영화감독

1990~



농인 부모에게서 수어를 배우고 세상으로부터 음성 언어를 배웠다. 영화 『반짝이는 박수 소리』 등을 만들었고 책 『고통에 공감한다는 착각』 등을 썼다.

음성 언어 중심 사회에서 시각을 기반으로 하는 수어를 사용한다는 건, 소곤소곤 비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에요. 눈으로 보고 표정으로 말하는 행위가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가능성을 지닌 수단이나 언어로서 받아들여지길 바라요. 제가 손으로 어깨로 눈썹으로 말하는 비밀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어요.

『외우기로 해요』와 『수어로 비밀 말하기』를 읽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질문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답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든 질문으로 두 작품을 더 넓어지게 해 주세요.

오늘 일상에서 만난 소리, 움직임은 무엇인가요?
나만의 흉내말로 표현해 보세요.

입으로 소리를 내어 소곤소곤 말하는 것이 아닌, 청각, 촉각 등의 다른 감각을 사용하는 언어로 ‘소곤소곤’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Blank area for the first question response.

Blank area for the second question response.

내가 만든 질문

학습 활동

1 두 글의 필자가 '소곤소곤'이라는 낱말에서 떠올린 경험이나 이야기를 찾아보자.

「외우기로 해요」

「수어로 비밀 말하기」

... 언어 공동체

집단 내에서 서로 받아들여지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개별적 언어 집단을 뜻한다. 지역, 세대, 성, 문화 등에 따라 언어 공동체는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언어 공동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참여로 새로운 의사소통 문화를 만들어가며 변화하는 특성을 지닌다.

2 두 글에서 필자가 주로 언급한 대화 상대자가 포함된 언어 공동체의 특성을 알아보자.

「외우기로 해요」



• 언어 공동체의 특성:

「수어로 비밀 말하기」



• 언어 공동체의 특성:

3 학생들이 두 글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적은 게시판을 보고 공감하는 만큼 의견 밑의 ♥를 칠하고, 필자의 개성적인 표현이나 생각이 드러난 부분을 더 찾아보자.

▶ 개성이 드러나는 글
일상의 경험에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의 고유한 목소리가 드러나도록 표현하면 다른 사람의 글과 구별되는 개성적인 글이 된다.

「외우기로 해요」

친절한 구어체를 사용해서 친근한 느낌이 들어.

♥♥♥

사전에 없는 흉내말을 새로 지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재미있어.

♥♥♥

어른도 어린이의 말에서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

♥♥♥

「수어로 비밀 말하기」

일상의 구체적인 경험을 예로 들어서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 공감할 수 있었어.

♥♥♥

'수어'를 '그냥 언어'라고 표현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어.

♥♥♥

'청자' 대신 '수어를 보는 사람', '눈으로 보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게 특별하게 느껴졌어.

♥♥♥

4 두 글을 읽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친구들과 함께 개성이 드러나는 글을 써 보자. 🌿

① 일상에서 쓰는 낱말 가운데 우리 모두가 쓸 글의 소재가 될 공통 낱말을 정해 보자.

② ①에서 정한 낱말과 관련된 경험을 떠올려 보고 그 경험의 의미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보자.



4-1 활동지



3 2에서 떠올린 경험을 바탕으로 내 개성이 잘 드러나게 글을 써 보자.

제목: _____

4 개성 있는 글 쓰기의 가치

개성이 드러나는 글을 써 보는 경험은 자아 성장에 도움을 준다. 또 우리말로 표현된 글에 자기만의 고유한 개성을 더함으로써 의사소통 문화를 확장하고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다.

4 3에서 쓴 글을 친구들과 함께 읽으며 친구들의 글과 내 글이 각각 어떤 개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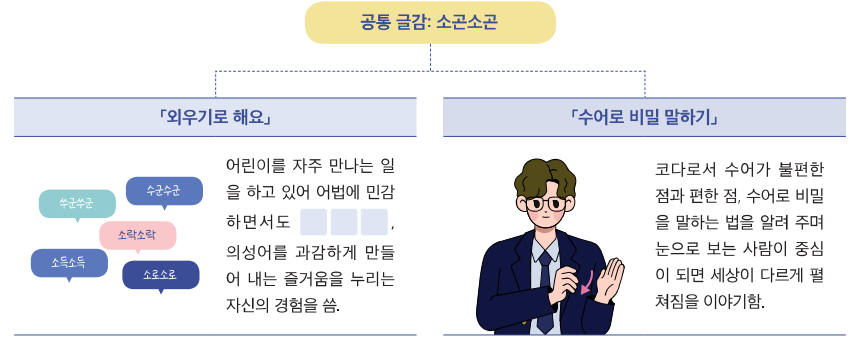
우리는 '안녕'이란 낱말로 글을 썼는데, 다양한 글이 나올지 걱정했거든? 그런데 설렘, 미안함 등 인사에 담은 마음이 다 달랐고, 상황이나 표현 방식도 다채롭더라고. 글을 쓰면서 평소 내 마음을 돌아봐서 좋았고, 친구들 모두 안녕하기를 바르게 되었어.

소단원 마무리



해당하는 표정에 표시하여 나의 이해도를 점검해 보자.

1 '소곤소곤' 내용 정리



2 '소곤소곤'에서 알 수 있는 언어 공동체의 특성



	「외우기로 해요」	「수어로 비밀 말하기」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	□□□, 선생님	농인, 코다
언어 사용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의 특징이나 표현의 새로움에 관심을 가짐. • 과감하고 창의적으로 언어를 사용할. • 어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관심을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듣는 언어' 대신 '□□□ 언어'인 수어를 사용할. • 몸짓이나 표정을 중요한 표현 수단으로 사용할. • 음성 언어 중심 사회의 불편한 점을 인식함.

3 개성 있는 글 쓰기와 의사소통 문화



	일상의 경험에 □□□ 부여	필자의 고유한 □□□	의사소통 문화의 발전
「외우기로 해요」	흥내말 만들기의 즐거움과 의미	친절한 구어체로 독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감.	어린이의 표현이 지니는 다채로움을 언어생활에 도입하고 배움.
「수어로 비밀 말하기」	수어 사용의 힘든 점과 좋은 점	일상의 경험을 예로 들어 독자가 몰랐던 사실에 공감하게 함.	수어의 풍부한 표현법과 새로운 관점을 널리 알림.

창의·융합 활동

추천! 도서관 책에 메모 붙이기



나는 도서관원이야. 도서관 담당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책을 더 많이 읽게 할 방법을 고민해 보자고 하셨어. 우리끼리 이야기하다가 책 표지에 책을 추천하는 내용을 적은 메모를 붙이자 는 의견이 나왔어. 이 책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책의 어떤 점이 좋은지, 책을 누가 읽으면 좋을지 등을 소개하자는 거지. 우리가 추천 메모를 쓰면 친구들이 책에 더 관심을 갖겠지?

- ▶ 1 추천할 책 선정하기
- ▶ 2 책에 대해 이야기하기
- ▶ 3 추천 메모 만들기
- ▶ 4 도서관에 추천 도서 서가 만들기

1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문학책이나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책을 정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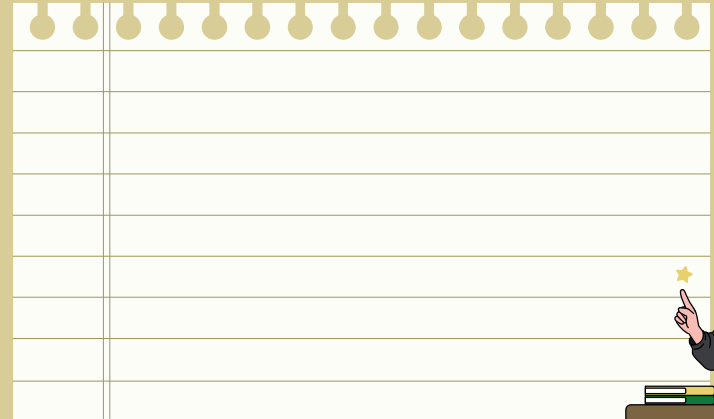
▶ 희망 도서 신청하기
고른 책이 도서관에 없으면
비지해 달라고 신청한다.

2 1에서 정한 책에 대해 친구들에게 소개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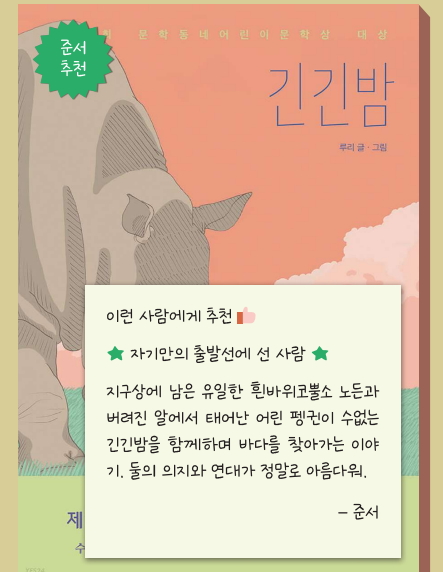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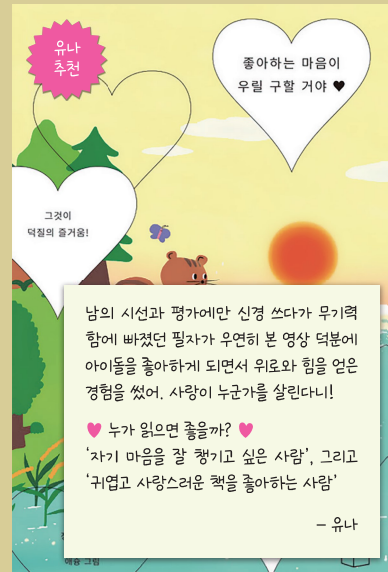
3 내가 추천하는 책에 친구들이 호기심과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나의 개성을 담아 추천 메모를 만들어 보자.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에서 다른 사람들이 책을 어떤 방식으로 추천했는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거야. 나는 별점과 한 줄 평 방식을 활용해 보려고 해.



4 3에서 만든 메모를 책 표지에 붙이고, 각자 메모를 붙인 책을 모아 도서관에 추천 도서 서가를 마련해 보자.



깊고 넓게 읽기

이해라는 문

박준

교문을 나와 십 분 정도 걸으면 그 분식집이 있었다. 한적한 주택가 건물 반 지하, 이름은 따로 있었지만 나와 친구들은 그곳을 세균 떡볶이라 불렀다. 별명의 연유는 모르겠지만, 전부터 학교 선배들과 동네 아이들이 그렇게 불러 온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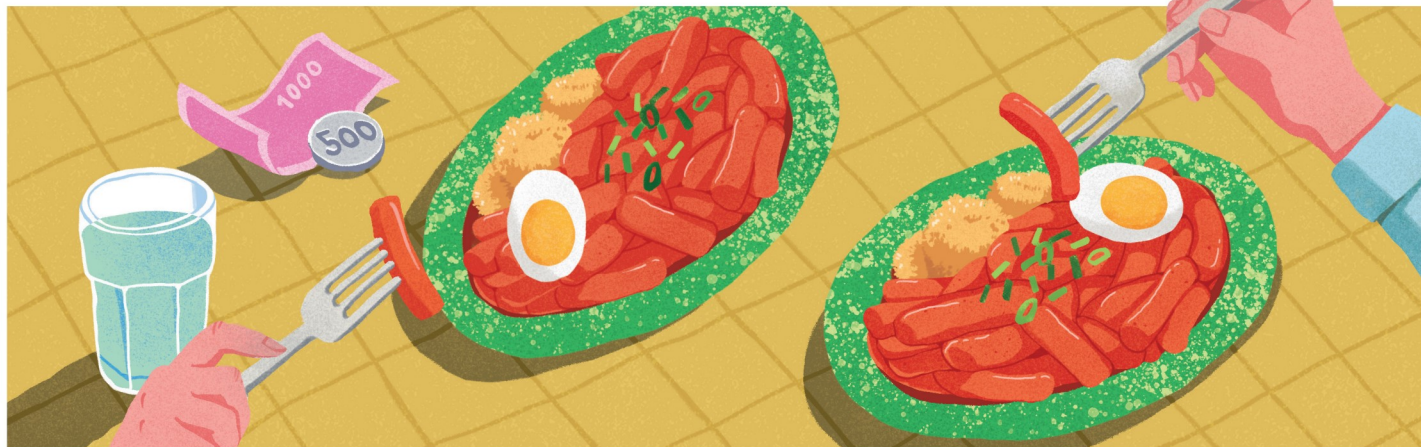
세균 떡볶이에 들어가면 긴 테이블과 늘어진 의자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그 끝에는 별명을 무색하게 할 만큼 깔끔한 주방이 있었다. 오명에 가까운 별명에도 세균 떡볶이는 인근에 사는 초등학교부터 동네 순찰을 도는 의무 경찰들까지 단골로 찾던 집이었다.

벽면에는 굵은 유성펜으로 메뉴가 적혀 있었다. 라면이나 김치볶음밥 같은 것도 있었지만 나와 친구들은 매번 한 가지 메뉴만을 주문했다. 튀김 세 개와 삶은계란 하나가 떡볶이와 함께 범벅이 되어 나오는, 세균 정식이라 부르던 그것. 값은 천 원.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생이었다는 것을 감안해도 천 원은 그리 큰 돈이 아니었다. 덕분에 토요일 점심마다 정기적으로 들렀고 평일 저녁에는 부정기적으로 그곳을 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세균 떡볶이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가 매번 먹었던 정식이 아닌 떡볶이만을 주문해 보았는데 값은 오백 원이며 심지어 세균 정식과 동일하게 튀김 세 개와 삶은계란 하나가 함께 나온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농담은 재미가 있을 때 농담일 수 있다고 친구에게 핀잔을 주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 당시 1999년에도 오백 원은 돈다운 돈이 아니었다. 서울 지하철 기본 구간

운임 오백 원, 서울 택시 기본요금 천삼백 원, 막 국내에 1호점을 낸 다국적 커피 전문점의 아메리카노 소트 사이즈가 이천오백 원이었다. 하지만 친구는 크게 억울해하면서 오늘 학교를 마치는 대로 세균 떡볶이로 가자고 했다. 자기가 떡볶이를 사겠다고 덧붙이며.

오백 원짜리 떡볶이를 각자 하나씩 시킨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기다리는 동안 "정말 정식이 똑같이 나오면 천 원을 주겠다. 안 나오면 네가 천 원을 내놓아라.", "천 원 받고 떡볶 열 대 더." 같은 내기를 했다. 검은색 페인트로 칠한 천장을 올려다보며 "밤하늘 같아."라고 했다가 "시인 같은 소리 하네." 핀잔을 들은 기억도 있다. 시인이 아니라 시인 같은 것이지만, 어쨌든 내가 시인 소리를 들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이해라는 문」은

필자에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을 열어 준 분식집 사장님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쓴 글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누군가와 소통한 적이 있었는지, 그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생각하며 글을 읽어 보자.

이어 떡볶이가 나왔다. 제보를 했던 친구의 말처럼 오백 원짜리 떡볶이는 천 원짜리 모듬과 동일한 구성과 양이었다. 이 놀라운 발견 앞에서 우리들은 제값 천 원을 주고 먹었던 지난 시간을 후회했다. 그날부터 우리는 세균 떡볶이에 갈 때마다 세균 정식 대신 오백 원짜리 떡볶이를 주문했다. 마치 세계의 큰 비밀을 우리만 엿본 것처럼 즐거웠다. 떡볶이와 튀김과 삶은계란의 조합은 왜 질리지 않을까 의아해하면서.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우리는 다시 천 원짜리 세균 정식을 시키기 시작했다. 먼저 그렇게 하자고 제안한 사람은 없었다. 다만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모두들 비슷한 시기에 했던 모양이었다. 분식집 사장님이 왜 오백 원짜리 떡볶이를 천 원짜리 모듬과 동일하게 내주는지, 이유는

여전히 몰랐지만 그 마음을 짚어 보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왔던 것이다.

아쉽게도 그 분식집은 몇 해 전 문을 닫았다. 우리들에게 어떤 문 하나를 활짝 열어 주고서.

— 『계절 산문』



필자와 친구들이 다시 천 원짜리 세균 정식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대단원 마무리

배운 어휘 확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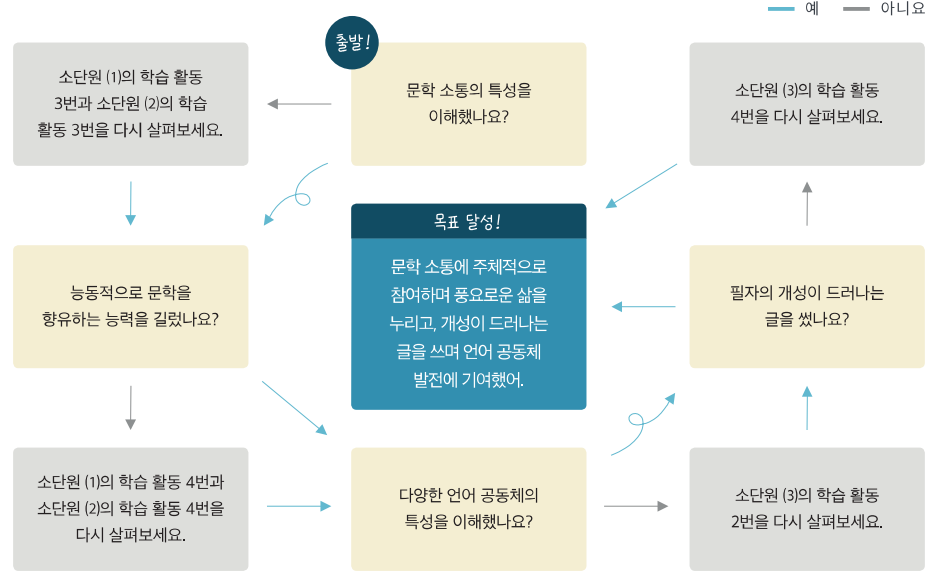
다음 문제의 답이 ○인 번호를 그림에서 찾아 해당하는 색을 칠해 보자.

3	3	2	2	2	3	3	3	3	2	3	2	3	3	3	3	3	2	5	5	5	5	5	5	
3	3	2	2	2	3	3	3	3	2	2	2	3	4	4	4	5	5	2	5	0	5	0	5	5
3	3	1	2	1	3	3	3	3	3	2	3	4	4	4	4	4	5	5	0	0	0	0	0	2
3	1	1	1	1	1	3	2	2	2	2	4	4	4	4	4	4	6	5	5	0	0	0	2	2
3	3	1	1	1	5	5	2	3	3	3	4	4	4	4	7	4	6	6	5	5	0	5	2	2
3	3	2	1	2	5	5	2	4	4	4	4	4	4	4	4	4	6	3	3	5	5	5	5	2
3	2	2	2	2	2	4	4	4	4	4	4	4	4	4	4	4	5	5	3	5	5	5	5	5
5	5	2	2	2	4	4	4	4	4	4	6	4	4	4	4	4	4	5	5	5	5	5	5	5
5	5	5	2	4	4	4	4	4	4	6	4	4	4	4	4	4	4	5	5	3	5	3	5	5
5	5	5	4	4	4	4	4	6	4	4	4	4	4	4	4	4	4	3	3	3	3	3	3	5
5	5	3	3	4	4	4	4	4	6	4	4	4	4	4	4	4	4	5	3	3	3	3	5	5
5	3	3	3	3	4	4	4	4	4	6	4	4	4	4	4	4	4	5	5	3	5	5	5	5
2	2	2	2	2	2	4	4	4	4	4	4	4	4	4	4	4	4	2	2	2	2	2	2	2
2	2	2	2	2	2	2	4	4	6	6	6	4	4	6	6	6	4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번호	문제	○, X	번호	문제	○, X
0 분홍색	몸이 지쳐 늘어진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은 '곤죽'이다.		1 빨간색	'맑고 산뜻하다'라는 뜻의 단어는 '청신하다'이다.	
2 연두색	작품을 감상할 때 작가의 성향이나 가치관 등과 관련해 수용하는 것을 '문학사적 맥락'이라고 한다.		3 보라색	사물의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따위를 분석하여 가치를 논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한다.	
4 노란색	'내용의 핵심이 어느 한곳에 집중되어 쌓여 있다'라는 뜻의 단어는 '응축하다'이다.		5 하늘색	단어의 실질적인 뜻은 작문말과 같으나 표현상 작고, 가볍고, 강하게 들리는 말을 '큰말'이라 한다.	
6 주황색	청각 장애인인 부모나 보호자가 양육한 사람을 '코다'라고 한다.		7 파란색	집단 내에서 받아들여지는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 개별적 언어 집단을 '언어 공동체'라고 한다.	

스스로 점검하기

다음 순서도의 질문에 답하며 나의 학습 정도를 점검해 보자.



이 단원을 마치며



우리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문학 작품을 능동적으로 감상하며 향유할 거고, 나 자신을 개성적인 글로 표현하면서 세상을 다채롭게 만드는 어엿한 언어 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거야.

- ★ 이 단원을 모험한 소감이 어때? _____
- ★ 앞으로 무엇을 더 공부해 볼까?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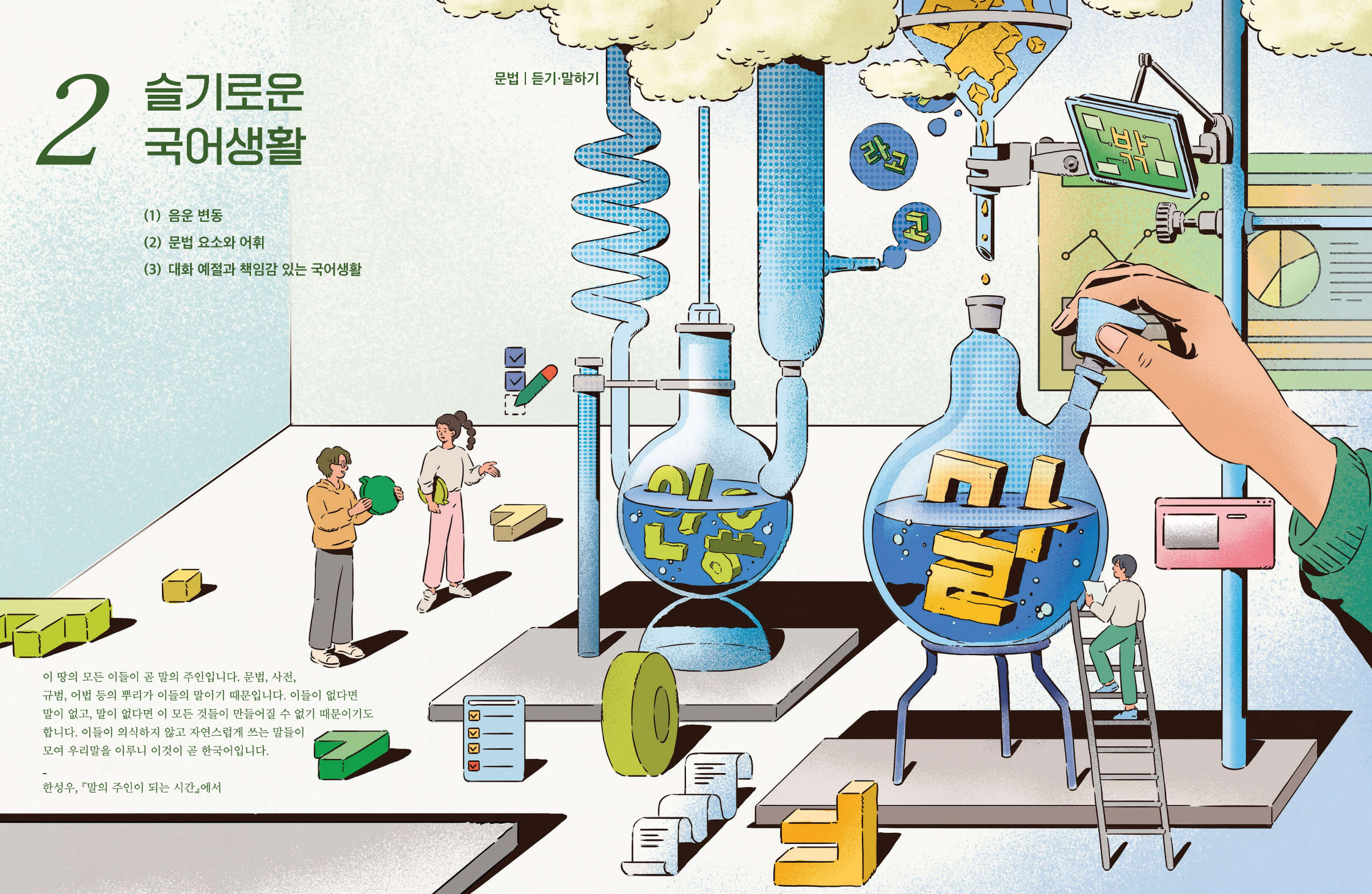
2 슬기로운 국어생활

- (1) 음운 변동
- (2) 문법 요소와 어휘
- (3) 대화 예절과 책임감 있는 국어생활

문법 | 듣기·말하기

이 땅의 모든 이들이 곧 말의 주인입니다. 문법, 사전, 규범, 어법 등의 뿌리가 이들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없다면 말이 없고, 말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쓰는 말들이 모여 우리말을 이루니 이것이 곧 한국어입니다.

- 한성우, 『말의 주인이 되는 시간』에서



대단원 길잡이

🔍 무엇을 배울까

(1) 음운 변동



- 음운 변동의 원리와 규칙 탐구하기
- 탐구 내용을 발음과 표기에 올바르게 적용하기

(2) 문법 요소와 어휘



- 글과 담화에 나타난 문법 요소와 어휘의 표현 효과 평가하기
- 문법 요소와 어휘를 활용하여 적절한 표현 만들기

(3) 대화 예절과 책임감 있는 국어생활



- 듣기·말하기 과정을 점검하며 대화의 원리를 바탕으로 대화하고,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성찰 및 개선하기
- 언어 공동체의 다변화로 다양해진 언어 실천 양상을 분석하고 책임감 있는 국어생활 하기

창의·융합 활동

- 특종! 우리말 달인 찾기

깊고 넓게 읽기

- 이슬아의 「당연하지 않은 부모」 읽기
-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말한 경험 떠올리기

? 왜 배울까

언어 공동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우리는 타인과 주로 언어로 소통합니다.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과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려면 음운 변동을 알아야 해요. 상황과 대상, 글과 담화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표현을 하려면 문법 요소와 어휘를 알아야 하지요. 매끄럽게 대화하려면 대화의 원리를 기반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듣기·말하기 과정과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성찰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도 있지요.

다변화하는 언어 공동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차별을 예상하고 이에 대응하며, 언어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언어 실천에 참여하는 태도도 필요해요. 이러한 지식과 태도를 두루 갖추면 상황과 상대에 따라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 이 단원을 배우면

- 체계와 구조를 갖춘 의미 생성 자원이자, 사회적으로 구성된 관습적 규약이며, 공동체의 사고와 가치를 표상하는 문화적 산물인 국어를 탐구하며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을 기를 수 있다.
- 듣기·말하기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주고받으며 의사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다.
- 일상생활에서 국어 현상과 국어 문제를 탐구하고 성찰하면서 언어 주체로서의 정체성과 국어 의식을 형성하며 자기 성찰·계발 역량을 기를 수 있다.

📁 생각 열기

다음 담화 상황에서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한 까닭을 써 보자.

선배♥

선배가 해 준 조언 덕분에 저희 연극이 드라마틱하게 잘 공연 되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오후 8:30

선배♥

공연이 잘 마무리되었다니 다행이다. 그런데 국어 공부는 조금 더 하면 좋겠어.

오후 8:30

갑자기요? 흠…… 어떡케 해야 할까요?

오후 8:32

선배♥

오후 8:33

어떻게 오셨어요?

음…… 걸어서요.

?

?

대단원 학습 목표

- 음운 변동을 탐구하여 발음과 표기에 올바르게 적용한다.
- 다양한 분야의 글과 담화에 나타난 문법 요소 및 어휘의 표현 효과를 평가하고 적절한 표현을 생성한다.
- 대화의 원리를 고려하여 대화하고 자신의 듣기·말하기 과정과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성찰한다.
- 언어 공동체가 다변화함에 따라 다양해진 언어 실천 양상을 분석하고 언어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며 국어생활을 한다.



「음운 변동」에서는 어떤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서 다르게 발음되는 현상들을 살펴본다. 올바른 발음과 표기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나의 국어생활이 어떠한지 성찰해 보자.

- 소단원** | • 음운 변동을 탐구한다.
학습 목표 | • 탐구한 내용을 발음과 표기에 올바르게 적용한다.

(1) 음운 변동

알고 가기

음운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예 **물, 불, 풀/물, 말, 밀/물, 목, 문**

• 자음 체계

조음 방법	조음 위치	입술소리 (양순음)	잇몸소리 (치조음)	센 입천장소리 (경구개음)	여린 입천장소리 (연구개음)	목청소리 (후음)
		파열음	예사소리 ㅂ	된소리 ㅃ	거센소리 ㅍ	예사소리 ㄷ
파찰음	예사소리			센 ㅈ	여린 ㅊ	
마찰음	예사소리		ㄴ			ㅇ
	된소리		ㄴ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 단모음 체계

혀의 높이	혀의 위치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입술 모양	ㅣ	ㅜ	ㅡ	ㅓ
중모음		ㅔ	ㅛ	ㅚ	ㅝ
저모음		ㅙ	ㅞ	ㅜ	ㅟ

● 표준 국어 대사전 누리집



stdict.korean.go.kr

▶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는 어휘적인 의미를 가지는 형태소이다.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 의미만 나타내는 형태소로 조사, 어미, 접사가 이에 속한다.

꽃이 예쁘다			
꽃	이	예쁘-	-다
실질	형식	실질	형식

▶ **연음**

음절의 끝소리가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져 발음되는 현상으로 음운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활동 1. 음운 변동의 이해

음운이 환경에 따라 달리 실현되는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 음운 변동에는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다.

● **교체: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 끝에 위치한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중 하나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이때 ‘ㄱ, ㄷ, ㅂ’이 아닌 자음이 음절 끝에서 각각 ‘ㄱ, ㄷ, ㅂ’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경우가 교체에 해당한다.

자음으로 끝나거나 자음 뒤에 자음이 오는 경우	밖[박]	숲길[숯길]
자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는 경우	엮얼굴[어벌굴]	꽃 위[꼬위]

※ 자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연음된다. 예) 밭에[바테]

● **비음화:** ‘ㄱ, ㄷ, ㅂ’이 비음 ‘ㅁ, ㄴ’ 앞에서 각각 비음 ‘ㅇ, ㄴ, ㄹ’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 국내[궁내] 식물[싱물] 닫는[단는] 업무[엄무]

※ ‘ㄹ’은 ‘ㄹ’을 제외한 다른 자음 뒤에서 비음 ‘ㄴ’으로 바뀐다. 예) 종로[종노], 협력[협녁→협녁]

● **유음화:** ‘ㄴ’이 유음인 ‘ㄹ’을 만나 유음 ‘ㄹ’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ㄹ’이 ‘ㄴ’ 앞에 오는 경우	칼날[칼랄]	실내화[실래화]
‘ㄹ’이 ‘ㄴ’ 뒤에 오는 경우	권리[꺠리]	산림[살림]

● **구개음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ㅟ’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ㅈ,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 굳이[고지] 해돋이[해도지] 같이[가치] 붙여[부처]

▶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받침소리가 ‘ㄱ, ㄷ, ㅂ’으로 교체된 뒤에 비음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예) 댕댕(댕댕→댕댕)

▶ **유음화의 예외**

‘ㄹ’이 ‘ㄴ’ 뒤에 오지만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 생산량[생산량]

▶ **반모음**

모음과 같이 발음하지만 음절을 이루지 못하는 음운으로 단모음과 결합하여 이중 모음이 된다. ‘ㅟ’[a]에서의 ‘ㅣ’나 ‘ㅠ’[wa]에서의 ‘w’ 등이 있다.

확인하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

1 다음 단어들의 발음을 써 보자.

- ① 부엌[부엌] ② 앞뜰[] ③ 걸웃[] ④ 깊이[]

비음화

2 다음 단어들의 발음을 써 보고, 해당하는 음운 변동 양상과 연결해 보자.

작문[장문]	·	비음 앞 ‘ㄱ’이 ‘ㅇ’으로 발음
굳는[]	·	비음 뒤 ‘ㄹ’이 ‘ㄴ’으로 발음
잡목[]	·	비음 앞 ‘ㅂ’이 ‘ㅁ’으로 발음
삼리[]	·	비음 앞 ‘ㄷ’이 ‘ㄴ’으로 발음
독립[]	·	‘ㄱ’ 뒤 ‘ㄹ’이 ‘ㄴ’, 비음 앞 ‘ㄱ’이 ‘ㅇ’으로 발음

유음화

3 다음 단어들의 발음을 쓰고, ○ 표시한 음운이 어떻게 변했는지 적어 보자.

진리[질리]	신라[]	불다방[]	물난리[]
ㄴ + ㄹ → ㄹ + ㄹ	ㄴ + ㄹ → + ㄹ	ㄹ + ㄴ → ㄹ +	ㄹ + ㄴ → ㄹ +
	ㄴ + ㄹ → + ㄹ		ㄴ + ㄹ → + ㄹ

구개음화

4 다음 질문에 ○, × 표시를 하며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음운 환경을 알아보자.

	굳이[고지]	밭을[바를]	끝인사[끄띤사]
① 받침에 ‘ㄷ’이나 ‘ㅌ’이 있는가?	(○,×)	(○,×)	(○,×)
② ‘ㄷ’이나 ‘ㅌ’ 뒤에 모음 ‘ㅣ’나 반모음 ‘ㅟ’로 시작하는 말이 왔는가?	(○,×)	(○,×)	(○,×)
③ 모음 ‘ㅣ’로 시작하는 말이 형식 형태소인가?	(○,×)	(○,×)	(○,×)
구개음화가 일어났는가?	(○,×)	(○,×)	(○,×)

알 수 있는 점:

①~③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은/는 일어나지 않는다.

▶ 용언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동사, 형용사를 이른다. 용언이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 형태가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

예쁘다	
예쁘-	-다
어간	어미

- **된소리되기:**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일정한 음운 환경에서 된소리인 ‘ㄲ, ㄸ, ㅃ, ㅆ, ㅉ’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ㄱ, ㄷ, ㅂ’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오는 경우	국밥[국꺽]	담다[담따]
용언의 어간 받침 ‘ㄴ, ㄹ’ 뒤에 ‘ㄱ, ㄷ, ㅅ, ㅈ’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는 경우	신다[산따]	담고[담꼬]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ㄷ, ㅅ, ㅈ’이 오는 경우	갈등(葛藤)[갈똥]	실수(失手)[실수]
관형사형 어미 ‘-(으)르’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오는 경우	갈 곳[갈꺽]	만날 사람 [만날싸람]

- **반모음화:**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주로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어간의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표기에 반영한다.

단모음 ‘ㄱ’가 반모음 ‘ㄲ’로 바뀌는 경우	계시-+-어아 → 계셔야[계셔야]
단모음 ‘ㄴ’나 ‘ㄷ’가 반모음 ‘ㄹ’로 바뀌는 경우	보-+-아라 → 봐라[봐라]

※ 음절 수가 줄어들지만 음운 수는 줄어들지 않으므로 축약으로 보지 않는다.

- **탈락:**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이다.

- **모음 탈락:** 두 모음이 이어질 때 그중 한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으로 표기에도 반영한다. 어간 끝의 모음 ‘ㄴ’가 ‘-아’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거나 어간 끝의 모음 ‘ㄷ’가 ‘-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동일한 모음 가운데 하나가 탈락하거나, 어간 끝의 모음 ‘ㄴ’가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ㄴ’가 탈락하는 것 등이 있다.

‘ㄴ/ㄷ’로 끝나는 어간 뒤에 동일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는 경우	가-+-아서 → 가서[가서] 건너-+-어라 → 건너라[간:너라]
‘ㄴ’로 끝나는 어간 뒤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는 경우	담고-+-아 → 담가[담가] 쓰-+-어 → 써[써]

- **자음군 단순화:** 음절 끝에 겹받침이 올 때 그중 하나의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이다.

겹받침 중 뒤의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	넋[넋]	앉다[안따]	값[갑]
----------------------	------	--------	------

※ ‘ㄴ’은 보통 ‘ㄹ’이 탈락하지만 ‘뱃-’이 자음을 만날 때나 ‘넋적하다[넋쩌카다]’ 등에서는 ‘ㄹ’이 탈락한다. 예) 여덟[어덜] — 밭다[밥따]

겹받침 중 앞의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	닭[닥]	삼[삼]	옴고[옴꼬]
----------------------	------	------	--------

※ ‘ㄹ’은 보통 ‘ㄱ’이 탈락하지만 어간 끝 ‘ㄹ’이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날 경우 ‘ㄱ’이 탈락한다. 예) 닭다[막따] — 맑게[말꺽]

▶ 자음 탈락

• ‘ㄹ’ 탈락
㉠ 풀-+-는 → 푸는[푸는]

• ‘ㅇ’ 탈락
㉡ 줄-+-아 → 줄어[조:아]

확인하기

된소리되기

- 1 다음의 발음 및 음운 변동이 일어난 환경을 써 보자.

발전(發展)[발뺨]	각도[]	할 수[]	담다[]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ㅈ’이 온다.			

반모음화

- 2 다음 단어들의 발음을 써 보고, ○ 표시한 음운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자.

자-+-어라 → 겨라[겨라] 올리-+-어 → 올려[] 나뉘-+-어도 → 나뉘도[]

ㅣ + ㅣ → 반모음 ㅝ ㅣ + ㅣ → ㅍ + ㅍ → 반모음 ㅍㅍ ㅍ + ㅍ → 반모음 ㅍㅍ

모음 탈락

- 3 다음 단어들의 알맞은 표기를 써 보고 어떤 음운 변동이 반영되었는지 알아보자.

타-+-아서 → 타서	서-+-어라 → []	잠고-+-아 → []
어간 끝의 ‘ㄴ’가 어미 ‘-아서’와 만나 ‘ㄴ’ 중 하나가 탈락	어간 끝의 ‘ㄴ’가 어미 ‘-어라’와 만나 ‘ㄴ’ 중 하나가 []	어간 끝의 ‘ㄴ’가 어미 ‘-아’와 만나 ‘ㄴ’이 []

자음군 단순화

- 4 다음 단어들의 표준 발음으로 적절한 것에 ○ 표시를 해 보자.

없다 [일따]/[익따]	굶다 [굶따]/[국따]	앉다 [알따]/[압따]	밟지 [밭찌]/[밥찌]
--------------	--------------	--------------	--------------



▶ **합성어**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 눈물, 돌다리

▶ **파생어**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 헛소리, 맥이

▶ **'ㄴ' 첨가와 비음화, 유음화**

첨가된 'ㄴ'의 영향으로 비음화가 일어나기도, 첨가된 'ㄴ'이 유음화되기도 한다.

㉢ 색연필(색년필 → 생년필), 물약(물낙 → 물락)

▶ **거센소리되기와 겹받침**

'ㄹ', 'ㄷ'의 'ㅎ'은 'ㄱ, ㄷ, ㅂ, ㅈ'과 만나 거센소리가 되고 'ㄴ'과 'ㄹ'은 앞말의 받침으로 발음된다.

㉣ 앞고[안코], 끝대[끝타]

● **첨가: 없던 음운이 새로 더해지는 현상이다.**

- **'ㄴ' 첨가:**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ㅣ'나 반모음 'ㅍ'로 시작할 때 앞말과 뒷말 사이에 'ㄴ' 소리가 첨가되는 현상이다.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ㅣ'로 시작하는 경우	맨-+입 → 맨입[맨닙] 숨+이불 → 숨이불[숨:니불]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반모음 'ㅍ'로 시작하는 경우	한-+여름 → 한여름[한너름] 내복+약 → 내복약[내:복낙]

● **축약: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음운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 **거센소리되기:** 'ㅎ'과 예사소리 'ㄱ, ㄷ, ㅂ, ㅈ'이 결합하여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ㅎ' 앞에 'ㄱ, ㄷ, ㅂ, ㅈ'이 오는 경우	축하[추카]	만형[마형]	잡혀[자퍼]
'ㅎ' 뒤에 'ㄱ, ㄷ, ㅂ, ㅈ'이 오는 경우	달고[다코]	농대[노타]	총지[조치]

확인하기

1 **'ㄴ' 첨가** 다음 질문에 ○, × 표시를 하며 'ㄴ' 첨가가 일어나는 음운 환경을 알아보자.

	집안일[지반닐]	옹이[옹이]	덧신[덜씬]
① 합성어나 파생어인가?	(○, ×)	(○, ×)	(○, ×)
②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는가?	(○, ×)	(○, ×)	(○, ×)
③ 뒷말이 'ㅣ'나 반모음 'ㅍ' 중 하나로 시작하는가?	(○, ×)	(○, ×)	(○, ×)
'ㄴ' 첨가가 일어났는가?	(○, ×)	(○, ×)	(○, ×)

알 수 있는 점: ①~③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ㄴ'은/는 일어나지 않는다.

2 **거센소리되기** 다음 단어들의 발음을 쓰고, 음운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자.

법학[버팍]	국화[]	그렇다[]	하얗지[]
ㅂ + ㅎ → ㅍ	+ →	+ →	+ →

활동 2. 음운 변동의 실제

1 빈칸을 채우며 다음 단어들이 어떤 음운 변동 과정을 거치는지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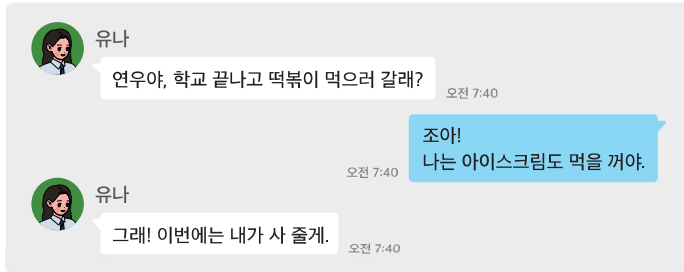


▶ **복합적 음운 변동**
한 단어 안에서 음운 변동이 여러 번 일어나기도 한다.

2 우리나라의 명소와 각각의 명소를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연결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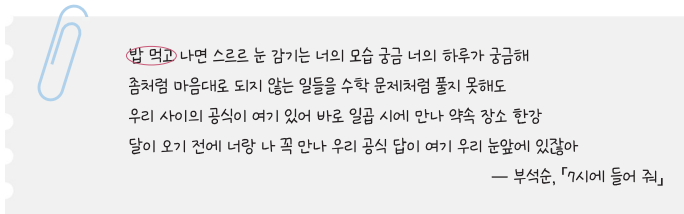


3 다음에서 잘못된 표기를 찾아보고, 음운 변동과 관련하여 정확한 표기와 발음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4 노랫말을 읽으며 나와 친구의 발음을 점검해 보자.

1 노랫말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부분을 모두 표시한 다음, 노랫말을 읽으며 녹음해 보자.



2 녹음한 것을 듣고 나의 발음을 점검해 보자.

1	음운 변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을 발음에 잘 적용했다.	상	중	하
2	잘못된 발음을 찾아서 바르게 고쳤다.	상	중	하

3 녹음한 것을 친구와 바꾸어 들어 보고, 잘못 발음한 부분이 있다면 고쳐 보자.



소단원 마무리



해당하는 표정에 표시하여 나의 이해도를 점검해 보자.

1 음운 변동의 개념



□ □ 이/가 환경에 따라 달리 실현되는 현상

2 음운 변동의 종류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 끝에 위치한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중 하나로 발음되는 현상
□ □ 화	'ㄱ, ㄷ, ㅂ'이 비음 'ㅁ, ㄴ' 앞에서 각각 비음 'ㅇ, ㄴ, ㄹ'으로 발음되는 현상
유음화	'ㄴ'이 유음인 'ㄹ'을 만나 유음 'ㄹ'로 발음되는 현상
구개음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ㅈ'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ㅈ,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
□ □ □ 되기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일정한 음운 환경에서 된소리인 'ㄱ, ㄷ, ㅂ, ㅅ, ㅈ'으로 발음되는 현상
반모음화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주로 '-이/-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어간의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표기에도 반영



모음 탈락	어간 끝의 모음 'ㅏ/ㅑ'가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동일한 모음 가운데 하나가 탈락하거나 어간 끝 모음 'ㅡ'가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ㅡ'가 탈락하는 현상으로 표기에도 반영
□ □ □ 단순화	음절 끝에 겹받침이 올 때 그 가운데 하나의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



'□' 첨가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ㅣ'나 반모음 'ㅈ'로 시작할 때 앞말과 뒷말 사이에 'ㄴ' 소리가 첨가되는 현상
--------	--



거센소리되기	'□'과/와 예사소리 'ㄱ, ㄷ, ㅂ, ㅅ'이 결합하여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
--------	--



「문법 요소와 어휘」에서는 글이나 담화에 나타나는 문법 요소와 어휘의 표현 효과를 살펴본다. 상황과 대상에 맞게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파악하여 이를 언어생활에서 적절하게 사용해 보자.

- 소단원**
학습 목표
- 다양한 분야의 글과 담화에 나타난 문법 요소 및 어휘의 표현 효과를 평가한다.
 - 문법 요소 및 어휘를 활용하여 적절한 표현을 생성한다.

(2) 문법 요소와 어휘

알고 가기

- 발화** 화자 머릿속의 생각, 느낌 등이 의사소통 상황에서 문장 단위로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 담화** 둘 이상의 발화나 문장이 연속되어 이루어지는 말의 단위를 뜻한다.
- 담화 맥락** 시간적·공간적 배경, 화자와 청자의 관계, 담화의 의도나 목적, 주제, 매체 등 담화를 둘러싼 상황을 의미한다.
- 문법 요소** 문법적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요소로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인용 표현 등이 있다. 문법 요소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하면 자신의 태도나 인식을 언어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태도나 인식을 적절히 읽어 낼 수 있다.
- 어휘** 국어의 어휘는 기원, 즉 어디서 유래되었는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이를 어중에 따른 분류라고 한다.
 - ▶ 고유어: 우리말에 본래부터 있던 말이나 그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이다.
 - ▶ 한자어: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이다.
 - ▶ 외래어: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이다.

활동 1. 문법 요소와 어휘의 이해

상대 높임의 유형

격식체	아주높임	하심시오체
	예사 높임	하오체
	예사 낮춤	히게체
비격식체	아주낮춤	해라체
	두루높임	해오체
	두루낮춤	해체

직접 높임

주체 높임의 일종으로, 주체를 직접 높이는 방법이다.
 ⓐ 아버지께서는 건강하시다.
 (주체인 아버지를 높임.)

간접 높임

주체 높임의 일종으로, 주어와 긴밀하게 관련된 대상(신체 일부, 소유물, 말 등)을 높이는 방법이다.
 ⓑ 할아버지께서는 키가 크시다.
 (주체인 할아버지의 키를 높임.)

- **높임 표현:** 말하는 사람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그 높고 낮은 정도를 언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 **상대 높임:** 대화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어 대우하는 방법이다.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된다.

안전띠를 매십시오/매오/매게/매라/매요/매.

- **주체 높임:**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으로, 선어말 어미 ‘-(으)시-’와 주격 조사 ‘께서’를 통해 표현된다. ‘계시다’, ‘주무시다’ 등 특수 어휘를 사용하기도 한다.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으)시-’	할머니께서 집에 오시는 중이다.
특수 어휘 ‘계시다’	나는 고향에 계시는 할머니가 보고 싶다.

- **객체 높임:**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대상인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부사격 조사 ‘께’를 통해 표현하거나 ‘모시다’, ‘뵙다’ 등과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기도 한다.

부사격 조사 ‘께’	유나는 선생님께 갔다.
특수 어휘 ‘뵙다’	유나는 선생님을 뵙고 왔다.

- **시간 표현:**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어떤 사건이나 상태의 시간적 위치를 언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 **시제:** 어떤 일이 과거에 일어났는지,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지, 미래에 일어날 것인지를 문법적으로 구별하여 보여 주는 시간 표현이다. 일반적으로 시제는 말하는 이가 말하는 때인 **발화시**와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때인 **사건시**를 기준으로 나뉜다.

- **과거 시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간 표현. 선어말 어미 ‘-았-/-었-’을 쓴다. 먼 과거나 현재와 다른 상황에는 ‘-았했-/-었했-’을, 회상에는 ‘-더-’를 쓴다.

- **현재 시제:**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간 표현. 동사는 선어말 어미 ‘-는-/-니-’으로 나타내고,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는 기본형을 쓴다.

- **미래 시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시간 표현. 선어말 어미 ‘-겠-’을 쓴다. ‘-(으)르겠-’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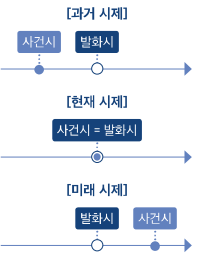
시간 부사어와 선어말 어미	어제 빵을 먹었다./지금 빵을 먹는다./내일 빵을 먹겠다.
----------------	----------------------------------

- **동작상:**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이 지속되고 있는지 완전히 끝났는지를 보여 주는 시간 표현이다.

- **진행상:**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표현으로 ‘고 있다’, ‘아-/어 가다’ 등을 쓴다.
- **완료상:** 동작이 끝났음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아-/어 있다’, ‘아-/어 버리다’ 등을 쓴다.

진행상	재이가 운동장을 뛰고 있다.	완료상	재이가 의자에 앉아 있다.
-----	-----------------	-----	----------------

시제의 종류



시간을 표현하는 관형사형 어미

● 동사와 결합할 때

과거	-(으)ㄴ, -던	읽은 책
현재	-는	읽는 책
미래	-(으)ㄹ	읽을 책

●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와 결합할 때

과거	-던	출던 날
현재	-(으)ㄴ	추운 날
미래	-(으)ㄹ	추울 날

시간 부사어

동작과 상태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이다.

ⓐ 어제, 오늘, 지금, 내일

확인하기

높임 표현

- 1 다음 문장에서 높임의 대상을 찾고, 그 대상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표현을 말해 보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형이 이모를 모시고 갔다. 	할아버지께서 낮잠을 주무신다.
-----------------	--------------------	----------------------

시간 표현

- 2 다음 문장에서 시간 표현이 드러나는 부분을 찾아 적고, 해당 부분이 나타내는 시제와 동작상을 써 보자.

	시간 표현이 드러난 부분	시제와 동작상의 종류
동생이 딸기를 먹고 있다.		
동생이 딸기를 다 먹어 버렸다.		

동작상과 시제

동작상은 시제와 결합하여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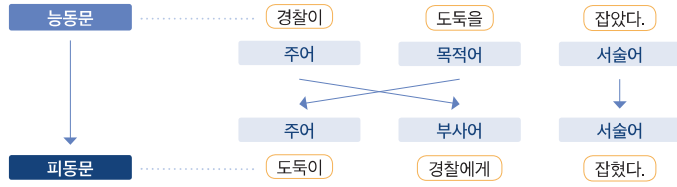
‘고 있다’의 쓰임

“재이가 차에 타고 있다.”라는 문장에서 재이는 차에 이미 탄 것일까, 타고 있는 중일까? 이처럼 ‘고 있다’로 동작상을 표현하면 진행과 완료의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드러날 수 있다. 이러한 중의성을 해소하려면 담화 상황이나 맥락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 **능동과 피동:** 주어가 제임으로 움직이는 것을 능동, 다른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피동이라 한다.
- **피동 표현:**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붙이거나 ‘-아/-어지다’ 등을 붙여 만든다. 행위의 대상을 강조할 때, 행위의 주체를 모르거나 밝힐 필요가 없거나 밝히고 싶지 않을 때, 객관적인 느낌을 주려 할 때 쓴다.

▶ **명사와 접사의 결합**
일부 명사에 접사 ‘-되다, -받다, -당하다’ 등을 붙여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다.
㉠ 시작되다, 사랑받다, 이용당하다

▶ **이중 피동**
‘-아-, -히-, -리-, -기-’와 ‘-어지다’를 함께 쓰거나 ‘-되다’와 ‘-어지다’를 함께 쓰는 것은 좋지 않다.
㉡ 보여지다 → 보이다
생각되어지다 → 생각되다



- **인용 표현:** 타인의 말이나 글을 옮겼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직접 인용:** 타인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옮기는 것으로, 큰따옴표로 인용할 부분을 묶어서 말이나 글을 그대로 옮긴 뒤 조사 ‘라고’를 붙인다. 비교적 생생한 느낌을 준다.
- **간접 인용:** 타인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옮기는 것으로, 인용할 부분을 적절하게 정리한 다음 조사 ‘고’를 붙인다. 직접 인용보다 매끄럽고 간결한 느낌을 준다.

▶ **간접 인용 시 유의할 점**
시간 표현, 높임 표현, 지시어, 종결어미 등을 문장에 맞게 적절히 바꾸어야 한다.

직접 인용 그는 “꽃이 빨갛구나!”라고 했다. **간접 인용** 그는 꽃이 빨갛다고 했다.

- **어휘:** 공통된 특징을 가지는 단어들끼리 묶인 단어의 집합이다.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면 생각이나 느낌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
- **고유어:** 다양한 의성어와 의태어가 있어 감각과 정서를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다 보니 한자어에 비해 포괄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많다.
- **한자어:** 추상적인 개념이나 전문 개념을 표현할 때 흔히 쓰인다. 문어나 격식 있는 상황에서 많이 쓰이며 고유어에 비해 분화된 의미를 가진다.
- **외래어:** 유행을 반영하고 새로운 외국 문화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적이고 세련되었다는 인식이 있어 이를 남용하는 경우도 있다.

고유어 탈 한자어 가면 외래어 마스크

- **사고 도구어:** 여러 분야에 두루 쓰이면서 사고 및 논리 전개 과정을 담당하는 어휘로, 대부분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어이다.
- **전문어:** 전문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 쓰는 어휘로 그 의미가 정확하고 자세하다. 특정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어휘라는 점에서 사고 도구어와 구별된다.

사고 도구어 개념, 고찰, 효율 **전문어** 공판¹(법률), 공시 지가²(경제)

1 공판
기소된 형사 사건을 법원이 심리하는 일. 또는 그런 절차.

2 공시 지가
국토 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확인하기

능동과 피동

1 다음 문장을 조건에 맞게 바꾸어 보자.

문장	조건	바꾼 문장
유나가 벌에 쓰였다.	능동문으로 교체	
재이가 불을 켰다.	‘-어지다’ 이용한 피동문	
고양이가 벽지를 뜯었다.	피동 접미사 이용한 피동문	

인용 표현

2 다음 문장에서 인용 표현을 찾고, 해당 표현이 어떤 종류의 인용인지 말해 보자.

연우가 집에 가지고 말했다.	연우는 “열심히 공부하겠어.”라고 말했다.
-----------------	-------------------------

어휘

3 다음 담화 상황에서는 어떤 종류의 어휘를 주로 활용하게 될지 말해 보자.

친구에게 수목원에서 본 여러 빛깔의 꽃을 묘사할 때

일일 체험 수업으로 프랑스 빵을 만들 때

교내 발표 대회에서 사회자를 맡아 진행할 때

어휘

4 다음 서술이 맞으면 ○ 표시, 틀리면 × 표시를 해 보자.

- 사고 도구어는 주로 고유어이다. ()
- 대부분의 전문어는 추상적인 의미를 지닌다. ()
- 전문어에 비해 사고 도구어는 폭넓게 쓰인다. ()

활동 2. 문법 요소와 어휘의 실제

1 다음 편지에서 문법 요소별로 잘못된 표현을 찾고, 이를 올바르게 고쳐 보자.

별하에게

그동안 잘 지냈니? 네가 멀리 이사를 간 뒤 한 번도 못 봐서 아쉬워. 그래서 말인데, 한 달 뒤에 우리 동아리에서 전시회를 열 예정이거든. 이번에는 내가 그린 그림도 전시되어질 거야. 네가 꼭 왔으면 하는데, 그날 시간 괜찮았지? 전에 네가 "언젠가 준서 네 그림도 꼭 전시될 거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나서 편지를 썼어. 너만 괜찮다면 내가 너희 할머니에게도 말씀을 드릴게. 그림 생각해 보고 답장 줘. 잘 지내!

— 준서가

잘못된 표현	고친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동: · 시제: · 인용: · 높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동: · 시제: · 인용: · 높임:

2 다음 그림을 보고 문법 요소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자.

상황에 맞는 높임 표현

참여자 간의 관계, 장면의 격식성 등 상황 맥락에 따라 높임 표현을 달리 하여 적절한 표현을 생성할 수 있다.



2 다음은 동일한 사건을 두 가지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다. 두 문장에서 느껴지는 의미 차이를 말해 보자.



3 다음 기사를 읽고 문법 요소와 어휘의 쓰임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에서는 소량만 생산되던 아열대 과일이 가까운 미래에는 매우 흔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후 변화** 로 한반도 전역의 기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기존에 많이 생산되었던 사과 등은 점차 그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 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사과 재배에 적합한 기온은 연평균 기온 섭씨 7.5도에서 섭씨 11.5도인데, 2100년쯤이면 태백산맥을 제외하고는 한반도에서 섭씨 11.5도를 밑도는 곳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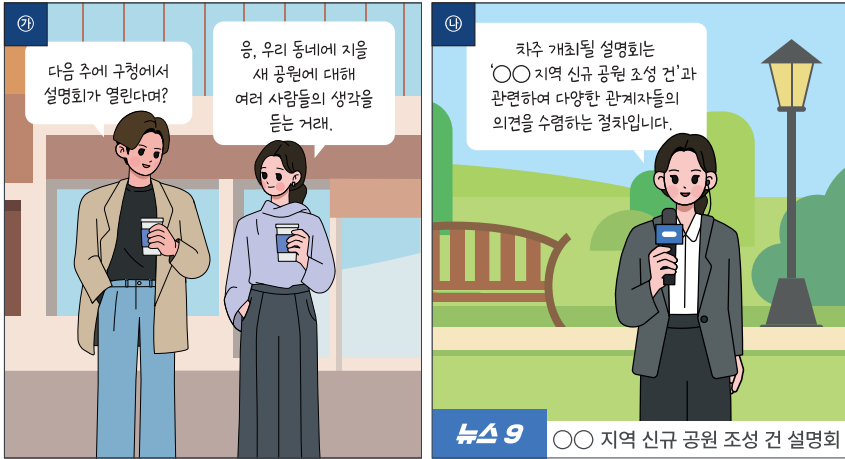
- 이 기사에 나타난 피동 표현에 모두 밑줄을 치고, 그 효과를 말해 보자.
- 이 기사에 나타난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고,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말해 보자.
- [보기]를 읽고 동일한 현상을 '기후 변화'라고 하는 사람과 '기후 위기'라고 하는 사람의 태도나 입장이 어떻게 다를지 친구와 이야기해 보자.

[보기]

영국의 한 일간지는 앞으로 '기후 변화'라는 표현 대신 '기후 위기'를 사용하겠다고 했다. 기존 표현이 심각성을 전달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그 위험성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는 취지이다.

4 다음 그림을 보며 어종에 따른 표현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자.

① ㉔와 ㉕에 주로 사용된 어종이 무엇인지 쓰고, 각각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말해 보자.



② ㉔와 ㉕에 주로 사용된 어종이 무엇인지 쓰고, ㉔에 비해 ㉕은 어떤 느낌을 주는지 말해 보자.



5 다음 글을 읽고 사고 도구어와 전문어에 대해 알아보자.

사고 도구어에 한자어가 많은 까닭은 한자어가 고유어에 비해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유어 '나누다'의 의미를 지니는 한자어는 '[㉔]'로 다양하며, 이들은 서로 유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글이나 담화의 맥락에 따라 적절한 어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고 도구어의 정교한 의미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어 역시 개념을 명확하게 가리켜야 하므로 한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드물다. 여러 분야에 두루 쓰이는 사고 도구어와는 달리 특정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은 해당 분야의 전문어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악가와 의사가 대화할 때 음악가가 '크레센도(점점 세게)'라는 단어를 쓴다면 의사가 음악에 관심이 있지 않는 한 이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점점 세게'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대화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㉔ 특정 분야를 잘 아는 사람끼리는 전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전문어를 잘 모르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① ㉔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을 사전에서 찾아보고, 각각의 의미를 써 보자.

단어	의미
분류하다	종류에 따라서 가른다.

② ①에서 정리한 단어들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각각의 예문을 만들어 보자.

- 분류하다: 우편물을 지역별로 분류하다.
- _____
- _____
- _____

③ 전문어의 특징 및 표현 효과를 떠올리며 ㉔의 까닭이 무엇인지 친구와 이야기해 보자.

6 다양한 문법 요소와 어휘를 사용하여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소개하는 글을 쓴 다음, 우리말의 문법 요소와 어휘를 적절하게 활용하였는지 점검해 보자.

나는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시는 떡볶이를 제일 좋아해. 평범해 보이지만 무척 맛있거든. 예전에 아버지께 레시피를 여쭙았더니 "사랑과 정성만 있으면 돼."라고 대답하셨어. 기회가 되면 너희에게도 꼭 만들어 줄게. 너희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궁금해.



Blank writing area for the student's response.

6 활동지



1	높임의 대상, 장면의 격식성 등을 고려해 높임 표현을 사용하였다.	상	중	하
2	시간 표현을 적절히 사용해 목적이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상	중	하
3	피동 표현의 효과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사용하였다.	상	중	하
4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차이를 알고 조사를 적절하게 사용하였다.	상	중	하
5	어휘별 특징과 쓰임을 알고 문맥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였다.	상	중	하

소단원 마무리



해당하는 표정에 표시하여 나의 이해도를 점검해 보자.

1 문법 요소와 표현 효과



높임 표현	상대 높임	대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을/를 높이거나 낮추어 대우하는 방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높임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	
	객체 높임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대상인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	
시간 표현	시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시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간 표현
		현재 시제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간 표현
		미래 시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시간 표현
동작상	동작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상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시간 표현
		완료상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드러내는 시간 표현
능동과 피동	능동	주어가 제힘으로 움직이는 것	
	피동	주어가 다른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	
표현	표현	직접 인용	타인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옮기는 것
		간접 인용	타인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옮기는 것

문법 요소의 표현 효과: 글이나 담화 맥락에 맞게 문법 요소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언어 주체의 태도나 인식, 의도 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

2 어휘와 표현 효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모양이나 소리 등을 나타내는 표현이 다양해서 감각과 정서를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음.
한자어	고유어에 비해 분화된 의미를 가지며 추상적인 개념이나 전문 분야의 개념을 표현할 수 있음.
외래어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로 새로운 외국 문화를 표현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여러 분야에 두루 쓰이면서 사고 및 논리 전개 과정을 담당하는 어휘로, 대부분 한자어임.
전문어	특정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 사용하는 어휘로 전문적인 내용을 표현함.



「대화 예절과 책임감 있는 국어생활」에서는 대화의 원리를 익히고 언어 공동체의 다변화에 따른 언어 실천 양상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언어 공동체에서 원활하고 책임감 있게 소통해 보자.

소단원 학습 목표

- 대화의 원리를 고려하여 대화하고 자신의 듣기·말하기 과정과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성찰한다.
- 언어 공동체가 다변화에 따라 다양해진 언어 실천 양상을 분석하고 언어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며 국어생활을 한다.

(3) 대화 예절과 책임감 있는 국어생활

■ 활동 1. 대화 예절과 책임감 있는 국어생활의 이해

● 대화의 원리

- **협력의 원리:** 대화 참여자는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화자는 의사소통의 흐름에 맞게 말해야 하고, 청자는 목적이나 상황에 맞게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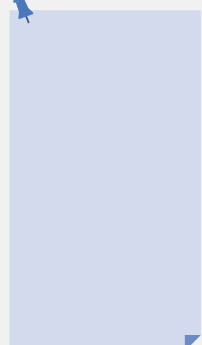
양의 격률	•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 전달하기
질의 격률	• 진실한 정보만을 제공하기 • 증거가 불충분한 것은 말하지 않기
관련성의 격률	• 대화의 주제와 관련 있는 말만 하기
태도의 격률	• 모호하고 중의적인 표현 피하기 • 명료하고 간결하게 말하기

협력의 원리

1 다음 대화들을 분석해 보고, 협력의 원리를 가장 잘 지킨 사람의 기호를 써 보자.

<p>이러다 수업 늦겠어. 얼른 준비하자.</p> <p>아니, 이거 봤어? [㉠]</p>	<p>시험 범위 좀 가르쳐 줄 수 있어?</p> <p>응, 100쪽부터 176쪽까지야. [㉡]</p>
<p>어디 사세요?</p> <p>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5분 정도 가다가 편의점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서……. [㉢]</p>	<p>내일 놀러 갈래?</p> <p>괜찮아. [㉣]</p> <p>???</p>

확인하기



● **공손성의 원리:** 대화할 때 서로 예의 바른 태도를 지켜야 한다.

요령의 격률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기
관용의 격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기
찬동의 격률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은 최소화, 칭찬하는 표현은 최대화하기
겸양의 격률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최소화, 겸손한 표현은 최대화하기
동의를 격률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 중 다른 점은 최소화, 공통점은 최대화하기

● **체면 유지의 원리:** 체면은 사회 구성원이 생각하는 자신의 공적 자아상이다. 소극적 체면은 자신의 행위가 방해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적극적 체면은 바라는 것이 상대에게 수용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대화 참여자들은 상대방의 소극적 체면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적극적 체면을 세워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극적 체면 손상하지 않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표현 쓰기 • 상대에게 부담을 준 것을 사과하기
적극적 체면 세워 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의 능력 인정하기 • 서로의 공통점 강조하기

● **담화 관습과 언어 공동체의 다변화**

● **담화 관습:** 특정한 언어 사용 방식과 태도를 공유하는 집단인 언어 공동체가 오랜 시간 공유해 온 의사소통 규칙이나 질서이다. 담화 관습은 직업이나 세대, 성별, 시대, 사회·문화적 상황과 맥락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변화할 수도 있다. 언어 사용자는 자신이 속한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성찰하고, 의사소통 문화를 개선할 책임이 있다.

과거의 담화 관습이 드러나는 것	속담, 관용구, 옛사람의 글(고전)
현재의 담화 관습이 드러나는 것	통신 언어, 매체 자료, 현대인의 글

● **언어 공동체의 다변화:** 사회 구성원이 다양해지면 언어 공동체도 다변화한다. 다변화한 언어 공동체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언어 실천 양상을 보여 준다. 이로 인해 우리말이 더 풍부해지기도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아진다.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언어 실천의 문제, 남북한 언어 실천의 이질화 문제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언어 사용자인 우리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차별을 예상하고 이에 대응하며, 언어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언어 실천에 참여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확인하기

공손성의 원리

1 다음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을 공손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설명해 보자.

유나	도윤아, 다음 추가 결선이니까 보컬인 네가 제일 잘해야 해.
도윤	유나 네가 드럼으로 박자를 잘 잡아 줘야 내가 잘하지.
연우	실력을 갖춘 사람은 기타 연주자인 나뿐인 것 같아. 너희 모두 분발해야 해.
준서	정말, 너희들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 입시응용 시간에 연습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체면 유지의 원리

2 주어진 상황을 고려하여 체면 유지의 원리를 적용한 말을 해 보자.

모동별 발표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각자 맡은 일을 마무리하느라 바쁜 모동원들에게 내가 맡은 부분에 추가한 내용을 확인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지금 나는 팔을 다쳐 다른 모동원들보다 진도가 살짝 느리다.

담화 관습

3 다음 담화의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우리의 담화 관습을 말해 보자.

Ⓣ: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 한 경기에 세 골이나 넣다니 대단해요!
Ⓣ: 무슨 말씀요. 감사하 잘 먹겠습니다!	Ⓣ: 모든 선수가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준 덕분입니다. 저는 발만 갖다 댔을 뿐입니다.

언어 공동체의 다변화

4 다음 상황에서 각 대화 참여자가 똑같은 말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까닭을 우리 사회의 변화와 관련지어 이야기해 보자.



활동 2. 대화 예절과 책임감 있는 국어생활의 실제

1 다음 대화에서 각 참여자가 대화의 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그 까닭과 함께 말해 보자.

▶ 앞부분의 줄거리

'돌담 병원'의 의사 강동주는 외상 센터 운영에 대한 자신만의 원칙을 강하게 고수하다가 또 다른 의사 차은재와 충돌한다. 이 과정에서 강동주의 운영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던 간호사들마저 차은재와 함께 업무를 거부한다. 이에 이들의 스승인 김사부는 차은재를 야기는 마음을 담아 충고를 건넨다.

- 김 사부** 응, 이거 네가 수술한 환자구나.
- 차은재** ……네.
- 김 사부** 경과가 괜찮네. 쉽지 않은 수술이었을 텐데. 응급실 신생아도 네가 발견했다고?
- 차은재** ……네.
- 김 사부** 그래, 잘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돌담 병원 쪽 환자들한테는 신경 안 써도 돼. 이제 이쪽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보이콧이다 뭐다 너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거 하느라고 괜히 진 빼고 웅쓰지 말고, 이제 그만 네 자리로 돌아가라는 뜻이야. 알았어?
- 차은재** 섭섭합니다, 사부님.
- 김 사부** 응?
- 차은재** 사부님도 결국에는 강동주 선생님 편이셨네요. 어떻게 제 얘기는 한마디도 안 들어 보시고 무조건 가라고만 하세요?
- 김 사부** 은재야. 네 눈에는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니? 뭐, 어느 한 놈만 예뻐하고 그놈 편만 들면서 너희 사이 갈라지게 하는 그런 종류 같아?
- 차은재** 그야…….
- 김 사부** 어휴, 내가 이거 잘못된 거네.
- 차은재** 네?
- 김 사부** 내 진심과 상관없이 네가 날 그렇게 봤다면 내가 뭐, 잘못된 거지. 잘못 가르친 거고.
- 차은재** 아니요, 사부님. 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 김 사부** 그런데 은재야. 아무리 정당한 이유라고 해도 그걸 이루는 과정이 옳지 않으면 그거 옳지 않은 거야. 더구나 그 보이콧으로 너하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오랫동안 상처받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네가 잘 알면서 그런데도 굳이 그런 방식을 네가 꼭 택했어야 했을까?

— 에스비에스(SBS), 「낭만닥터 김사부 3」

나는 차은재가 협력의 원리를 잘 지켰다고 생각해. 모호하고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고 간결하게 말했기 때문이야.



2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친구와 대화해 보고, 그 내용을 대화의 원리에 기반하여 평가해 보자.

- ㉠ 담임 선생님께서 배식 순서 변경을 건의하는 상황
발표 대화의 주제를 바꾸자는 같은 모둠 선배의 제안을 거절하는 상황

1	대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였다.	상 (중) 하
2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의 바른 태도로 대화하였다.	상 (중) 하
3	상대방의 소극적 체면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적극적 체면을 세워 주려고 노력하였다.	상 (중) 하

3 다음 글을 읽고 우리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비교하며 성찰해 보자.

㉡ 옛사람이 말하기를 “군자는 말을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다.”라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옛날 사람들은 말을 적게 하였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말하였다. 이 때문에 말이 적었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나는 이 말을 외운 지가 오래되었다. 그런데도 늘 이에 대해서 부끄러운 점이 있다. 이에 드디어 이 설을 써서 스스로 유념하려고 한다.
— 윤휴, 「말에 대한 설」

㉢ “축구 선수 ○○○ ‘사이다!’ 발언 화제 …누리꾼 열광”
— ◇◇ 신문

“가수 △△, 거침없는 입담으로 최고 시청률 기록”
— □□ 일보

1 사이다
답답한 상황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사람이나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1 ㉡와 ㉢에 담겨 있는 담화 관습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말해 보자.
- 2 오늘날의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담화 관습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해 보자.



4 다음을 참고하여 언어 공동체의 다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예상해 보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자. 🍀



5 다양한 언어 공동체를 배려하지 않은 표현을 주변에서 찾아 바꾸어 보자.

'공정 언어'는 특정 대상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 고정 관념 등을 담고 있는 언어에 대한 대안어이다. 언어 자체에는 특정 관점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투영되면서 알게 모르게 차별적 표현이 된 단어들이 많다. 이 때문에 기존 언어를 공정 언어로 바꾸자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사회 구성원이 다원화되며 '살색'이 인종 차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살구색'으로 바꿔 부르게 된 것이 그 예이다.

원래 표현	바꾼 표현
•	•
•	•
•	•

소단원 마무리



해당하는 표정에 표시하여 나의 이해도를 점검해 보자.

1 대화의 원리



□□□의 원리	□□□의 원리	체면 유지의 원리
<p>대화 참여자는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양의 격률, 질의 격률, 관련성의 격률, 태도의 격률이 있음.</p>	<p>대화할 때 예의 바른 태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요령의 격률, 관용의 격률, 찬동의 격률, 겸양의 격률, 동의를 격률이 있음.</p>	<p>대화 참여자들은 상대방의 소극적 체면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적극적 체면을 세워 주도록 노력해야 함.</p>

2 언어 공동체의 다변화에 따른 담화 관습과 태도



언어 공동체가 □□□ 하면서 언어 실천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음.

언어 공동체가 오랜 시간 공유해 온 의사소통 규칙이나 질서인 □□□□□에 갈등이나 차별적인 요소가 없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언어 주체로서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함.

창의·융합 활동

특종! 우리말 달인 찾기



주변에 우리말 좀 한다, 하는 사람 있어? 아니면 우리말을 다양하게 쓰네, 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래도 괜찮아. 다음 활동들을 따라가다 보면 누군가 한 명쯤 인터뷰해 보고 싶은 사람이 그려질 테니까. 친구, 가족, 이웃, 유명인 누구든 좋아. 오늘도 알게 모르게 우리말을 풍성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자.

- 1 취재 주제와 대상 선정하기
- 2 취재 질문 만들기
- 3 취재 대상 인터뷰하기
- 4 인터뷰 바탕으로 기사문 쓰기

1 우리말과 관련한 취재를 목표로 하여 그 주제와 대상을 정해 보자.

예시 주제

- 우리말의 올바른 발음과 표기
- 적재적소에 쓰이는 문법 요소
- 다양한 어휘
- 대화의 원리를 고려한 대화
- 담화 관습 성찰
- 다양한 언어 공동체

우리가 선택한 주제

- 또박또박 발음왕
- 천하무적 표기 고수
- 높임 표현의 달인
- 걸어 다니는 국어사전
- 비단길 같은 대화 장인
- 담화 관습을 성찰하고 발전 방향을 알려 주는 선구자

예시 대상

우리가 선택한 대상

2 선정된 대상을 인터뷰하기 위한 질문을 만들어 보자.



3 취재 대상을 인터뷰해 보자.

인터뷰 시 유의할 점

- 인터뷰 대상에게 미리 질문지를 보낸다.
- 녹음이나 녹화는 반드시 먼저 양해를 구한다.
- 적절한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대화의 원리를 지킨다.



4 인터뷰 내용을 반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사문을 써 보자.



깊고 넓게 읽기

당연하지 않은 부모

이슬아



? 필자가 생각하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연대는 무엇일까?

「당연하지 않은 부모」는

필자가 동료를 통해 말의 무게를 느낀 경험을 이야기하며 누군가가 받을 수 있는 상처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견해를 담은 글이다. 나 역시 말의 무게를 느껴 본 경험이 있는지, 그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생각하며 글을 읽어 보자.

프랑스의 가족 관계 문서는 '부/모' 말고 '보호자 1, 보호자 2'를 적게끔 한다. 부모가 모두의 기본 값은 아니라는 점을 존중하는 문서 형식이다. 현재의 상상력으로는 '부모' 대신 '보호자' 혹은 '어른'이라는 말을 일상어로 쓰는 것이 최선처럼 느껴진다. 미래에는 더 적절한 말을 발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모와 함께 다시 돌아보게 된 단어는 '고아다. '외로울(孤)와 '아이 아(兒)로 이루어져 있다. 나에게 이것을 알려 준 사람은 보호 종료 당사자인 신선 씨다. 보호 종료란 원가족 없이 자란 보호 대상 아동에게 만 18세에 자립을 강요하는 아동 보호 제도를 말한다. 아동 양육 시설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낸 신선 씨는 고아라는 말에 자주 움츠러들곤 했다. 치열하게 자립한 뒤 현재는 보육원 출신 아이들을 위한 캠페이너로 활동하는 중이다. "부모가 없다고 해서 꼭 외로운 것도 아니고, 반대로 부모가 있다고 해서 꼭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닌데, 고아라는 말에

는 편견 어린 동정이 이미 내포되어 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은유 작가의 「다가오는 말들」 중 한 문단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든 신체적 온전함과 존엄성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후원금을 척척 내는 어른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부모님 뭐 하시냐' 다짜고짜 묻지 않는 어른이 많아져야 하고 이력서에 가족 관계를 쓰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생겨야 한다. 이 세상에 '불쌍한 아이'는 없다. 부모 없이 자란 자식이라는 굴레를 씌우고 불쌍한 아이를 만들어 내는 집요한 어른들이 있고, 정상 가족이라는 틀로 자율적 존재를 가두거나 배제하는 닫힌 사회가 있을 뿐이다.

보호 대상 아동의 목소리는 복지의 시각지대에 있다. 신선 씨와 친구들은 보육원 출신으로서 자립하며 겪었던

어려움을 후배들이 똑같이 겪지 않도록 온라인 카페 등을 운영하며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주거 지원, 장학 지원 사업 등 유용하고 친절한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고유하고도 평범한 자기 삶의 이야기를 나눈다.

나는 그게 바로 연대임을 안다. 연대란 고통을 겪은 어떤 이가 더 이상 누구도 그 고통을 겪지 않도록 움직이는 것이다. '부디 너는 나보다 덜 힘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내가 알게 된 것들을 최대한 다 알려 줄게라고 말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아닌 이들이 할 수 있는 연대도 있다. 부모가 기본 값인 질문을 건네지 않는 것, 고아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이미지를 고정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 또한 그중 하나일 것이다.

— 「날씨와 얼굴」

대단원 마무리

배운 어휘 확인하기

다음 낱말 놀이를 하며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자.

방법

- 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단어의 글자들을 말 상자에서 찾아 지운다.
- ② 남은 글자들을 조합해 뜻이 통하는 말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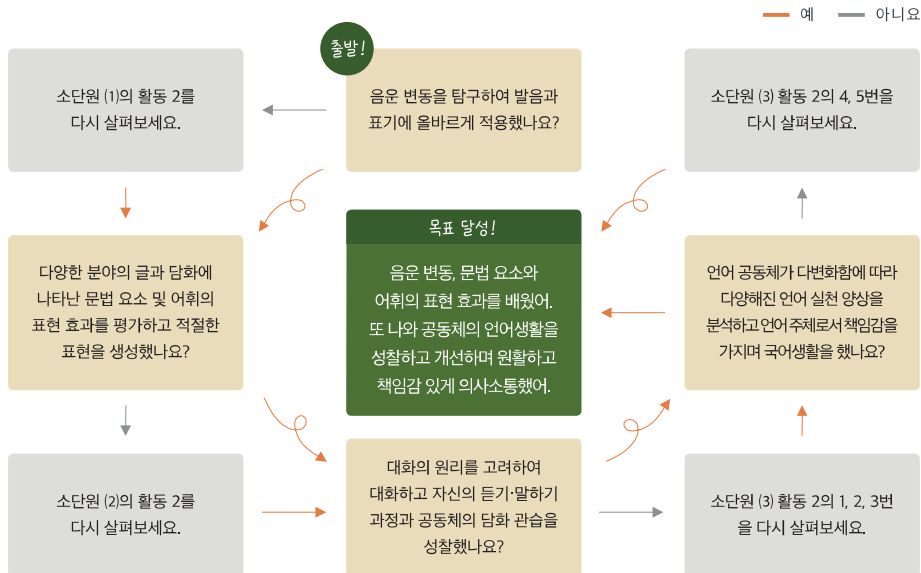


- ㉠ 어떤 음운이 환경에 따라 달리 실현되는 현상을 ■ ■ ■ ■ ■ (이)라 한다.
- ㉡ 반모음화는 ■ ■ 의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 ㉢ 동작과 상태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는 ■ ■ 부사어이다.
- ㉣ '있다'의 높임 표현인 '■ ■ ■ ■'은/는 주체 높임에 사용되는 특수한 어휘이다.
- ㉤ '■ ■ ■'은/는 직접 인용에 쓰이는 조사이다.
- ㉥ ■ ■ ■ ■ 은/는 모양이나 소리 등을 나타내는 표현이 다양해서 감각이나 정서를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
- ㉦ ■ ■ ■ ■ ■ 의 원리는 대화 참여자들이 상대방의 소극적 체면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적극적 체면을 세워 줘야 한다는 것이다.
- ㉧ 언어 공동체가 ■ ■ 화법에 따라 담화 관습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성찰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남은 글자를 조합한 말은?

스스로 점검하기

다음 순서도의 질문에 답하며 나의 학습 정도를 점검해 보자.



이 단원을 마치며

우리는 앞으로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며, 문법 요소와 어휘를 적재적소에 쓸 수 있을 거야. 또 상대방을 배려하며 듣고 말하면서 책임감을 갖고 국어생활을 하는 언어 주체로 성장해 나갈 거야.

- ★ 이 단원을 모험한 소감이 어때? _____
- ★ 앞으로 무엇을 더 공부해 볼까? _____

3 세상과 만나는 말과 글

읽기 | 매체 |
듣기·말하기

(1) 인간과 동물의 공존 고봉준 / 조유정

(2) 교실에 시시 티브이(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세상에는 수많은 얼굴과 얼굴이 있다. 전자가 나의
얼굴을 지칭한다면 후자는 나를 제외한 세상 모든
얼굴일 것이다. 앞의 얼굴도 중요하지만 뒤의 얼굴로
향하는 시선을 확장해 나가는 작업이 지금 내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회복의 방향이다.
잘 산다는 건 뭘까. 설불리 대답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얼굴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한 내 삶이
좀 더 의미 있어질 거라고 믿는다.

- 안희연, 「버려」에서



대단원 길잡이

🔍 무엇을 배울까

(1) 인간과 동물의 공존



-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자신의 관점으로 논증 재구성하기
- 사회적 의제를 다룬 매체 자료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2) 교실에 시시티브이(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 논제의 필수 쟁점별로 논증 구성하기
- 논증의 타당성 평가하며 토론하기

창의·융합 활동

- 출동! 문제 해결사 마니토 되기

깊고 넓게 읽기

- 조병영의 「가짜를 판별하는 능력 기르기」 읽기
- 다양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힘은 무엇일지 생각하기

? 왜 배울까

능동적으로 삶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일상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경험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입장이 충돌하기도 하지요. 이때 빛을 발하는 것은 어떤 입장이 타당한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자신의 관점으로 논증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체로 사회적 의제를 접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때에는 맥락을 고려하여 비판적으로 매체 자료를 분석하고 주체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입장이 다르다고 충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론을 하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동체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탐색할 수 있어요. 이러한 능력을 기른다면 삶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의견을 타당하게 표현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단원을 배우면

- 다양한 기호나 매체로 표현된 글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며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을 기를 수 있다.
- 주체적으로 매체 자료를 수용하여 사회적 의미 구성 과정에 참여하며 디지털·미디어 역량을 기를 수 있다.
- 듣기·말하기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며 의사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다.

대단원 학습 목표

- 다양한 글이나 자료를 읽으며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논증을 재구성한다.
- 사회적 의제를 다룬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 논제의 필수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고 논증이 타당한지 평가하며 토론한다.

📁 생각 열기

다음 그림을 보고 나만의 관점을 가져야 하는 까닭을 이야기해 보자.





「인간과 동물의 공존」에서는 우리 사회가 동물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을 담은 글과 기사문, 텔레비전 예능을 살펴본다. 인간이 동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글과 매체 자료를 읽어 보자.

- 소단원** | • 다양한 글이나 자료를 읽으며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논증을 재구성한다.
- 학습 목표** | • 사회적 의제를 다룬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1) 인간과 동물의 공존

■ 논증하는 글 읽기

인간은 동물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고희준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600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관련 산업의 규모가 연 3조 원에 육박하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이다. 오랫동안 저성장¹⁾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전통적 산업과 달리 ‘반려동물 산업’은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반려동물로 길러지는 개와 고양이의 수는 900만 마리

10 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기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 수준은 ‘반려동물 산업’, 즉 동물을 물건 내지 상품으로 간주하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평균 330마리의 반려동물이 매일 버려진다고 하니, 이는 편리하게 구매했다가 필요 없어지면 버려도 된다는 생각이 만든 숫자일 것이다.

이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결정짓는 기본적 조건은 ‘소유’

15 관계이다. 우리에게 동물은 ‘생명’ 이전에 ‘소유물’로 간주된다. 이러한 인식의 출발점은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이윤 동기’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을 뜻하고, 여기에서 ‘자본’이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투자되는 일체²⁾의 것을 가리킨다.

‘소유한다는 것’은 ‘대상’을 나의 물건으로 만든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대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소유’가 ‘모든 것을 죽은 것,

20 다른 사람의 권력에 복종하는 것으로 변형시킨다.’라고 말했다. 소유 관계에서 소유의 주체와 대상, 그러니까 ‘나’와 ‘내가 가진 것’의 관계는 살아 있는 관계가 아니다. 이것을 소유 관계는 죽은 대상, 즉 ‘물건’에만 한정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살아 있는 대상도 ‘소유’ 방식의 관계를 맺으면 죽은 것, 즉 ‘물건’이 된다는 의미로

- ▶ 논증
-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
 -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 간의 관계

1 저성장
규모가 커 가는 정도가 낮음.

2 일체
모든 것.

이 글에서는 ‘소유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설명하고 있을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대상’이 무생물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그것이 생명체일 경우에는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생명을 지닌 존재를 물건처럼 취급하거나 심지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동물’을 마주하는 공간들, 마트나 펫숍의 진열장, 동물원, 대형 수족관과 서커스장 등은 모두 ‘화폐’와 ‘이익’에 의해 관계가 형성되는 장소이고, 이 조건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식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길러 사고파는 일을 규제하려는 흐름이 생겼다. 가령 미국 및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돈을 주고 반려동물을 거래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개인 간의 소규모 거래를 제외하고 번식장에서 태어난 강아지를 거래할 경우 마리당 500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영국에서는 2018년 10월부터 펫숍에서 6개월 이하의 개, 고양이 판매를 금지했다. 이러한 일들은 어린 동물의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산업화’를 막으려는 노력의 일환¹으로 보인다.

자본주의가 동물과 생명을 ‘물건’처럼 인식하는 태도를 양산하므로² 동물을 사고파는 일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이런 반론이 나온다. 자본주의 이전에도 동물을 사고팔았고 그때에도 동물과 생명을 ‘물건’처럼 취급했으니, 오늘날 반려동물에 대한 모든 문제를 자본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³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려동물을 대하는 현대인의 부정적 인식 모두가 자본주의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저 반론이 간과하고⁴ 있는 사실이 있다. 아주 오래전에도 인류는 동물을 사고팔았지만 그것은 상업적 이윤이 아닌 실용적·현실적인 목적을 지닌 거래였으며, 거래의 규모 역시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제한적이었다는 점이다.

동물에 대한 현대인의 태도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조건은 ‘공장식 축산’과 ‘도축의 산업화’, 즉 ‘육류 산업’이다. ‘소유’가 생명체인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둔갑시킨다면, ‘육류 산업’은 생명체인 동물을 잠재적인 ‘식량’으로만, 오직 ‘음식’으로만 인식하는 태도를 낳는다. 동물 학대를 처벌하는 법에서 ‘식량 동물’이 제외되는 것이 전형적인 경우이다. 어떤 동물이 동물 학대 금지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그 동물이 ‘동물’이기 이전에 ‘식량’이라는 의미이다.

2008년 미국의 영화감독 로버트 케너가 만든 기록 영화 「푸드 주식회사」는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 준다. 이 영화는 현대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들, 특히 우리가 소비하는 육류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앞에 오게

되었는가를 매우 사실적으로 보여 준다. 이 영화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다국적 기업’의 실체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오늘날 우리가 소비하는 육류는 기업에 의해 생산된 상품이다. 반려동물인 강아지의 상당수가 ‘강아지 공장’에서 만들어진 ‘공산품’이듯이, 식품으로서의 육류 역시 기업에 의해 생산된 사실상의 ‘공산품’이다. 오래전에 인류가 사냥 등을 통해 자연에서 획득한 것과는 다르다는 뜻이다.

육식의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자주 등장하는 반론은 자본주의 이전에도 인류는 동물을 먹었으며, 인간 또한 동물이기에 ‘영양’ 섭취를 위해서 동물을 먹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육식이 그토록 시급한 문제냐고 지적하기도 한다.

세상에는 종교 등을 이유로 채식주의 문화를 채택하고 있는 곳도 있고,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엄격한 채식주의를 실천한 사람들이 많다. 또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 등 일부 선진국에 국한된 이야기겠지만, 오히려 현대인은 비만·당뇨·콜레스테롤 혈중·성인병 등의 각종 현대적 질환 때문에 육식을 줄이거나 채식을 하라는 전문가들의 권고를 받고 있다. 또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다수의 학자들은 지금과 같은 ‘육류 산업’이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기아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의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인류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와 동물에 관한 문제가 별개의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에서 ‘동물’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자본주의 탓은 아니다. 유기견이나 길고양이 학대는 ‘돈’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현상의 대부분은 동물이 인간보다 지위가 낮은 존재이므로 ‘주체’인 인간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발생한다.

인간이 동물보다 고귀하다는 사고방식,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고 동물은 인간의 소유물이나 수단이고 도구라는 생각은 오래전에도 있었다. 철학자들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인간 중심주의 또는 종 차별주의라고 부른다. 인간 중심주의란 서구의 근대적 자연관에 근거하여 인간 이외의 존재들을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고, 종 차별주의는 자신이 속한 종의 구성원들에게는 하지 않을 행동을 다른 종에게는 저지르는 ‘차별’의 논리를 의미한다.

인류는 언제부터 인간과 동물 사이에 위계⁶를 설정했을까? 데카르트 이후의 근대 철학자들은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달랐지만 ‘동물’이 인간보다 낮은 존재라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이러한 철학적 사고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우리가 일상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인식하게 하는 공간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1 일반 서로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 것 가운데 한 부분.

2 양산하다 많이 만들어 내다.

3 일반화 개별적인 것이나 특수한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됨. 또는 그렇게 만들.

4 간과하다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기다.

육류 산업은 동물을 어떻게 인식하도록 할까?

5 다국적 기업 여러 나라에 계열 회사를 거느리고 세계적 규모로 생산·판매하는 대기업.

동물은 학대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은 무엇일까?

6 위계 지위나 계층 따위의 등급.



인간을 기준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인간 아닌 생명체들 간의 차이, 가령 개와 고양이의 차이, 늑대와 너구리의 차이 등을 간단히 무시한다.

현대 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자본주의적 소유 관념, 동물을 식량으로만 간주하는 도구적 인식,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와 종 차별주의가 종합되어 형성된 것이다. 이 때문에 '동물'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는 단순한 논리나 법 제정만으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데, 이는 법으로 특정한 행동을 금지할 수 있어도 생각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동물 복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활동과는 별개로 '동물권'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동물권에 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사람은 윤리학자 피터 싱어이다. 그는 동물과 인간이 동일하게 '권리'를 갖는 이유는 그들이 모두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이 '이성'이나 '언어'의 유무를 기준으로 동물과 인간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터 싱어는 감성적 능력에 해당하는 '고통'을 기준으로 동물과 인간이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최근의 동물권 주장자들은 믿음·지각·기억·욕구 등을 갖고 있다는 점에 근거해 동물도 인간과 똑같은 삶의 주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동물'에 관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동물'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고 주인이라는 믿음을 내려놓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동물의 바람직한 공존 방식을 모색하는 데 있다. 관계가 바뀌면 태도가 달라진다는 말이 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주변과 맺고 있는 관계, 나아가 사회 구성원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또는 그 사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다. 타인과의 관계를 이해관계²로 간주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듯이, 동물을 소유물이

피터 싱어가 동물과 인간이 동일하게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1 모색하다
일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다.

2 이해관계
서로 이익과 손해가 걸려 있는 관계.



나 도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받아들일 때에야 올바른 의미의 '공존'이 가능해진다.

누군가가 '동물권'이 무엇인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나는 동물이 소유물이나 거래 대상이 아닌 생명으로, 주체로, 나아가 인간의 진정한 반례로 간주되는 사회에서 동물에게 주어지는 권리라고 대답할 것이다.

— 『나는 반려동물과 산다』



필자가 생각하는 동물권의 의미는 무엇일까?

▶ 사회적 의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

▶ 매체 자료 비판적으로 읽기

- 어떤 사회적 가치관을 반영하는지 살핀다.
- 관점이나 의도를 살핀다.
- 현상을 과장하거나 편향적으로 바라보는지 살핀다.
- 의견을 사실처럼 표현하는지 살핀다.
- 독자의 어떤 변화를 촉구하는지 살핀다.
- '나'의 생각을 정리한다.

이 기사문에서 지적하는 펫 숍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1 추세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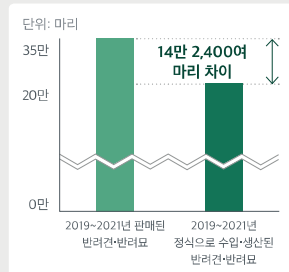
해외에서 상업 목적의 반려동물 판매를 금지하는 대신에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무엇일까?

■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매체 자료 읽기

- 신문 기사 -

해외에서는 사라지는 펫 숍, 국내에서는 불법 유통 조유정

해외 각국에서 반려동물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은 사고파는 물건이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입양하는 문화가 정착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길거리에서는 펫 숍이 성업 중이다. 펫 숍의 이면에는 참혹한 환경에서 강아지들을 임신과 출산을 반복시키거나 불법으로 유통하는 현실이 존재한다.



2022년 9월 국정 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 식품 해양 수산 위원회 소속 ○○ 국회의원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반려견과 반려묘 10마리 중 4마리가 불법 번식으로 유통됐다고 주장했다. ○ 의원이 농림 축산 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행정 구역별 동물 판매업 영업 실적’에 따르면 2019~2021년 3년 동안 판매된 반려견과 반려묘는 35만 3,132마리다. 그러나 정식으로 수입·생산된 반려견과 반려묘는 21만 694마리에 그쳐 약 14만 2,400여 마리 차이가 난다. ○ 의원은 판매를 통해 분양된 반려동물 대부분이 1년 미만임을 감안할 때 최근 3년 동안 판매된 동물의 40.3퍼센트는 불법 번식 유통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해외에서는 펫 숍이 사라지는 추세이다. 캘리포니아주는 2019년 미국 51개 주 중에서 처음으로 펫 숍 판매를 금지했다. 미국 외에도 오스트리아,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캐나다 등 많은 국가에서도 펫 숍을 통한 반려동물 매매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대신 해외에서는 유기견 보호소가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나 유기견 보호소 입양도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다. 최소 몇 주 동안 보호소에 방문해야 하며 금전과 시간 여유가 있는지,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인지 등을 심사받는다. 일부 주에서는 자격 검증 시험을 요구하기도 한다.

— 『쿠키 뉴스』, 2023년 5월 12일 기사

- 텔레비전 예능 -

반려견과 함께 기적을 만든 반려인과의 만남 ▶



[앞부분의 이야기] 학대받던 강아지가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구조되고 입양되었다. 보호자들은 강아지에게 따뜻한 날이 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봄'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봄이 입양된 집에는 펫 숍에서 온 강

아지인 '바람'이도 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온 강아지들과 지내는 보호자들은 동물과 구조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보자고 한다.

봄이 보호자 동물을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것이 과연 입양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개인적으로 항상 들었거든요.

반려견 훈련사 그런데, 보호자님은 입양한 사람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봄이 보호자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친구는 진짜 말 그대로 샀고, 한 친구는 입양했거든요.

반려견 훈련사 ○○○ 교수님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가 왜 이렇게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하하하!

봄이 보호자 하하하! 어느 순간부터 숍에서 사서 데려온 아이들을 온전히 사랑하면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예전에 반려견을 분양하는 숍이 바로 집 앞에 있었어요, 1분 거리에. 2년 동안 바람이를 바라봤는데 아무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사면 잘못됐다는 인식으로. 바람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저는 여기 사는 아이예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체념하듯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반려견 훈련사 아, 구조자!

봄이 보호자 네, 저는 그날 바람이를 구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좁은 공간에서 내가 너를 구조해 줄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반려견에 대한 인식을 용기 내서 갖게 되었고, 학대받았던 봄이도 데려왔어요.

— 티비이엔 스토리(tvN Story), 「고독한 훈련사」

작가와의 대화

고봉준

교수, 문학 평론가

1970~

문학을 공부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문학 평론가로서 다양한 글을 쓰고 있다. 『유령들』, 『비인칭적인 것』 등을 썼다.



예전에 저는 지구가 인간을 위한, 인간이 주인인 행성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세상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인간이 아닌 존재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게 올바른 일인지 고민했어요. 제가 환경이나 동물에 관해 쓴 글들은 이런 고민의 산물이에요. 예전에는 사람과 함께 사는 동물을 '애완'이라고 불렀으나 지금은 '반려'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이것은 단순한 명칭 변화가 아니에요.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달라진 결과이지요. 이 변화는 동물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문제로, 동물의 지위를 규정하는 문제로,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동물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로 확장됩니다.

「인간은 동물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를 읽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질문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답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든 질문으로 「인간은 동물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를 더 다양하게 채워 주세요.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근본적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해야 할까요? 동물도 '생명'이기 때문일까요?

내가 만든 질문

학습 활동

1 '논증하는 글 읽기'와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매체 자료 읽기'의 내용을 파악해 보자.

① 빈칸을 채우며 「인간은 동물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자.

현대 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자본주의적 소유 관념, 동물을 식량으로만 간주하는 도구적 인식, 그리고 _____ 과/와 종 차별주의가 종합되어 형성된 것이다. 동물을 _____ (이)나 _____ 이/가 아니라 동반자로 받아들일 때에야 올바른 의미의 '_____ '이/가 가능해진다.

②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매체 자료 읽기'에서 어떤 사회적 가치관을 다루고 있는지 써 보자.

Blank box for writing social values.

③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매체 자료 읽기'의 관점이나 의도를 써 보자.

Two boxes for writing perspectives and intentions. The first box contains the text 「해외에서는 사라지는~」 and the second box contains 「반려견과 함께~」.



... 논증의 요소

- 주장: 논제에 대한 의견
- 이유: 주장에 이르게 된 원인이나 조건
- 근거: 이유를 뒷받침하는 사실이 자 주장을 지지하는 객관적 자료
- 반론: 반대 의견
- 재반박: 반론에 다시 반대하는 것

2 「인간은 동물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에 담긴 논증을 살펴보고 타당성을 평가해 보자.

1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 및 근거를 찾아보자.

주장: 인간과 동물의 바람직한 공존을 위해, 동물에 대한 인간의 그릇된 인식과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이유	왜냐하면 ① ② 동물을 생명체가 아니라 음식으로 여기는 인식 ③	이러한 잘못된 인식과 태도가 동물과의 바람직한 공존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근거	① ② ③ • 동물이 인간보다 지위가 낮고 인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에서 동물 학대가 발생한다.	

2 필자가 예상한 반론과 그에 대한 반박을 정리해 보자.

예상 반론	재반박
㉠ 오늘날 반려동물에 대한 모든 문제를 자본 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이다.	㉠
㉡	㉡ 종교적 이유로 육식을 제한하거나 의사의 권고로 채식 위주의 생활을 하여 사는 사람도 많다.
㉢ 인류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므로 육식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

3 필자가 자신의 관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활용한 논증 방법과 그 설득 효과를 말해 보자.

... 인과와 권위

- 인과: 원인-결과, 목적-수단 등의 연속적 관계를 바탕으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증 방법
- 권위: 영향력 있는 사람, 권위자의 의견으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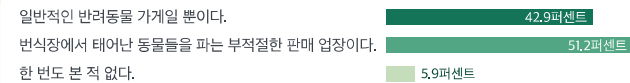
논증 방법	활용한 부분
인과	우리가 '동물'을 마주하는 공간들, 마트나 펫 숍의 진열장, 동물원, 대형 수족관과 서커스장 등은 모두 '화폐'와 '이익'에 의해 관계가 형성되는 장소이고, 이 조건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식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길러 사고파는 일을 규제하려는 흐름이 생겼다.
권위	

4 필자의 논증이 타당한지 평가하고 논증을 재구성해 보자.

이 글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재구성한 논증 • 주장: • 이유: • 근거:
이 글에서 보완하고 싶은 내용	

3 「해외에서는 사라지는~」과 관련된 설문 조사 결과를 비판적으로 읽어 보자.

[설문 1]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진열장에 동물을 넣어 두고 파는 '펫 숍'에 대한 귀하의 전반적인 인식은 다음 중에서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설문 2] 태어난 동물이 경매장을 통해 펫 숍에 공급되며, 팔리지 않은 동물은 다시 번식장으로 보내지거나 식용견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반려동물 대량 생산 및 구매 체계를 동물권 침해라고 생각하십니까?



▲ 출처: 리얼 리서치 코리아(2023)

1 [설문 1]과 [설문 2]의 응답에서 펫 숍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 그러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한 까닭이 무엇인지 설문의 질문을 중심으로 말해 보자.

▶ 매체 자료를 접할 때 필요한 태도

매체 자료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매체 자료를 접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체 자료를 접할 때는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2 「해외에서 사라지는~」을 보완한다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설문을 쓰면 좋을지 말해 보자.

4 「반려견과 함께~」를 비판적으로 읽은 사람들의 댓글을 분석하고 내 생각을 정리해 보자.



@곰돌이

학대받은 강아지를 입양하신 것과 오래 펫 스페에 있던 강아지를 꺼내 주신 것 모두 멋지십니다. 저는 둘 다 구조라고 생각해요. 강아지들은 잘못이 없잖아요.



@햇감자

펫 스페에 있는 강아지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알려졌잖아요. 마음 아파도 불매를 해야 확실히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땅볼바람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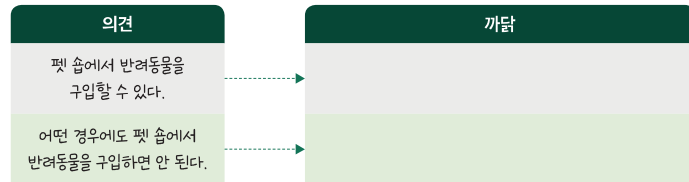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펫 스페 강아지는 상품이예요. 한 상품이 팔려 나갔으니, 또 다른 상품이 그 자리를 채우겠지요.



@꾸리기마음

이미 태어난 생명이니 보호해야지요. 저도 보호자님처럼 모두에게 더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 댓글에서 시청자들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드러낸 까닭을 정리해 보자.



2 1과 [보기]를 참고하여 펫 스페의 반려동물에 대한 나의 의견을 말해 보자.

[보기]



- 텔레비전 예능과 댓글에서 다루는 사회적 의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 문제의 원인에 나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나 구체적인 사례 등은 무엇인가?
- 문제의 해결 방안이나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소단원 마무리



해당하는 표정에 표시하여 나의 이해도를 점검해 보자.

1 '인간과 동물의 공존' 내용 정리



「인간은 동물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동물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믿음을 내려놓고 인간과 동물이 바람직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사라지는 펫 스페, 국내에서는 불법 유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을/를 규제해야 한다.
「반려견과 함께 기억을 만든 반려인과의 만남」	고통의 상황에 놓인 동물을 구해야 한다.

2 논증의 요소



: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 또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 간의 관계

주장	이유	근거
논제에 대한 의견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 요인	주장을 지지하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자료

3 사회적 의제를 다룬 매체 자료 비판적으로 읽기



어떤 사회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을/를 반영하는지 살핀다.	관점이나 의도를 살핀다.	현상을 과장하거나 편향적으로 바라보는지 살핀다.
의견을 사실처럼 표현하는지 살핀다.	독자의 어떤 변화를 촉구하는지 살핀다.	'나의 생각을 정리한다.'



「교실에 시시 티브이(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동명의 정책 논제로 반대 신문식 토론을 하는 과정을 담은 토론문이다. 반대 신문식 토론의 절차와 방법을 파악하며 글을 읽어 보자.

- 소단원**
- 학습 목표**
 - 논제의 필수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한다.
 - 논증이 타당한지 평가하며 토론한다.

(2) 교실에 시시 티브이(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5 사회자 안녕하세요! 최근 학교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교실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 흔히 말하는 시시 티브이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교실에 시시 티브이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반대 신문식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은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양측 토론자는 규칙을 지키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성 측

10 제1 토론자의 입론 들겠습니다.

- 사회자의 역할**
 - 토론 배경과 논제 소개
 - 토론 규칙과 순서 안내
 - 토론자 발언 요약 정리

- 반대 신문식 토론**
 - 논제에 대해 토론자가 상대측 토론자에게 질문하여 상대측의 논지를 반박하는 토론

정책 논제와 필수 쟁점

- 정책 논제: 어떤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다루는 논제
- 쟁점: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토론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장
- 필수 쟁점: 쟁점 중에 반드시 언급해야 할 쟁점

찬성 측	필수 쟁점	반대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과 주요 용어를 정의함. • 문제가 중대하며 심각함. • 문제에 대한 조치가 시급함. 	쟁점 1.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과 주요 용어를 점검함. • 문제가 심각하지 않음. • 조치가 시급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제시한 방법의 실행이 가능함. 	쟁점 2. 해결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이 확실하지 않음. • 제시한 방법의 실행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보다 이익이 큼. • 정책 실행에 드는 비용보다 효과 및 이익이 더 큼. 	쟁점 3. 이익 및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익보다 비용이 큼. • 정책 실행에 따른 이익이나 효과보다 부작용이나 비용이 더 큼.

찬성 측 토론자가 설명한 시시 티브이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1 화상 텔레비전 수상기 등의 화면에 나타나는 선.

2 비단 부장하는 말 앞에서 '다만', '오직'의 뜻으로 쓰이는 말.

첫 번째 입론 논제 관련 개념을 정의하고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가능성, 실행 시의 이익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단계

찬성 1 시시 티브이는 특정 수신자를 대상으로 화상¹을 전송하는 텔레비전 방식을 의미하며 이미 교통, 의료,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여 '보안 카메라'로 불리기도 합니다. 교실은 대부분의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학생들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교실은 누구에게나 안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집단 따돌림과 폭력 사건 등의 문제가 교실 안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주 접하셨을 것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1차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26.6퍼센트가 교실 안에서 학교 폭력 피해를 입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학내는 물론 학교 밖까지 통틀어서 언급된 장소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가해자도 한 교실에서 생활하는 같은 학교 같은 반 학생인 경우가 45.8퍼센트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인 교실 내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실에 시시 티브이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맨체스터에서는 교실 내 시시 티브이가 학교 폭력 해결에 도움을 준다고 판단하여 그 수를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24시간 작동하는 시시 티브이 57개를 설치한 후 학교 폭력이 70퍼센트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교실에 시시 티브이를 설치하면 학교 폭력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7 학교 폭력 신고 센터'의 접수 건수는 4만 건이 넘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례로 ○○ 교육청은 2023년 일부 지역에서 학내 갈등을 중재하는 사업을 시범 운영하면서 예산 19억 6,800여 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이를 ○○ 교육청 전체 지역으로 확대할 경우 2~3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비단² ○○ 교육청뿐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예산을 학내 갈등 조정에 책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입증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교실 내에 시시 티브이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교 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교실에 시시 티브이를 설치해야 한다는 찬성 측 첫 번째 입론을 들어 보았습니까. 반대 측 제2 토론자, 반대 신문 해 주십시오.

반대 신문 상대측 입론의 문제점이나 허점이 드러날 수 있게 질문하는 단계

반대 2 교실에 시시 티브이를 설치해도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찬성 1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2 그렇다면 사각지대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찬성 1 그럴 수 있습니다만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최신형 시시 티브이를 사용한다면 설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대 2 그러한 최신 시시 티브이는 보급률이 낮고, 현재 학교에 있는 시시 티브이를 교체하며 교실까지 최신형 시시 티브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매우 큰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찬성 1 네, 하지만 필요하다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반대 측 제1 토론자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입론 찬성 측 입론에서 정의한 개념과 용어를 점검하고 문제 조치가 시급하지 않고 해결 방안의 효과나 이익이 낮음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단계

반대 1 저희는 교실 내 시시 티브이 설치를 반대합니다. 찬성 측은 시시 티브이가 사회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엄격한 관련 법률이 존재합니다. 또한 찬성 측은 안전을 강조하며 '보안 카메라'라는 말을 제시했지만, 단속의 의미를 담은 '감시 카메라'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시시 티브이에는 긍정적인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이에 덧붙여 찬성 측은 교실에서의 학교 폭력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교실이 학교 폭력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찬성 측에서 근거로 제시한 설문 조사에서 26.6퍼센트의 응답자가 학교 폭력 피해를 입은 장소로 교실을 꼽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통계를 다르게 해석하면 나머지 73.4퍼센트의 응답자는 학교 폭력 피해 장소가 교실이 아니라고 답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교육부 조사와는 달리 학교 밖 폭력이 늘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학교 폭력 양상을 고려하면 교실 내 시시 티브이로 학교 폭력을 해

반대 신문 시 상대측 입론에 대한 판단 기준

- 논증의 타당성: 발언 내용에 이치에 맞는지, 합리적인지, 논리적 비약이 없는지 검증
- 논증의 신뢰성: 상대측이 활용한 자료가 믿을 만한지, 자료의 권위가 인정할 만한 것인지 검증
- 논증의 공정성: 주장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는지, 공동체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검증

시시 티브이에 대한 반대 측 제1 토론자의 설명은 찬성 측과 어떻게 다를까?

결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차 학교 폭력 실태 조사」의 피해 유형별 응답을 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언어폭력이었습니다. 언어폭력은 습관성 욕설과 비속어 등으로 나타나는데, 시시티브이에는 녹음 기능이 없으므로 이를 포착할 수 없습니다. ○○○ 경찰 위원회 상임 위원은 시시티브이로는 충동적인 범죄를 막기가 어려운 데다가 시시티브이가 설치

되지 않은 지역으로 범죄가 전이될¹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충동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시시티브이로 막기 어렵고, 교실이 아닌 다른 장소로 옮겨 갈 가능성을 배제할² 수 없습니다.

계다가 설치에 드는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현재 학교 복도나 출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시시티브이의 화질이 좋지 않아 교체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인데 교실까지 설치한다면 막대한 세금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관련 문제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효성이 높지 않고 큰 비용까지 드는 일을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사회자

교실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하는 것은 학교 폭력 대응책이 될 수 없다는 반대 측 첫 입론을 들었습니다. 찬성 측 제1 토론자 반대 신문 해 주십시오.

반대 신문 상대측 입론의 문제점이나 허점이 드러날 수 있게 질문하는 단계

찬성 1 언어폭력은 시시티브이로 예방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 학교 폭력 유형은 무엇입니까?

반대 1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신체 폭력, 고등학교는 집단 따돌림입니다. 20

찬성 1 학교 폭력은 여러 유형이 중복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반대 1 네, 알고 있습니다.

찬성 1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 폭력과 언어폭력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고, 집단 따돌림과 신체 폭력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폭력은 시시티브이로 잡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25

반대 1 그럴 수 있지만, 교실에 시시티브이가 있다고 학교 폭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근본적이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찬성 측 제2 토론자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1 전이되다
자라나 위치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다.

2 배제하다
받아들이지 않고 제외하다.

찬성 측은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검증 중 어디에 초점을 두고 반대 신문을 하고 있을까?

두 번째 입론 첫 번째 입론을 보강하여 주장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펼치는 단계

찬성 2 교실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하면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결백을 증명하기도 쉽습니다. 녹화 자료가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 여러 명에게 욕설을 들으며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의 신고로 가해 학생들은 학교 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들이 진술을 맞춰 피해 학생을 역으로 신고했고, 피해 학생도 억울하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일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학교 폭력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관성 있는 진술, 병원 진단 기록, 일기 등 사건 당시의 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피해 학생이 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피해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어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보호자들은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녹음기 등의 기계를 개인적으로 구하여 학생들에게 쫓겨 주기도 합니다. 만약 교실에 시시티브이가 설치되어 있다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자 찬성 측에서 교실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하면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 사실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반대 측 제1 토론자 반대 신문 해 주십시오.

반대 신문 상대측 입론의 문제점이나 허점이 드러날 수 있게 질문하는 단계

반대 1 시시티브이 영상 보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찬성 2 표준 개인 정보 보호 지침 제41 조에 따라 영상 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 파괴, 삭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 1 30일은 길지 않은 시간인데, 피해 학생이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시시티브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찬성 2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유아 보육법에서 어린이집 시시티브이의 영상 보존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에 준하는 규칙이 추후 제정된다면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반대 측 제2 토론자 입론이 있겠습니다.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시시티브이 설치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일까?

반대 측은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검증 중 어디에 초점을 두고 반대 신문을 하고 있을까?

두 번째 입론 첫 번째 입론을 보강하여 주장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펼치는 단계

반대 2 교실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해도 학교 폭력 예방에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실시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범죄 예방을 다른 논문에 따르면 시시티브이는 실시간으로 감시, 분석, 대응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2023년 ○○ 지역 초·중·고에는 시시티브이 5만여 대가 있지만 관제¹ 업무는 수행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교실 내 시시티브이는 부작용이 큼니다.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수업에 참여하고 친구들과 대화하고 휴식을 하는 등 다양한 행동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녹화된다면 학생들은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2012년에 국가 인권 위원회는 교실 내 시시티브이가 초상권과 사생활권, 행동 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자 시시티브이를 설치해도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반대 측 제2 입론 들었습니다. 이어서 찬성 측 제2 토론자 반대 신문 해 주십시오.

반대 신문 상대측 입론의 문제점이나 허점이 드러날 수 있게 질문하는 단계

찬성 2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학교 보안관이나 배움터 지킴이처럼 담당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반대 2 인력을 충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입니다.

찬성 2 비용보다는 학교 폭력 해결 가능성을 먼저 고려해야 하지 않습니까?

반대 2 비용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에 비해 해결 방안의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자 지금까지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론과 반대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반론을 들어 보겠습니다. 반대 측 제1 토론자, 반론 시작해 주세요.

현재 학교에 설치된 시시티브이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1 관제 관리하여 통제함.

찬성 측은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검증 중 어디에 초점을 두고 반대 신문을 하고 있을까?

반론 상대측의 입론을 논박하면서 자기편의 주장이 정당함을 증명하는 단계

반대 1 교실 내 시시티브이 설치로는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학내 여러 곳에 설치된 시시티브이를 피해 사각지대에서만 반복적으로 폭력을 입은 학생의 사례가 뒤늦게 보도된 것처럼 최신행 시시티브이에도 사각지대는 있습니다. 과연 몇 대의 시시티브이를 설치해야 사각지대가 없을가요?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을 바탕으로 한 실천 중심의 현실적인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 갈등 조절을 위해 공감 능력과 사회성을 키우고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심리적·정서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2022년 2차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서도 30퍼센트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회자 이어서 찬성 측 제1 토론자의 반론이 있겠습니다.

반론 상대측의 입론을 논박하면서 자기편의 주장이 정당함을 증명하는 단계

찬성 1 저희는 교실 내 시시티브이가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도 개인 정보 보호법에서 허용한 목적 내에서 시시티브이 설치를 인정하고 있고, 「학교 내 영상 정보 처리기 설치 운영의 표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학교 복도 등에 있는 시시티브이 영상을 보기 위해서도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오히려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학생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교실에 시시티브이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반대 측 제2 토론자 반론 시작해 주세요.

반론 상대측의 입론을 논박하면서 자기편의 주장이 정당함을 증명하는 단계

반대 2 찬성 측에서는 법적으로 인권과 사생활 침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교실은 잠시 머무르는 장소와는 다릅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나 정서적 불안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반론 시작 순서
반론은 다른 절차와는 달리 반대 측부터 시작함을 유의해야 한다.

- 반론의 전략**
- 논제와의 관련성 비판
 - 자료의 적절성 비판
 - 자료의 신뢰성 비판
 - 자료의 해석 비판

찬성 측이 반대 측과는 달리 시시티브이 설치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한 까닭은 무엇일까?

반대 측에서 강조하는 시시티브이 설치의 부작용은 무엇일까?

1 여파
어떤 일이 끝난 뒤에 남아 미치는 영향.

2 통합 주택 제어판(윙 패드)
주로 가정의 주방이나 거실 벽면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주택 관리용 단말기. 출입 통제, 조명 및 가전제품 제어, 화재 감지 등의 기능을 갖춘.

지 의문입니다. 저장된 영상이 악용되거나 유출되면 그 여파¹는 매우 클 것일
니다. 가정에 널리 설치된 통합 주택 제어판²이 해킹된 사례처럼 말입니다.

사회자 찬성 측 제2 토론자 반론 시작해 주세요.

반론 상대측의 입론을 논박하면서 자기편의 주장이 정당함을 증명하는 단계

찬성 2 시시 티브이에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말씀하셨지만, 반대의 5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5개국 44개 지역의 시시 티브이 연구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설치 지역의 범죄율이 16퍼센트 줄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함을 지적하셨지만, 최근 학교 시시 티브이를 지자체
통합 관계 센터와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학교 폭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교실 내 10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실에 시시 티브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사회자 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교실에 시시 티브이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논제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양측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측에서 시시 티브이가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반대 측 주장을 논박하
기 위해 활용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전문가와와의 대화

조슈아 박 교수 1978~

국내외 토론 대회에서 활동하며 수백 회 이상 여러 나라에서 토론 연수를
조직·진행·강의한 토론 전문가이다. 현재는 대학에서 협상 및 토론을 가르
치고 있다. 『실전! 대립 토론』 등을 썼다.



저는 미국에서 로스쿨을 다니던 법학도였습니다. 학위를 받고 나면 변호사가 되
려고 했지요. 그런데 토론에 매력을 느껴 교육자로 진로를 바꾸었습니다. 토론으
로 성장하는 학생들을 지켜보면서 토론의 가능성을 확인했거든요.
토론을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토론은 사실 협력에 더 가깝습니다. 공
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자 입장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최선의 해결책
을 탐색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지점을 알
게 될 수도 있고 우리 사회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과정
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될 거예요.

토론을 배우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질문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답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
든 질문으로 토론을 더 알차게 해 주세요.

일상에서 토론이 필요한 적이
있었나요? 그것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 토론은 잘 이루어졌나요?
잘되었다면 왜 잘되었고,
잘 안 되었다면 왜 잘 안 되었을까요?

토론 과정에서 여러분의 가장 큰
장점 및 단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내가 만든 질문

학습 활동

1-1 활동지



1 이 토론에서 양측이 제시한 논증을 정리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해 보자.

1 필수 쟁점을 중심으로 입론에 사용된 논증을 정리해 보자.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c0392b; font-weight: bold;">찬성 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장: • 이유: • 근거: 	<p>필수 쟁점 문제</p>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34495e; font-weight: bold;">반대 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장: • 이유: • 근거: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c0392b; font-weight: bold;">찬성 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장: • 이유: • 근거: 	<p>필수 쟁점 해결 방안</p>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34495e; font-weight: bold;">반대 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장: • 이유: • 근거: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c0392b; font-weight: bold;">찬성 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장: • 이유: • 근거: 	<p>필수 쟁점 이익 및 효과</p>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34495e; font-weight: bold;">반대 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장: • 이유: • 근거:

2 찬반 양측 가운데 더 타당한 논증을 한 쪽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써 보자.

- 더 타당한 쪽:
- 그렇게 생각한 까닭:

2 모둠별로 다음 단계에 따라 반대 신문식 토론의 논제를 만들어 보자.

1 다음 예를 참고하여 모둠별로 공동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를 한 가지 정해 보자.

예

동물원의 필요성,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GMO) 완전 표시제 시행, 어린이의 방수 활동 시간 규제, 미용 목적의 청소년 성형 수술 제한

우리 모둠이 선택한 사회적 문제

2 1에서 선정한 문제로 우리 모둠에서 토론할 정책 논제를 만들어 보자.

[논제를 설정할 때의 고려 사항]

- 평서문으로 쓴다.
- 하나의 논점, 명제만 담는다.
-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 현 상황의 변화를 추구하는 내용으로 진술한다.
- 찬성 측과 반대 측 어느 한쪽에 유리하지 않게 가치 중립적 용어를 사용한다.

논제

3 토론 참여자의 역할을 나누어 보자.

사회자 1명	찬성 측 2명	반대 측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 토론자: • 제2 토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 토론자: • 제2 토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 토론자: • 제2 토론자:

4 2에서 정한 논제와 관련된 용어의 개념을 정리해 보자.

- 용어:
- 개념:

3 모둠별로 다음 단계에 따라 토론을 하기 위한 논증을 구성하고 토론의 개요를 짜 보자.

▶ 논증 구성 시 참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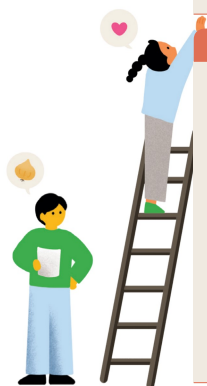
양측 논증을 모두 구성해 볼 경우 상대의 반론을 예측하여 반박 내용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

● 3-1 활동지



1 필수 쟁점에 따라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찬반 양측의 입론을 구성해 보자.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c63807; color: white; padding: 5px;">찬성 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장: • 이유: • 근거: 	<p style="background-color: #6c757d; color: white; border-radius: 50%; padding: 10px; width: 40px; margin: 0 auto;">필수 쟁점 문제</p>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343a40; color: white; padding: 5px;">반대 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장: • 이유: • 근거: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c63807; color: white; padding: 5px;">찬성 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장: • 이유: • 근거: 	<p style="background-color: #6c757d; color: white; border-radius: 50%; padding: 10px; width: 40px; margin: 0 auto;">필수 쟁점 해결 방안</p>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343a40; color: white; padding: 5px;">반대 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장: • 이유: • 근거: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c63807; color: white; padding: 5px;">찬성 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장: • 이유: • 근거: 	<p style="background-color: #6c757d; color: white; border-radius: 50%; padding: 10px; width: 40px; margin: 0 auto;">필수 쟁점 이익 및 효과</p>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343a40; color: white; padding: 5px;">반대 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장: • 이유: • 근거:



2 각각의 입장에 따라 반대 신문식 토론을 하기 위한 입론을 작성해 보자.

● 3-2 활동지



논제에 관한 우리 측 입장

□ 찬성
□ 반대

필수 쟁점 1

필수 쟁점 2

필수 쟁점 3

3 상대측이 반대 신문할 내용을 예상하여 질문 형태로 쓰고, 그 답변을 작성해 보자.

● 3-3 활동지



• 예상 질문

• 답변

4 상대측의 대표 주장을 예측해 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 측의 주장을 강화할 반론을 써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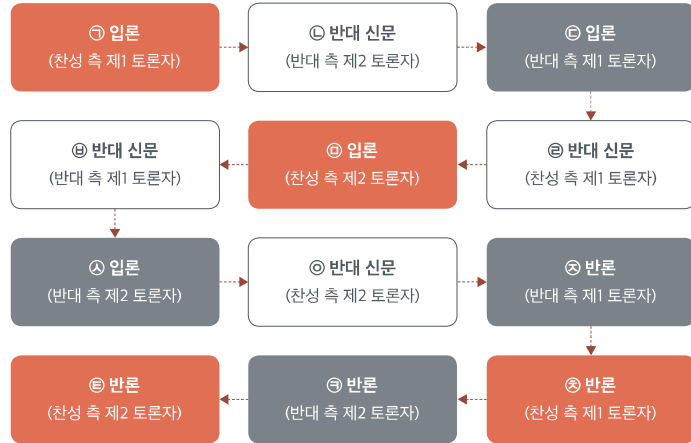
● 3-4 활동지



● 4-1 활동지
226쪽의 '토론 기록지'를 활용하여
토론 내용을 기록해 본다.

4 모둠별로 반대 신문식 토론을 실행하고 평가해 보자.

1 다음 절차에 따라 모둠별로 반대 신문식 토론을 진행하고 녹화해 보자.



2 녹화한 영상을 보며 다음 항목에 따라 우리 측과 상대측의 토론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찾아보자.

평가 내용	우리 측	상대측
토론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였는가?	상 중 하	상 중 하
필수 쟁점을 바탕으로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하였는가?	상 중 하	상 중 하
입론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구성되었는가?	상 중 하	상 중 하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상 중 하	상 중 하
상대측 발언을 경청하여 효과적으로 반대 신문을 하였는가?	상 중 하	상 중 하
상대측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는가?	상 중 하	상 중 하
토론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상 중 하	상 중 하
절차를 지키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토론하였는가?	상 중 하	상 중 하

나는 입론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며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적극적으로 토론 과정에 참여하지는 못해서 아쉬워. 다음에는 더 적극적인 태도로 토론에 임할 거야!



소단원 마무리



해당하는 표정에 표시하여 나의 이해도를 점검해 보자.

1 「교실에 시시 티브이(CCTV) 설치 의무화해야 한다」 내용 정리

찬성 측 주장	필수 쟁점	반대 측 주장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논증 구성	논제와 관련해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	찬성 측의 논증을 반증할 수 있는 논증 구성
교실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은 심각한 문제이다.	쟁점 1. □ □	교실은 학교 폭력의 핵심적인 장소가 아니다.
교실 내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쟁점 2. 해결 방안	교실 내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없다.
학교 폭력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쟁점 3. □ □ 및 효과	설치에 큰 비용이 드는 것에 비해 실효성이 높지 않다.

2 반대 신문식 토론

논제에 대해 토론자가 상대측 토론자에게 질문하여 상대측의 논지를 반박하는 토론

첫 번째 입론	논제 관련 □ □ 을/를 정의하고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가능성, 실행 시의 이익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단계
두 번째 입론	첫 번째 입론을 보강하여 주장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펼치는 단계
반대 신문	상대측 입론의 □ □ □ □ (이)나 허점이 드러날 수 있게 □ □ 하는 단계
□ □	상대측의 입론을 논박하면서 자기편의 주장이 정당함을 증명하는 단계

창의·융합 활동

출동! 문제 해결사 마니토 되기



마니토 알아? 제비뽑기 같은 무작위 뽑기로 짝을 정하고, 그 짝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선행을 베푸는 비밀 친구야. 아마 해 본 친구들도 있겠지? 그래도 이번에는 꽤 신선할 거야.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마니토거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친구들과 고민을 나눠 보자. 서로 더 잘 알게 되고 가까워질 거야. 혹시 알아? 알고 보니 내 마니토가 엄청난 해결사일지도!

1 나의 문제 상황 쓰기

2 마니토 뽑기

3 내 짝의 문제 해결 방안 고민하기

4 비밀 쪽지 전달하기

1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고민 중에서 반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은 문제 상황을 메모지에 적어서 '우리 반 문제 게시판'에 붙여 보자.

마니토에게 문제 해결의 지혜를 구해 보자!

✦ 우리 반 문제 게시판 ✦

우리 삼촌이 음식점을 개업하려고 해서, 가족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안전 등을 고려해서 노 키즈 존으로 운영하면 어떻겠냐는 말이 나왔는데 나는 노 키즈 존은 차별적이라고 생각해, 가족들에게 내 의견을 잘 전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 재이

2 제비뽑기로 마니토를 정하고, '우리 반 문제 게시판'에 붙은 내 짝의 문제 상황을 파악해 보자.

3 내 짝의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여 쪽지에 써 보자.

? 내 짝이 처한 문제 상황

! 내 짝이 처한 문제 상황 해결 방법

고민 해결 방법

소단원에서 배운 논증의 타당성 검증하거나 매체 자료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토론하기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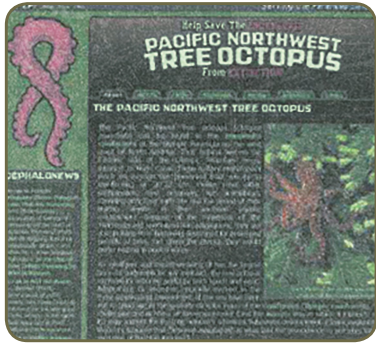
4 3에서 쓴 쪽지를 정해진 장소에 가져다 두어 내 짝이 볼 수 있게 해 보자.



깊고 넓게 읽기

가짜를 판별하는 능력 기르기

조병영



여러분을 위해 웹사이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태평양 북서부 연안 지역의 나무 문어를 구하자'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웹사이트 때문에 담긴 글과 이미지를 확인하면서 이 사이트가 무엇에 관하여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유익하고 믿을 만한 자료들을 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나무 문어 사이트를 보고 읽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고백건대, 이 웹사이트는 가짜입니다. 일부러 사람들을 속이려고 만든 자료입니다. 그런데 한 연구에 의하면 이 사이트를 읽은 중학생들의 대다수는 그 진위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웹사이트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지만, 정작 해당 사이트의 사실 여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이트가 뭔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읽었습니까? (중략)

어른들은 이 사이트를 어떻게 읽을까 궁금해진 저는 같은 사이트를 제가 가르쳤던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 대부분이 시큰둥했습니다. '이게 뭐야? 날 뭘로 보고!'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이트를 보면 불수록 점점 빠져드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담당 교수가 요청한 일이나 뭔가 이상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읽어 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자, 누가 이 사이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사람?"이라고 물었더니 대부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조금 이상해 보여요!" 아무래도 대학생들이 중학생들보다는 낫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으니 저마다 근거를 들었는데, 몇 가지로 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가 '닷넷(.net)'으로 끝난다. 닷넷이나 닷컴(.com)은 개인적, 상업적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다. .edu(.ac.kr), .gov(.go.kr), .org와 같이 정부 기관이나 대학 같은 공공 사이트에 비하면 뭔가 유무형의 이득을 취하려고 운영하는 사이트처럼 보여 믿기 어렵다.
- 디자인이 세련되지 못하다. 색감이 촌스럽고 레이아웃도 조악하다. 폰트 크기가 작고 줄 간격이 촘촘해서 글 정보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일반 대중이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문적으로 제작된 사이트 같지 않다.
- 영상 자료들이 링크되어 있는데 공신력을 확신하기

가짜를 판별하는 능력 기르기는

많은 이들이 속아 넘어간 '나무 문어' 이야기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읽기 역량은 무엇인지 쓴 글이다. 가짜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시각이 필요할지 생각하며 읽어 보자.

어려운 것들이다. 사이트 본문에 논문이나 학술서 같은 믿을 만한 인용 자료가 없어서 정보의 출처와 전문성도 확인하기 어렵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렇다면 비판적 독자입니다. 사이트의 디자인, 정보의 출처, 사이트의 주제에 대해서 검토하려는 태도가 신중해서 좋습니다. 자신의 판단에 대한 근거를 찾아 조목조목 설명한 점도 눈에 띕니다. 이 정도면 웹사이트가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어 질 것이고, 검색하면 이 사이트가 가짜라는 제보들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 출발입니다. 그런데 저라면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바보 같은 질문들도 해 볼 것 같습니다.

- 문어가 나무에 사는가?
- 문어의 서식지는 어디인가?
- 나는 문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 문어에 대한 나의 지식은 믿을 만한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디지털 자료는 '나무 문어'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정말 나무 문어라는 동물이 존재합니까? 혹시 이 질문을 들었을 때 "그런가?" 하며 여러분의 동공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요동쳤습니까? 문어는 바다, 그러니까 물에서 살아야 하는데, 문어 같은 것들이 산에 사는지, 그래서 산낙지입니까? 바위에 붙어 사는지, 그래서 들문어입니까? 나

무 위에 었드려 사는데에 관한 여러분의 상식이 정말 확고했습니까? 문어가 당연히 물에 산다는 걸 알아도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이 사이트 때문입니까, 여러분 자신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무 문어 때문입니까? (중략)

이 사이트를 보면서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이것저것 질문했을 것입니다. 나무 문어에 관하여 이렇게까지 심각해지는 상황이 낯설고 어색해서 조금 더 해 보려다 멈추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 답이 있어 보이는 질문이라고 무시했거나 아주 상식적인 것들을 공연히 따져 묻는 것 같아서 주저했을지도 모릅니다.

읽기는 독자와 텍스트의 상호 작용입니다. 텍스트는 독자를 자극하고, 이런 자극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독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나무 문어 웹사이트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믿을 만한 것인지 아닌지, 과학적으로 그럴듯한지 사기인지 판단하는 일차적인 근거는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어떤 것에 대하여 정교하면서도 통일된 형태의 '선행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여러분이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는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준 동등한 문어에 관한 지식이 확고하다면, 그럴듯한 나무 문어를 봐도 "이건 가짜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 '읽는 인간 리터러시를 경험하라'

나무 문어에 대한 자료를 본 대학생들이 이상하다고 말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대단원 마무리

배운 어휘 확인하기

다음 장면의 맥락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넣어 보자.

[보기]

일체	배제	추세	모색	여파	비단
----	----	----	----	----	----

이 가게는 음료 종류의 을/를 갖추고 있다.

쓰레기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케이팝(K-POP)의 인기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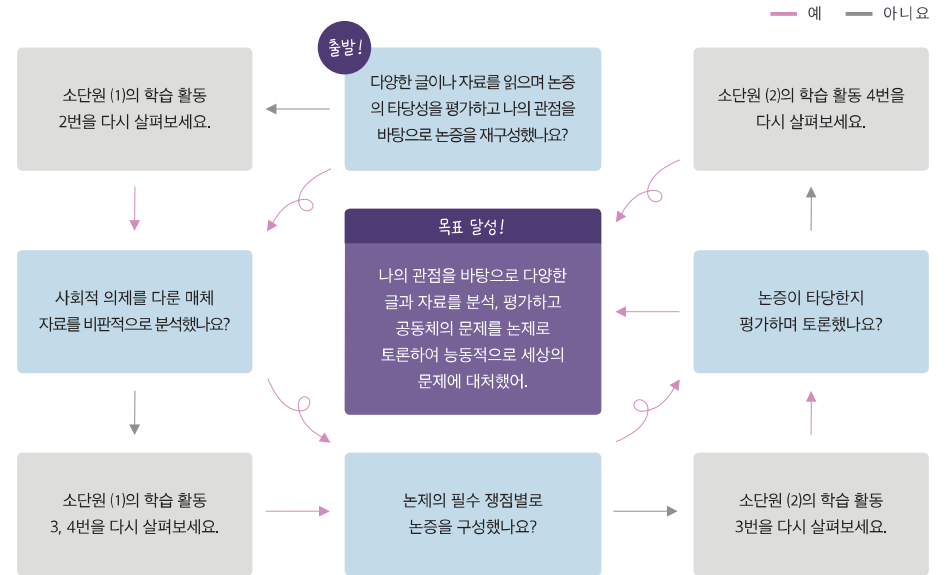
불법 주차를 막을 수 있는 해결 방안을 해 보자.

그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되었다.

가뭄의 (으)로 과일값이 크게 올랐다.

스스로 점검하기

다음 순서도의 질문에 답하며 나의 학습 정도를 점검해 보자.



이 단원을 마치며

앞으로도 글과 매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삶의 문제에 근거를 바탕으로 견해를 타당하게 표현해 보자. 그러면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을 거야.

★ 이 단원을 모험한 소감이 어때? _____

★ 앞으로 무엇을 더 공부해 볼까? _____

4 문학의 갈래

문학

- (1) 뿌리에게 나희덕
- (2)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윤홍길
- (3) 불편한 편의점 김호연 원작·홍현우 각색
- (4) 수오재기 정약용

슬픔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싶었다

이제 모두 함께 슬픔을 빛이라고 말하자

편지는 늘 이곳에서 왔다
잠들어도 길을 잃지 않고

돌아오길 반복하는 빛
사람의 말을 이어 가는 시
- 유현아, 「사람의 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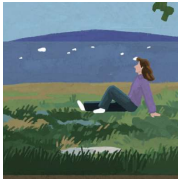
대단원 길잡이

대단원 학습 목표

- 갈래에 따른 형상화 방법의 특성을 고려하며 작품을 수용한다.
- 작품 구성 요소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에 유의하여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한다.

🔍 무엇을 배울까

(1) 뿌리에게



- 화자,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하며 시 감상하기
- 작품 구성 요소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에 유의하여 작품 수용하고 생산하기

(3) 불편한 편의점



- 대사, 지시문, 갈등 등을 고려하며 희곡 감상하기
- 작품 구성 요소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에 유의하여 작품 수용하기

(2) 아홉 켈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 인물, 배경, 갈등 등을 고려하며 소설 감상하기
- 작품 구성 요소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에 유의하여 작품 수용하기

(4) 수오재기



- 글쓴이의 경험, 개성 있는 표현 등을 고려하며 수필 감상하기
- 작품 구성 요소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에 유의하여 작품 수용하고 생산하기

창의·융합 활동

- 만남! 문학과 ○○ 연결하기

깊고 넓게 읽기

- 정혜윤의 「삶의 발명」 읽기
- 이야기의 힘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 왜 배울까

우리의 삶을 담아낸 문학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서정, 서사, 극, 교술 등 갈래에 따라 문학이 우리 삶을 그리며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모습은 모두 달라요. 따라서 문학 작품을 더 잘 이해하고 감상하려면 갈래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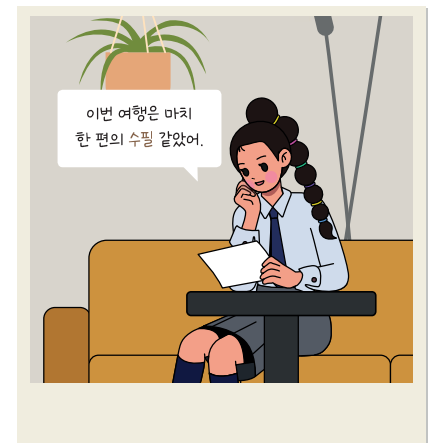
또 문학 작품은 작품 내적으로는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가치와 개성을 지니고, 외적으로는 맥락들 속에서 다채로운 빛깔을 가져요.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기도 해요.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 풍부하게 문학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할 수 있습니다.

📖 이 단원을 배우면

- 인간의 삶을 언어로 형상화한 문학 작품을 감상, 해석, 비평, 창작하는 활동을 통해 즐거움과 깨달음을 얻으며 문화 향유 역량을 기를 수 있다.
- 문학을 향유하면서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함으로써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을 기를 수 있다.

📁 생각 열기

학생들의 다음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뿌리에게」는 식물이 흙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 가는 자연 현상을 표현한 시이다. 생명을 살게 하는 대지의 충만한 사랑을 느끼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

소단원
학습 목표

- 형상화 방법의 특성을 고려하며 서정 갈래의 작품을 수용한다.
- 작품 구성 요소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에 유의하여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한다.

(1) 뿌리에게

나희덕

● 작가 시 낭송



● 작가 인터뷰



깊은 곳에서 네가 나의 뿌리였을 때
 나는 막 잠구어진 연한 흙이어서
 너를 잘 기억할 수 있다
 네 숨결 처음 대이던 그 자리에 더운 김이 오르고
 밝은 피 뽑아 네게 흘려보내며 즐거움에 떨던
 아 나의 사랑을

먼우물¹ 앞에서도 목마르던 나의 뿌리어
 나를 뚫고 오르렴,
 눈부서 잘 부스러지는 살이니
 내 밝은 피에 즐겁게 발 적시며 뻗어 가려무나

칙추를 휘어 잡고 더 넓게 뻗으면
 그때마다 나는 착한 그릇이 되어 너를 감싸고,
 불꽃 같은 바람이 가슴을 두드려 세워도
 네 뻗어 가는 끝을 하냥² 축복하는 나는
 어리석고도 은밀한 기쁨을 가졌어라

네가 타고 내려올수록
 단단해지는 나의 살을 보아라
 이제 거무스레 늙었으니
 슬픔만 한 두름³ 께어 있는 껍데기의
 마지막 잔을 마셔 다오

1 먼우물
먹을 수 있는 우물물.

2 하냥
'늘'의 방언.

3 두름
조기 따위의 물고기를 짐으로 한 줄
에 열 마리씩 두 줄로 엮은 것.



깊은 곳에서 네가 나의 뿌리였을 때
 내 가슴에 뿔어오르던 벌레들,
 그러나 지금은 하나의 빈 그릇,
 너의 푸른 줄기 솟아 햇살에 반짝이면
 나는 어느 산비탈 연한 흙으로 일구어지고 있을 테니

— 『뿌리에게』

작가와의 대화

나희덕



시인

1966~

198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뒤,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서정적이고 절제된 언어로 그려 왔다. 『그 말이 입을 물들었다』, 『가능주의자』 등을 썼다.



『뿌리에게』는 스무 살 때 이른 봄날 학교 뒷산에 올라갔다가 흙의 생명력에 감전되어 쓴 시입니다. 겨우내 얼었던 흙이 녹으며 김을 내뿜는 모습이 뿌리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흙의 말을 받아 적듯 순식간에 써 내려간 이 시로 시인이 되었으니, 제 시의 출발점이 된 셈이지요. 충만한 사랑의 에너지를 다른 생명에게 흘려보내는 흙의 말에서 우리는 자연의 순환적인 질서와 생태적 감수성을 읽어 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흙’은 어머니 대지를 상징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니의 사랑이나 헌신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어요. 살아 있는 모든 존재를 향한 사랑의 다양한 얼굴들을 이 시에서 발견해 보기 바랍니다.

『뿌리에게』를 감상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질문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답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든 질문으로 『뿌리에게』를 더 풍성하게 해 주세요.

여러분은 '나'와 '너'의 자리에
누구를 떠올리며 이 시를 읽었나요?

오늘날 '흙'은 어떤 느낌이나 감각을
불러일으키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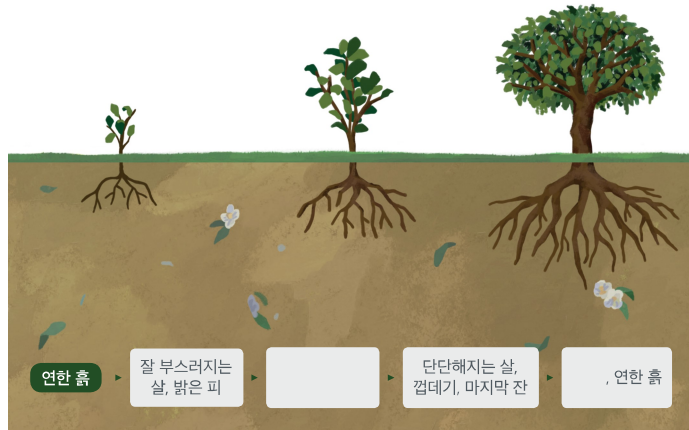
여러분이 자연의 생명력이나
아름다움을 느낀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나요?

내가 만든 질문

학습 활동

1 이 작품의 화자와 청자를 찾고, 작품의 말하기 방식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자.

2 흙과 뿌리의 관계를 표현한 다음 그림을 보면서 이 작품의 형상화 방식을 파악해 보자.



1 각 연의 전개에 따라 흙의 변화가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생각하며 빈칸을 채워 보자. 그리고 뿌리를 향한 흙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짐작해 보자.

2 흙이 “어리석고도 은밀한 기쁨을 가졌”다고 말한 까닭을 적어 보자.

3 이 작품의 작가가 쓴 다음 글을 읽고, 생태적 관점에서 이 작품을 해석해 보자.

현대의 시인은 대지의 남아 있는 생명력과 유기적 질서를 노래하는 동시에, 오염되고 파괴된 자연에 대한 고통스러운 증언자이자 고발자 역할을 해 왔다. 이제 시인은 ‘흙’을 전 지구적 생태 위기를 대변하는 ‘물질’로 바라보고 그 회복을 모색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현대에 이르러 흙은 인간의 삶과 너무나 멀어졌고 비천한 존재로 여겨지지만, 일찍이 인간이 흙에서 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오늘날 인간의 불행이나 소외는 우리 존재가 흙에서 왔으며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데서 비롯되었는지 모른다.

— 나희덕, 「흙의 시학」

1 생태적 관점에서 흙과 뿌리의 관계를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짐작해 보자.

2 ‘연한 흙’에서 ‘연한 흙’으로 돌아오는 이 작품의 시상 전개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의 주제 의식을 파악해 보자.

3 다음 질문에 대해 생각하며 작가가 언급한 “오늘날 인간의 불행이나 소외”가 무엇인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



왜 ‘흙’을 전 지구적 생태 위기를 대변하는 ‘물질’로 보아야 할까?

인간이 ‘흙’에서 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는 지금 ‘흙’을 비천한 존재로 여기고 있을까?

4 이 작품과 관련한 내 경험을 소재로 하여 작품을 창작해 보자.

시 소재 떠올리기

'흙'이나 '뿌리' 같은 존재는 사람이나 동물 외에 사물이나 경험 등이 될 수도 있다.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내가 성장시킨 존재를 떠올려 본다.

1 나에게 작가가 그려 낸 '흙'이나 '뿌리' 같은 존재가 있는지 떠올려 보자.

2 1에서 떠올린 존재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 그와 관련한 내 생각이나 느낌을 써 보자.

3 2를 바탕으로 1에서 떠올린 존재를 다른 사물에 비유하여 '○○에게'라는 제목의 시를 써 보자. 그리고 내가 어떤 의도로 시를 썼는지 친구에게 설명해 보자.

_____에게

4-1 활동지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뿌리'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흙'이겠구나. 나에게 '흙' 같은 존재를 생각하니 힘들 때마다 갔던 바다가 떠올랐어. 나에게 '뿌리' 같은 존재가 있나 생각하다가 아무리 바빠도 사랑과 간식을 주며 돌보는 강아지 머무가 떠올랐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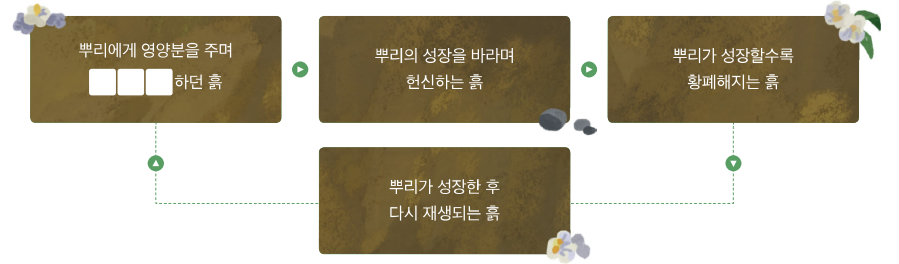


소단원 마무리



해당하는 표정에 표시하여 나의 이해도를 점검해 보자.

1 「뿌리에게」 내용 정리



2 「뿌리에게」에 드러난 서정 갈래의 특성

서정 갈래는 개인의 생각이나 정서를 비교적 짧은 형태의 압축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문학 양식임. 대표적인 갈래로 시와 시조가 있음.

- 「뿌리에게」
- 연한 흙이었던 화자가 뿌리를 성장시키는 모습을 회상적, □□적 어조로 묘사함.
 - '밝은 피', '마지막 잔' 등의 감각적인 시어로 화자의 아낌없는 사랑을 강조함.
 - "깊은 곳에서 내가 나의 뿌리였을 때"를 반복하는 등 운율적 요소를 통해 의미를 강조함.

3 「뿌리에게」에서 살펴본 구성의 유기성과 맥락

구성 요소와 주제 의식	주요 맥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흙'과 '뿌리'를 □□□ 화하여 '흙'이 '뿌리'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태도를 드러냄.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는 뿌리와 늙어 가는 흙의 모습을 대비적으로 보여 주며 시상을 전개함. • "어리석고도 온밀한 기쁨"이라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함. • '연한 흙'에서 다시 '연한 흙'으로 돌아가는 순환 구조로 자연의 회복력을 드러냄. <p>● 주제 의식: 생명의 탄생과 성장을 위한 자연의 충만한 사랑</p>	<p>사회·문화적 맥락: 사회의 주요 담론 가운데 하나인 생태적 관점에서 작품을 수용함.</p>

소단원

학습 목표

- 형상화 방법의 특성을 고려하며 서사 갈래의 작품을 수용한다.
- 작품 구성 요소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에 유의하여 작품을 수용한다.

(2)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윤흥길

[앞부분의 줄거리]

교사인 '나(오 선생)'는 단대리 시장 근처에서 셋방살이를 하다가 무리를 하여 성남의 고급 주택가에 집 한 채를 장만한다. 세를 놓은 문간방에 권 씨가 임신한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이
 10 아침 '나'는 대어섯 켄레나 되는 구두를 꺼내 놓고 보통에서 훨씬 벗어나 있는 실력으로 광을
 내는 권 씨의 모습을 보게 되고, 지나는 길에 들렀다는 이 순경에게 권 씨가 다니던 출판사를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 후 '나'는 학생들 가정 방문을 가던 길에 구두를 신고 사무원
 복장으로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있는 권 씨와 마주친다. 그날 밤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15 권 씨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는다. 그는 광주 대단지 개발이 시작될 때 내 집 마련의 꿈을 안
 고 철거민의 입주권을 샀다. 그런데 지상 낙원 건설의 공약을 남발하던 선거철이 끝나자 서
 울시와 경기도 양쪽에서 부당한 행정 절차로 입주자들을 압박하면서 권 씨를 포함한 주민들
 은 집을 잃고 쫓겨날 처지가 되었다. 투쟁 위원회가 조직되고 억지로 위원회 감투를 쓰게 된
 권 씨는 최후 결단의 날에 혼자서 서울로 도망치려다 한 무리의 청년들에게 붙들려 일장 설
 교를 듣게 되었다.

20 “권 선생님, 저쪽으로 가실까요.”

처음 알은체하던 예의 그 청년이 그에게 귀엣말을 했다. 그가 가장 두렵게 느끼는 건
 몽둥이가 아니었다. 친절이었다. 청년은 웃음으로 그를 묶어 도로변 잡초 더미까지 쓴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는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공립한 처지에 내몰린 사람들의 삶과
 소시민의 자기반성을 그린 소설이다. 부조리한 현실로 인물들에
 게 어떠한 갈등이 생기는지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

청년이 권 씨에게 설교를 늘어놓은 까닭은 무엇일까?

1 유한계급
생산 활동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소
유한 재산으로 소비만 하는 계층.

2 오보록이
자그마한 것들이 한데 많이 모여 다
보록하게.

쉽게 연행해 갔다. 그러고는 거기에서 일장의 설교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물론 잘 아시
겠지만……”이라고 말끝마다 전제하면서 청년은 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먹고 마시고
춤추고 침대에서 뒹굴고 있을 서울의 유한계급¹과 대단지 안의 처참한 생활상을 침이
마르도록 대비시킴으로써 아직도 잠자고 있는 그의 사회적 지각을 새 나라의 어린이처
럼 벌떡 일어나게 하려는 수작인 줄은 짐작이 되는데,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5
대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면 이런 판국에서도 저토록 친절할 수 있을까만을 그는 생
각하고 있었다. 자신의 설교가 웬만큼 먹혀들었다고 판단했는지 청년은 그를 이끌고 가
파른 산등성이를 질러 단지 중심부로 들어갔다.

“바루 저기 저 부근이었어요.”

그는 우리 방 들창 쪽을 손으로 가리켰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안방 아랫쪽에 앉아 10
서는 그가 가리키는 저기가 어디쯤인지 가늠키 어려웠다. 우리 내외의 얼굴이 실감한
사람답잖게 맨송맨송한 걸 알아차린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서는가 싶더니 어느새 마루
로 뛰어나가고 있었다. 덩달아 내가 뛰어나간 것은 순전히 그를 붙잡기 위해서였다. 언
제 들어왔는지 마루 끝 현관 부근에 권 씨의 일가족이 오보록이² 물러 차례로 뛰어나오
는 우리를 뻔히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버를 보자마자 새끼들 입에서 대번에 울음이 터 15
져 나왔다. 잔뜩 부른 배를 금방이라도 마루에 내려놓을 듯한 자세를 취한 채 권 씨 부
인은 흥당부가 된 자기 남편을 그저 멀뚱히 쳐다볼 따름이었다.

“울 것 없다. 느이 아버지 아직 안 죽었다.”

가장으로서의 체통 같은 걸 다분히 의식하는 목소리로 그가 낮게 말했다. 그는 내친
걸음에 아들딸들 울음의 틈서리를 뚫고 마당에까지 진출했다. 말은 똑바로 하면서도 걸 20
음은 비틀거리는 것이 아마 평형을 잃지 않으려는 그의 의지가 혀 아래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저기 저쯤이었지요.”

방 안에서보다 훨씬 자신이 붙은 소리로 그가 재차 설명했다. 언덕 아래 한참 거리에 25
달짝 쏘아부은 듯한 불빛의 무리가 그의 가리키는 손끝에서 놀고 있었다. 어른들끼리
시방 서로 싸우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닌 줄을 벌써 알아차렸을 텐데도 아이들은 붓물
터지듯 나오는 울음을 조금도 누그러뜨리려 하지 않았다.

“저것 좀 보라고 청년이 갑자기 소리칩니다. 그러잖아도 난 이미 보고 있었는데요.
빛속에서 사람들이 경찰하고 한창 대결하는 중이었죠. 최루탄에 투석으로 맞서고 있
었어요. 청년은 그것이 마치 자기 조항속으로 그려진 그림이나 되는 것같이 기고만장 30

입디다만, 솔직히 얘기해서 난 비에 젖은 사람들이 똑같이 비에 젖은 사람들을 상대
로 싸우는 그 장면에 그렇게 감동하지 않았어요. 그것보다는 다른 걱정이 앞섰으니까
요. 이 친구가 여기까지 끌고 와서 끝내 날 어쩔 작정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잠
시 지켜보고 있는 사이에 장면이 휘파닥 바뀌져 버립니다. 삼륜차 한 대가 어찌다 길
을 잘못 들어 가지고는 그만 소용들이 속에 파묻힌 거예요. 테물 피해서 빠져나갈 방
도를 찾으려고 요리조리 함부로 대가리를 디밀다가 그만 뒤집혀서 벌렁 나자빠져 버
렸어요. 누렇게 익은 참외가 와그르르 쏟아지더니 길바닥으로 구릅니다. 경찰을 상대
하던 군중이 들끓이질을 딱 멈추더니 참외 쪽으로 벌 떼처럼 달라붙습니다. 한 차분
이나 되는 참외가 눈 깜짝할 새 동이 나 버립니다. 진흙탕에 떨어진 것까지 주워서는
어적어적 깨물어 먹는 거예요. 먹는 그 자체는 결코 아름다운 장면이 못되었어요. 다
만 그런 속에서도 그걸 다투어 주워 먹도록 밑에서 떠받치는 그 무엇이 그저 무시무
시하게 절실할 뿐이었죠. 이걸 정말 나체화구나 하는 느낌이 처음으로 가슴에 꽉 부
딛쳐 읊니다. 나체를 확인한 이상 그 사람들하곤 종류가 다르다고 주장해 나온 근거
가 별안간 흐려지는 기분이 듭니다. 내가 맑은 정신으로 나를 의식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까지가 전부였습니다.”

그가 더 이상 이야기를 계속할 눈치가 아니었으므로 나는 비로소 그에게 말을 걸 기
회를 얻었다.

“그 뒤 권 선생이 어떻게 되셨는지 물어봐도 괜찮겠습니까?”

“벌써 물어 놓고는 뭘 양해를 구하십니까. 사흘 후에 형사가 출판사로 찾아와서 수감을
채우더군요. 경찰에서 증거로 제시하는 사진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진 속에서 난 빠스
꼭대기에도 올라가 있고 석유 강통을 들고 있고 각목을 휘둘러 대고 있기도 했습니다.
어느 것이나 내 얼굴이 분명하긴 한데 나로서는 전혀 기억에 없는 일들이었으니까요.”

[중략 부분의 줄거리]

권 씨가 전과자가 된 사정을 털어놓은 후 권 씨 부인의 배는 점점 불러 온다. 권 씨는 여전히
일 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공사판을 전전하고 해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권 씨네를 걱
정하는 '나'와 '나'의 아내에게 염려 말라 큰소리를 친다. 권 씨는 어느 날 밤 자정이 넘어 부인
의 진통이 극에 달하자 부인을 업고 병원으로 향한다. 그 후 권 씨는 학교로 '나'를 찾아와 산
모와 태아가 모두 위험해 빨리 손을 써야 한다며 십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한다. '나'는 크게 부
담을 느끼고 한동안 망설인다.

권 씨는 쏟아진 참외에 물러든 군중
을 보며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왜 권 씨는 그날의 일들이 기억에 없
었을까?

● 중략 부분 내용



—
‘나가 권 씨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무엇일까?’

1 해가
어느 겨울.

2 아멸치다
태도가 차고 여무지다.

3 변동하다
돈이나 물건 따위를 융통하다.

—
권 씨가 “오 선생, 이래 봐도 나 대학 나온 사람ियो.”라고 말한 까닭은 무엇일까?

“빌려만 주신다면 무슨 짓을, 정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반드시 갚는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그는 마치 성경책 위에도 오른손을 얹고 말하듯이 엄숙한 표정을 했다. 하마터면 나는 잇을 뻔했다. 그가 적시에 일깨워 주었기 망정이지 안 그랬더라면 빌려주는 어려움에만 골똘한 나머지 빌려줬다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 이 더 클 거라는 사실은 생각도 못 할 뻔했다. 그렇다. 끼니조차 감당 못 하는 주제에 막 벌이 아니면 어쩌다 간간이 얻어걸리는 출판사 싸구려 번역 일 가지고 어느 해가¹에 빚을 갚을 것인가.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그리고 기왕 피할 바엔 저쪽에서 감히 두말을 못 하도록 아멸치게² 굴 필요가 있었다.

“병원 이름이 뭐죠?”

“원 산부인입니다.” 10

“지금 내 형편에 현금은 어렵군요. 원장한테 바로 전화 걸어서 내가 보증을 서마고 약속할 테니까 권 선생도 다시 한번 매달려 보세요. 의사도 사람인데 실마 사람을 생으로 죽게야 하겠습니까. 달리 변동할³ 구멍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해 보세요.”

내 대답이 지나치게 더디 나올 때 이미 눈치를 챈 모양이었다. 도전적이던 기색이 슬그머니 죽으면서 그의 착하디착한 눈에 다시 수줍음이 돌아왔다.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보였다.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이길 바라고 거기다 희망을 걸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서 수술 비용을 받아 내기가 수월치 않다는 걸 입원시키는 그 순간에 벌써 알아차렸어요.”

얼굴에 흐르는 진땀을 훔치는 대신 그는 오른발을 들어 왼쪽 바짓가랑이 뒤에다 두어 번 문질렀다. 발을 바꾸어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바쁘실 텐데 실례 많았습니다.”

‘썰면’처럼 두툼한 입술이 선잠에서 깬 어린이같이 움썹거리더니 겨우 인사말이 나왔다. 무슨 말이 더 있을 듯싶었는데 그는 이내 돌아서서 휘적휘적 걷기 시작했다. 나는 내심 그 입에서 끈끈한 가래가 묻은 소리가, 이를테면, 오 선생 너무하다든가 잘 먹고 잘 살라든가 하는 말이 날아와 내 이마에 탁 들러붙는 순간에 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나를 똑바로 올려다봤을 때 것처럼 흠칫 놀랐을 것이다.

“오 선생, 이래 봐도 나 대학 나온 사람ियो.”

그것뿐이었다. 내 호주머니에 촌지를 밀어 넣던 어느 학부형같이 그는 수줍게 그 말 30

만 건네고는 언덕을 내려갔다. 별로 휘청거릴 것도 없는 작달막한 체구를 연방 휘청거리면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동작으로 내 눈에 그는 비쳤다. 산 고개를 돌아 그의 모습이 별거벗은 황토의 언덕 저쪽으로 사라지는 잘나, 나는 뛰어가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돌팔매질을 하다 말고 뒤집어진 삼륜차로 달려들어 아귀아귀 참외를 깨물어 먹는 군중을 목격했을 당시의 권 씨처럼, 이젠 완전히 나체화구나 하는 느낌이 팍 들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암만⁴의 빚을 지고 있음을 펄쩍 깨달았다. 전셋돈도 일종의 빚이라면 빚이었다. 왜 더 좀 일찍이 그 생각을 못 했는지 모른다.

원 산부인과에서는 단단의 수술 준비를 갖추고 보증금이 도착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에서 우격다짐으로 후려낸 가불에다 가까운 동료들 주머니를 닦치는 대로 털어 간신히 마련한 일금 10만 원을 건네자 금테의 마비즈 안경을 쓴 원장이 바로 마취사를 부르도록 간호원에게 지시했다. 원장은 내가 권 씨하고 아무 척분⁵도 없으며 다만 그의 셋방 주인일 따름인 걸 알고는 혀를 찼다.

“아버지가 되는 방법도 여러 질이군요. 보증금을 마련해 오랬더니 오전 중에 나가서는 여태껏 얼굴 한번 안 비치지 됩니까.”

“맞습니다.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 질이듯이 아버지 노릇 하는 것도 아마 여러 질일 겁니다.”

나는 내 말이 제발 의사의 귀에 농담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랐으나 유감스럽게도 금테 안경의 상대방은 한차례의 너털웃음으로 그걸 간단히 농쳐⁶ 버렸다. 나는 이미 죽은 게 아닌가 싶게 사색이 완전한 권 씨 부인이 들것에 실려 수술실로 들어가는 걸 거들었다.

생명을 꺼내고 그 생명을 수용했던 다른 생명까지 암양해서⁷ 건지는 요란한 수술치곤 너무도 쉽게 끝났다. 보호자 대기석에 앉아서 우리 집 동준이 늬을 얻을 때까지 졸담 배질로 네 댕가 다섯 대째 붙이고 나니가 울음소리가 들렸다.

“고추예요, 고추!”

수술을 돕던 원장 부인이 나오면서 처음 울음을 듣는 순간에 내가 점쳤던 결과를 큰 소리로 확인해 주었다. 진짜 보호자를 상대하듯이 원장 부인이 내게 축하를 보내 왔으므로 나 역시 진짜 보호자 입장에서 수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잠시 후에 나는 강보⁸에 싸여 밖으로 나오는 권기용 씨의 차남을 대면할 수 있었다. 제 어미 배를 가르고 나온 놈답지 않게 얼굴이 두툼한 것이 속없이 잘도 생겼다. 제왕절개라는 말이 풍기는 선입감에 딱 어울리게끔 목청이 크고 우렁찼다. 병원 건물을 온통 들었다 놓는 여세

—
‘나’는 사라지는 권 씨의 뒷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4 암만
밝혀서 말할 필요가 없는 값이나 수량을 대신하여 이르는 말.

—
‘나’는 왜 권 씨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해 주기로 마음을 바꿨을까?

5 척분
성이 다르면서 일가가 되는 관계.

—
‘나’가 의사에게 한 말에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

6 농쳐다
어떤 행동이나 말 따위를 문체 삼지 않고 넘기다.

7 암양하다
암명하다가 변한 말. 물건을 훔송하다.

8 강보
포대기.

디익센 놈의 울음소리를 듣는 동안 나는 동준이 놈을 낳던 날의 감격 속으로 고스란히 빠져들어 갔다.

우리 집에 강도가 든 것은 공교롭게도 그날 밤이었다. 난생처음 당해 보는 강도였다. 자꾸만 누군가가 내 어깨를 흔들며 대고 있었다. 귀찮다고 뿌리쳐도 잠자코 계속 흔들었다. 나를 깨우려는 손의 감촉이 내 식구의 그것이 아님을 파악해 깨닫고 눈을 떴을 때 나는 빨간 꼬마전구 불빛 속에서 복면의 사내를 보았다. 그리고 똑바로 내 먹을 겨누고 있는 식칼의 서슬도 보았다. 술내가 확 풍겼다. 조명 빛깔을 감안해서 붉은빛을 띤 검정 계통의 보자기일 복면 위로 드러난 코의 일부와 눈자위가 나우¹ 취해 있음을 나는 재빨리 간파했다.

“일어나, 얼른 일어나라니까.” 10

나 외엔 더 깨우고 싶지 않은지 강도의 목소리는 무척 낮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일어나고 싶었지만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었다. 먹을 겨누 식칼이 덜덜덜 위아래로 춤을 추었다. 만약 강도가 내 목통이라도 찌르게 된다면 그것은 고의에서가 아니라 지나친 떨림으로 인한 우발적인 상해일 것이었다. 무척 모자라는 강도였다. 나는 복면 위의 눈을 보는 순간에 상대가 그 방면의 전문가가 못 됨을 금방 알아차렸던 것이다. 탄에 진탕 마신 술로 한껏 용기를 들었을 텐데도 보기 좋을 만큼 큰 눈이 작하게만 타고난 제 천성을 어찌지 못한 채 나를 퍽 두려워하고 있었다. 술로 간을 키우지 않고는 남의 집 담을 못 넘을 정도라면 강력 범행을 도모하는 사람으로서는 처음부터 미역국이었다.

“일어날 테니까 칼을 약간만 뒤로 물려 주시오.”

강도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 20

“내놔, 얼른 내노라니까.”

내가 다 일어나 앉기를 기다려 강도가 속삭였다.

“하라는 대로 하죠. 허지만 당신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만 일이 수월할 거요.”

잔뜩 의심을 품고 쏘아보는 강도를 향해 나는 덧붙여 말했다.

“집 안에 현금은 변변찮소. 화장대 위에 돼지 저금통하고 장롱 서랍 속에 아마 마누라가 쓰다 남은 돈이 약간 있을 거요. 그 밖에 돈이 될 만한 건 당신이 알아서 챙겨 가시오.”

강도가 더욱 의심을 두고 경거히² 움직이려 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시험 삼아 조금 신경질을 부려 보았다.

10 “마누라가 깨서 한바탕 소동을 벌여야만 시원하겠소? 난처해지기 전에 나를 밉고 일

2 경거히
말이나 행동이 가볍게.

1 나우
조금 많이.

강도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은 무엇일까?



러 주는 대로 하는 게 당신한테 이로운 거요.”

한차례 길게 심호흡을 뽑은 다음 강도는 마침내 결심을 했다는 듯이 이부자리를 돌아 화장대 쪽으로 향했다. 얇은 구두까지 벗고 양말 바람으로 들어온 강도의 발을 나는 그때 비로소 볼 수 있었다. 내가 그렇게 염려를 했는데도 강도는 와들와들 떨리는 다리를 옮기다가 그만 부주의하게 동준이의 발을 밟은 모양이었다. 동준이가 갑자기 청얼거리자 그는 질겁을 하고 엎드려더니 녀석의 어깨를 토닥거리는 것이었다. 녀석이 도로 잠들기를 기다려 그는 복면 위로 칙칙하게 땀이 뻘 얼굴을 들고 일어나서 내 위치를 훔곰 확인한 다음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티지려는 웃음을 꼭 참은 채 강도의 애교스러운 행각을 시종 주목하고 있던 나는 살그머니 상체를 움켜져 동준이를 잠재울 때 이부자리 위에 떨어뜨린 식칼을 집어 들었다.

“연장을 이렇게 함부로 굴리는 걸 보니 당신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 만합니다.”

내가 내미는 칼을 보고 그는 기절할 만큼 놀랐다. 나는 사람 좋게 웃어 보이면서 칼을 받아 가라는 눈짓을 보였다. 그는 겁에 질려 잠시 망설이다가 내 재촉을 받고 후다닥 달려들어 칼자루를 낚아채 가지고는 다시 내 멱을 겨누었다. 그가 고의로 사람을 찌를 만한 위인이 못 되는 줄 일찍이 간파했기 때문에 나는 칼을 되돌려준 걸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식칼을 옆구리 쪽 허리띠에 차더니만 몹시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 되었다.

“도둑맞을 물건 하나 제대로 없는 주제에 이죽거리긴!”

“그래서 경험 많은 친구들은 우리 집을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지나치죠.”

“누군 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나? 피치 못할 사정 땀에 어쩔 수 없이…….”

나는 강도를 안심시켜 편안한 맘으로 돌아가게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 피치 못할 사정이란 게 대개 그렇습시다. 가령 식구 중에 누군가가 몹시 아프다든가 빛에 물려서…….”

그 순간 강도의 눈이 의심의 빛으로 가득 찼다. 분개한 나머지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떨면서 그는 대청마루를 향해 나갔다. 내 옆을 지나쳐 갈 때 그의 몸에서는 역겨울 만큼 술내가 확 풍겼다. 그가 허둥지둥 끌어안고 나가는 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긴 한 줌의 자존심일 것이었다. 애당초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내 방법이 결국 그를 편안케 하긴커녕 외려 더욱더 낭패케 만들었음을 깨닫고 나는 그의 등을 향해 말했다.

“어렵다고 꼭 외로우란 법은 없어요. 혹 누가 없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털어 주었는지?”

“개수작 마!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

그는 현관에 벗어 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불현듯 일었으나 나는 꼭 눌러 참았다.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선 다음 부주의하게도 그는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엉겁결에 문간방으로 들어갈려 했다.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은 훗날을 위해 나로서는 부득이한 조처였다.

“대문은 저쪽입니다.”

문간방 부엌 앞에서 한동안 망연해 있다가 이윽고 그는 대문 쪽을 향해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다. 비틀비틀 걸기 시작했다. 때문에 다다르자 그는 상체를 뒤틀어 이쪽을 보았다.

“이래 봐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요.”

누가 뭐라고 그랬나. 느닷없이 그는 자기 학력을 밝히더니만 대문을 열고는 보안등 하나 없는 칠혹의 어둠 저편으로 자진해서 삼켜져 버렸다.

나는 대문을 잠그지 않았다. 그냥 지쳐¹ 놓기만 하고 들어오면서 문간방에 들러 권 씨가 아직도 귀가하지 않았음과 깜깜한 방 안에 어미 아버 없이 오뉴만이 새우잠을 자고 있음을 아울러 확인하고 나왔다. 아내가 잠옷 바람으로 팔짱을 끼고 현관 앞에서 있었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냐.”

잃은 물건이 하나도 없다. 돼지 저금통도 화장대 위에 그대로 있다. 아무것도 아닐 수 밖에. 다시 잠이 들기 전에 나는 아내에게 수술 보증금을 대납해 준 사실을 비로소 이야기했다. 한참 말이 없다가 아내는 벽 쪽으로 슬그머니 돌아누웠다.

“땀 염려는 없어, 전셋돈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군요?”

아내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누웠다. 우리 집에 들어왔던 한 어리숙한 강도에 관해서 나는 끝내 한마디도 내비치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까지 권 씨는 귀가해 있지 않았다. 출근하는 길에 병원에 들러 보았다. 수술 보증금을 구하러 병원 문밖을 나선 이후로 권 씨가 거기에 제차 발걸음한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다음 날, 그 다음다음 날도 권 씨는 귀가하지 않았다. 그가 행방불명이 된 것이 이제 분명해졌다. 그리고 본의는 그게 아니었다 해도 결과적으로 내 방법이 매우 졸렬했음도 이제 확연히 밝혀진 셈이었다. 복면 위로 드러난 두 눈을 보고 나는 그가 다음 아

‘나는 왜 웃음이 터지려고 했을까?’

‘나의 말을 들은 강도가 분개한 까닭은 무엇일까?’

‘나는 왜 강도에게 “대문은 저쪽입니다.”라고 말했을까?’

1 지쳐다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닫아만 두다.

‘나가 그날 밤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난 권 씨임을 대뜸 알아차릴 수 있었다. 밝은 아침에 술이 깬 권 씨가 전처럼 나를 뒤편이 대할 수 있게 하자면 복면의 사내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하는 그 길뿐이라고 판단했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병원에 찾아가서 죽지 않은 아내와 새로 얻은 세 번째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현관에서 그의 구두를 확인해 보지 않은 것이 뒤늦게 후회되었다. 문간방으로 들어가려는 그를 차갑게 일깨워 준 것이 영 마음에 걸렸다. 어떤 근거인지는 몰라도 구두 손질의 정도에 따라 그의 운명을 예측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구두코가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되어 있는 한 자존심은 그 이상으로 광발이 울려져 있었을 것이며, 그러면 나는 안심해도 좋았던 것이다. 그때 그가 만약 마지막이란 걸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세기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길을 가로막는 그것이 그에게는 대체 무엇으로 느껴졌을 것인가.

아내가 병원을 다니러 가는 편에 아이들을 죄다 달려 보낸 다음 나는 문간방을 살살이 뒤졌다. 방을 내준 후로 밝은 낮에 내부를 둘러보긴 처음인 셈이었다. 이사 올 때 본 그대로 세간이라고 깔고 덮는 데 쓰이는 것과 쌀을 익혀서 담은 몇 점 도구가 전부였다. 별다른 이상은 눈에 띄지 않았다. 구태여 꼭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을 찾으면 그것은 구두일 것이었다. 가장 값나가는 세간의 자격으로 장롱 따위가 자리 잡고 있을 그런 자리에 아홉 켄레나 되는 구두가 사열¹ 받은 병정들 모양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정갈하게 담긴 것이 여섯 켄레, 그리고 먼지를 덮어쓴 게 세 켄레였다. 모두 해서 열 켄레 가운데 마음에 드는 일곱 켄레를 골라 한꺼번에 손질을 해서 매일매일 갈아 신을 한 주일의 소용에 당해 온 모양이었다. 잘 닦인 일곱 중에서 비어 있는 하나를 생각하던 중 나는 한 켄레의 그 구두가 그렇게 쉽사리 돌아오지 않으리란 걸 알뜰뜰하게 깨달았다.

권 씨의 행방불명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될 때였다. 내 쪽에서 먼저 전화를 걸기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나는 되도록 침착해지려 노력하면서 내게, 이웃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누차 장담한 바 있는 이 순경을 전화로 불렀다.

—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1 사열 부대의 훈련 정도, 사기 따위를 열병과 분열을 통하여 살피는 일.

‘나는 권 씨가 남긴 아홉 켄레의 구두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작가와와의 대화

윤홍길



소설가

1942~

196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뒤, 왜곡된 삶의 현실과 부조리를 소설로 형상화해 왔다. 『장마』, 『원장』 등을 썼다.



‘8·10 성남(광주 대단지) 민권 운동’이 발발한 지 1년여 만에 그곳 여학교 국어 교사로 부임했습니다. 그 무렵 예비군 훈련장에서 한 청년을 만나 당시 사건의 실상을 상세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궁금증이 시키는 대로 꼬치꼬치 캐묻는 내 정체가 자못 의심스러웠던지 청년이 갑자기 정색하면서 물었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소설가라고 대답하자 그의 얼굴에 냉소가 가득 번졌습니다. “요즘 소설 한 근에 얼마나 합니까?” 소설은 무개를 달아 파는 상품이 아님을, 때로는 쇠고기 한두 근보다 가치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이를테면 이 소설은 그 청년의 냉소와 모멸적 언사에 대한 답변인 셈입니다.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감상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질문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답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든 질문으로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새롭게 해 주세요.

당시 언론에 ‘집단 난동’이라고 보도되었던 ‘광주 대단지 사건’을 지금 ‘8·10 성남 민권 운동’이라고 부르게 된 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권 씨의 우스꽝스러운 모습과 그의 비극적 사연 간의 괴리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꼈나요?

권 씨에게 구두는 어떤 의미를 지닌 물건이었을까요?

내가 만든 질문

학습 활동

1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

<p>'나'(오 선생)</p> 	<p>권 씨</p> 
.....
직업	직업
.....
가족 관계	가족 관계
.....
주거 상황	주거 상황






2 다음 사건을 중심으로 '나'와 권 씨 사이에 어떤 갈등이 발생했는지 파악해 보자.

<p>권 씨가 '나'에게 아내의 수술비를 빌리려 온 사건</p>	
<p>권 씨가 강도로 위장하여 '나'의 집에 침입한 사건</p>	

3 이 작품의 다음 부분을 다시 읽고, 두 사건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탐구해 보자.

<p>(가) 경찰을 상대하던 군중이 돌맹이질을 딱 멈추더니 참외 쪽으로 벌 떼처럼 달라붙습니다. 한 차분이나 되는 참외가 눈 깜짝할 새 동이 나 버립니다. 진흙탕에 떨어진 것까지 주워서는 어적어적 깨물어 먹는 거예요. 먹는 그 자체는 결코 아름다운 장면이 못 되었어요. 다만 그런 속에서도 그걸 다투어 주워 먹도록 밑에서 떠받치는 그 무엇이 그저 무시무시하게 절실할 뿐이었죠. 이걸 정말 나체화구나 하는 느낌이 처음으로 가슴에 딱 부딪쳐 옵니다. 나체를 확인한 이상 그 사람들하곤 종류가 다르다고 주장해 나온 근거가 별안간 흐려지는 기분이 듭니다.</p>	<p>(나) 별로 휘청거릴 것도 없는 작달막한 체구를 연방 휘청거리면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동작으로 내 눈에 그는 비쳤다. 산 고개를 돌아 그의 모습이 벌거벗은 황토의 언덕 저쪽으로 사라지는 찰나, 나는 뛰어가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돌팔매질을 하다 말고 뒤집어진 삼륜차로 달려들어 아귀아귀 참외를 깨물어 먹는 군중을 목격했을 당시의 권 씨처럼, 이걸 완전히 나체화구나 하는 느낌이 딱 들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암만의 빛을 지고 있음을 퍼뜩 깨달았다. 전셋돈도 일종의 빛이라면 빛이었다.</p>
--	---

1 두 사건에 나타난 등장인물들의 태도 변화를 파악해 보자.

	<p>(가)에서 권 씨는 참외를 향해 몰려든 군중을 보며 무엇을 깨달은 걸까?</p>
	<p>자기는 그 사람들과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 생각하며 거리를 두었는데, _____</p>
	<p>그래서 권 씨가 '이건 정말 나체화구나.'라고 생각했구나. 벌거벗은 인간의 모습은 다들 게 없었니까. 그런데 (나)에서 오 선생은 왜 돌아가는 권 씨를 보며 과거에 권 씨가 목격했던 장면을 떠올렸을까?</p>
	<p>과거에 권 씨가 군중에게 그랬던 것처럼, 권 씨에게 거리를 두면서 그의 일에 말려들지 않으려 하는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을 깨달았다고 생각해.</p>
	<p>그렇다면 오 선생이 '이건 완전히 나체화구나.'라고 느낀 까닭은 _____</p>

2 (가)와 (나)를 유사한 구도로 제시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추측해 보자.

4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에 관해 쓴 다음 글을 읽고, 권 씨의 삶에서 엿볼 수 있는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파악해 보자.

1960년대 후반 서울시의 주택 보급률은 46퍼센트에 불과했는데, 무주택 가구의 절반 이상이 무허가 건물에서 살았다. 서울시는 도시 미관과 위생을 위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일대(지금의 경기도 성남시)에 위성 도시를 조성하여 철거민을 집단으로 이주시킬 계획을 세웠다. 당시 서울시는 재원 조달이나 철거민 생업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싼값에 땅을 사들여 개발한 뒤 오른 땅값으로 재원을 마련하려는 등 무리한 방식으로 대단지 조성을 추진했다.

10만 명이 넘는 철거민들이 토지 분양과 일자리 제공에 대한 약속을 믿고 이주했지만, 광주 대단지 생활 여건은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이주민들은 상하수도 시설조차 없는 곳에서 천막이나 판잣집을 지어 생활해야 했고 일자리도 제공받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1년 총선으로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면서 이 지역의 땅값이 치솟자 서울시는 애초 약속과 달리 분양가를 올리고 땅값을 일시불로 내게 하는 등 부당한 정책을 밀어붙였다. 강제로 이주당한 채 불안정한 주거 상태와 실업으로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된 주민들은 서울시의 조처에 크게 반발하여 생존권 투쟁을 벌였다.

5 권 씨의 구두와 같이 내가 소중한 여기는 물건에 대한 게시물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공유해 보자.

내가 특별히 소중하게 여기는 건 이 공책이야. 여기저기서 모은 좋은 글귀를 써 두었어. 마음이 힘들 때마다 열어 보면 어느새 차분해져. 이걸 내게 '겨울을 대비하는 도토리' 같은 거야.

해당 물건의 사진을 찍어 올린다.

해당 물건에 얽힌 '나'의 서사를 나타내는 문구를 입력한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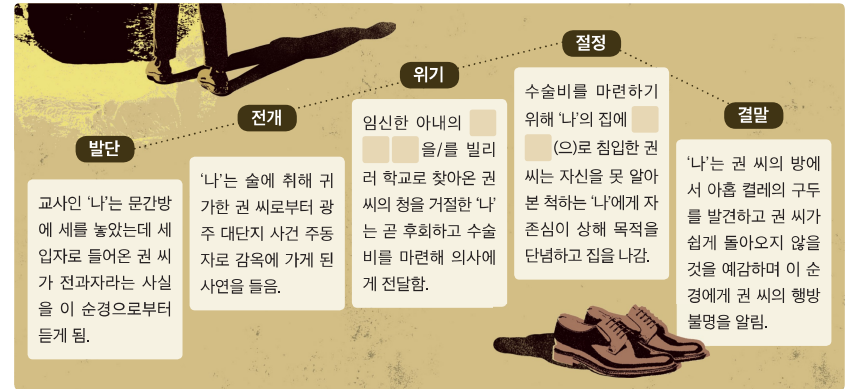
게시물이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핵심어 표시(해시태그)를 단다.

소단원 마무리



해당하는 표정에 표시하여 나의 이해도를 점검해 보자.

1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내용 정리



2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에 드러난 서사 갈래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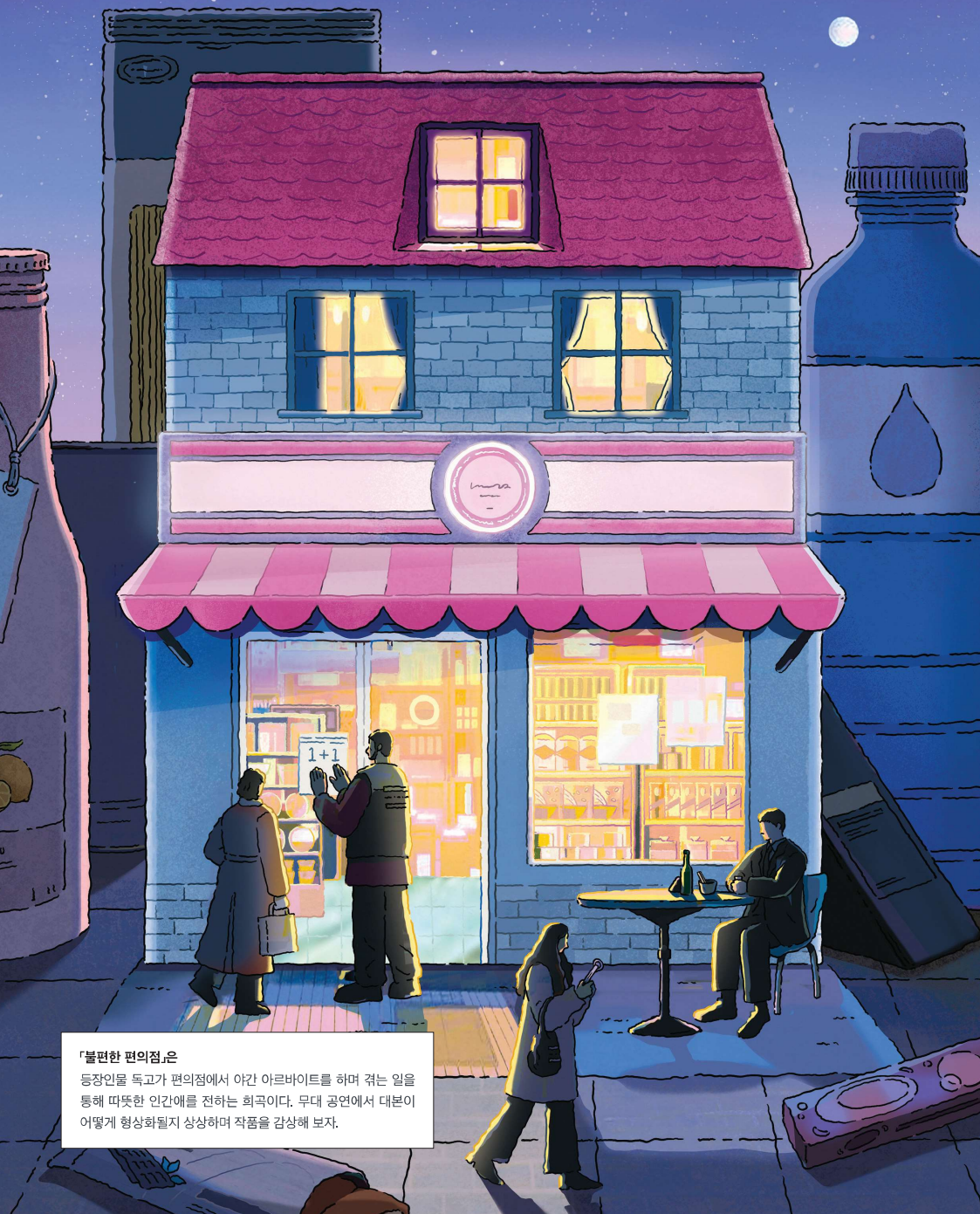
- 서사 갈래는 서술자가 일정한 줄거리를 갖춘 이야기를 개연성 있게 전달하는 문학 양식으로, 대개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됨. 대표적인 갈래로는 소설이 있음.
-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는 도시 개발 과정에서 밀려난 계층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 주는 현실 고발적 성격의 작품임.



3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에서 살펴본 구성의 유기성과 맥락



구성 요소와 주제 의식	주요 맥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술자인 '나'가 권 씨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의 심리를 분석하여 제시함. • 실제 사건인 '8·10 성남(광주 대단지) 민권 운동'을 작품의 배경으로 삼음. • 인물을 전형적으로 묘사하여 도시의 소외 계층을 대변하도록 함. • (이)라는 상징적인 소재로 인물의 성격과 처지를 드러냄. <p>● 주제 의식: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가난한 이들의 삶과 부당한 현실 고발</p>	<p>사회·문화적 맥락: 시대적 배경이 된 1970년대 산업화, '8·10 성남 민권 운동'과 관련하여 작품을 수용함.</p>



『불편한 편의점』은 등장인물 독고가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는 일을 통해 따뜻한 인간애를 전하는 회곡이다. 무대 공연에서 대본이 어떻게 형상화될지 상상하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

소단원
학습 목표

- 형상화 방법의 특성을 고려하며 극 갈래의 작품을 수용한다.
- 작품 구성 요소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에 유의하여 작품을 수용한다.

(3) 불편한 편의점

김호연 원작·홍현우 각색

5

[주요 등장인물]

- 독고 올웨이즈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생
- 경만 매일 밤 편의점 야외 탁자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회사원
- 선숙 독고와 같은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 인경 편의점이 있는 청파동에 글을 쓰러 온 극작가

5

[앞부분의 줄거리]

서울역에서 노숙 중인 독고는 영숙의 지갑을 찾아 준 인연으로 영숙이 운영하는 올웨이즈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독고는 알코올성 치매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말과 행동 또한 어눌하지만, 의외로 일을 잘해 내며 손님과 주변 사람을 사로잡는 묘한 능력을 발휘한다.

10

10

S#5. 선숙의 집/올웨이즈 편의점

15

잠전 중에 게임 소음이 흐른다. 선숙의 목소리. “아들 나와 봐. 문 열어! 엄마랑 얘기 좀 해!” 조영 켜진다. 선숙의 아들, 부스스한 모습으로 방에서 나온다.

선숙 아들 엄마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아. 그러니까 하지 마.

선숙 (불들고) 어딜 가. 말 끝내고 가.

선숙 아들 낚음. 나 공부해야 돼.

20

선숙 거짓말! 너 대체 뭐 하는 거니? 응?

선숙 아들 엄마가 외무 고시 보라며!

선숙 야, 이 자식이! 외무 고시 이제 없어졌다던데.

대체 무슨 공부를 하는 거야!

선숙 아들 (당황하지만) 아, 이것저것 공부하고 있다

고. 내 공부 머리 못 믿어?

선숙 그래 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나? 방에 처박혀서 허구한 날 게임만 할 거야? 멀쩡한 회사 때려치우고 주식으로 퇴직금 다 날리고, 영원히

된지 만드네 마네. 그것도 하는 등 마는 등. 이젠

뭘야? 집에 처박혀 그놈의 게임만 하다 죽을 거

야? 네 애비처럼 그렇게 네 멧대로 살 거냐고!

15

20

선숙 아들 아버지가 집을 왜 나갔는데? 엄마가 얼마나 피를 말렸으면 집을 나갔겠냐고!
선숙 뭐, 피를 말려? 내가 너 하나 잘 키우겠다고 얼마나 개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5 선숙 아들 그러니까 제발 나 좀 가만 놔두라고요!
아들, 문을 광 달고 들어가 버리고 선숙은 후들거리는 다리로 겨우 신발을 신는다. 공간은 편의점 앞으로 바뀌고 선숙이 한숨을 푹 쉬며 편의점에 들어서는데, 바지런히 일하고 있는 독고의 모습이 보인다.
10 독고 오셨어요.
선숙 창고에 들어가 편의점 조끼로 갈아입고 나온다. 그리고는 계산대로 간다.
선숙 인수인계 특이 사항은요?
15 독고 없어요.
선숙 확실하죠?
독고 (굵직이며) 세상에…… 확실한 건 없어요.
선숙 (소리 지르며)** 독고 씨, 지금 나랑 세상 이치 따지자는 거예요?
20 독고 전 그저…… 제 생……각을…… 죄송……합니다.
독고, 퇴근하기 위해 창고로 가고 선숙, 참았던 울음이 알

락 쏟아진다. 서둘러 나온 독고가 주머니에서 휴지 뭉치를 꺼내 선숙에게 준다. 그리고는 옥수수차를 꺼내 컵에 따라 내민다.
독고 속상할 땐 옥수수…… 옥수수차 좋아요.
선숙, 의아함을 느끼지만 옥수수차를 받아 벌컥 들이켠다. 잠시 후.
선숙 아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체 왜 안정적인 직장을 때려치우고 주식이니 영화 제작이니……. 우리 아들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죠? 예?
10 독고 그게…… 아직 젊잖아요.
선숙 서른이라고요, 서른! 인간 구실 못 하는 서른 살 백수나 다름없다고요.
독고 그런데 아들이랑 이야기는…… 해 봤어요?
선숙 내 말 따위 듣지도 않아요. 수없이 불잡고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아들은 날 무시하고 진절머리¹ 내고 피하죠.
독고 먼저…… 들어 보세요. 지금 보니까 아들이 마, 말을 안 듣는다고만 하는데…… 선숙 씨도 아들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20 선숙 뭐라고요?
독고 지금 내 말은 잘 들으시는데…… 아들 말도 들어 봐요. 왜…… 회사를 그만뒀는지…… 왜 주식을 했는지…… 왜 영화를 했는지…… 그런 거 말이에요.

1 진절머리
몹시 실증이 나타나 귀찮아 떨어져서 몹짓을 뜻하는 '진저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

* 선숙과 아들이 갈등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 선숙은 독고에게 왜 소리를 질렀을까?

선숙 들으면 뭐 해요! 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해 버리고 망한 건데. 이제 나한테 말도 안 한다니까요!
독고 그래도 말을 한 적이 있긴…… 있을 거 아니예요?
5 선숙 휴……, 벌써 3년 전이네요. 그 좋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길래 노발대발했죠².
독고 왜 그만둔 건지 그래서…… 알아요?
선숙 모른다니까.
독고 다시 물어봐요. 왜…… 그만둔 건지. 뭐……
10 힘들었는지. 선숙 씨 아들만이 알잖아요. 선숙 씨 아들 일이니까…… 알아야 하고요.
선숙 들어 왔다가는 진짜 그만둘까 봐 옥박지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질러 버리더라고. 지 아빠가 갑자기 가축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이야.
15 독고 (미소) 겁나셨구나. 아들이…… 아버지처럼 될까 봐.
선숙 내 말이 그거예요. 아들만큼은 다르게 큰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아들은 아무것도 몰라주고…… 맨날 방에서 게임만 하고……. 내가 잘못 키웠나 봐요……. 으흠. (잠시) 내가 말이 너무 많았죠? 너무 힘들어서……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독고 씨가 들어 줘서 좀 풀린 것 같아요. 고마워요.
20 독고 그거예요.
25 선숙 뭐가요?
독고 들어 주면 풀려요. 아들 말을 들어 줘요. 그러면…… 풀릴 거예요. 조금이라도. (삼각김밥 2+1

2 노발대발하다
몹시 노하여 팔팔 뛰며 성을 내다.

세트를 주며) 아들 갖다줘요.
선숙 아들한테요? ……왜?
독고 아들 게임할 때…… 줘요.**³ 편지…… 같이 줘요. (3천 원을 꺼내며) 내가 사는 거예요. 어서…… 적어요.
5 계산을 마치자 독고는 씨익 웃으며 편의점을 나가고 선숙, 결심한 듯 종이와 펜을 꺼내 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간다. (종락)
경만이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야외 탁자에 옥수수차가 놓여 있다. 경만, 그 옥수수차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선다. 딸랑. 그런데 아무도 없다.
10 경만 (안절부절) 당장 마시고 싶은데……. (창고에서 독고 나오며 경만을 보고 상긋) 잘 지내셨어요?
독고 어…… 예. 잘…… 지내셨죠?
경만 예, 덕분에. 얼마죠?
15 독고 공짜입니다.
경만 왜요?
독고 덕 드리려고…… 놔둔 거니까요.
경만 그러니까 왜요?
20 독고 옥수수차 이거 슬만큼 중독성이 있어…… 매일 두 개 세 개 드시면…… 우리 가게 매출에 좋잖아요. 미, 미끼 상품인 거죠.
경만 고맙습니다.
독고 대신 이거 좀…… 사 가지 그러세요.

** 독고가 선숙에게 아들이 게임을 할 때 삼각김밥을 주려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

경만 왜요?
독고 (경만 앞에 초콜릿을 내민다.) 청파동에서 아주 똑같이 고운 아이 둘이…….

5 경만 초콜릿 두 개를 집어 계산대에 올리고는 카드를 내민다.

독고 (계산하며) 이 초콜릿을 엄청 좋아하는데…… 언제부터가 안 사고…… 초, 초코우유 1+1만 사더라고요.

경만 ……그래서요?

10 독고 애들아, 이거…… 어, 얼마 한다고. 엄마한테 사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경만 뭐라고 했는데요?

15 독고 아빠 힘들게 돈 버니까…… 돈 아껴 써야 한다고…… 편의점에 가면…… 1+1만 사라고……. 거참, 애들이 참…… 잘 컸다 싶었죠.

경만 …….*

독고 어제부로 이 상품 다시…… 1+1 됐으니까, 오늘은 아버지가 사 가시면…… 되고, 내일부턴 딸들보고…… 사러 오라고 하세요.

20 경만 ……저 술 끊었어요, 이놈 덕분에. 감사합니다. (초콜릿을 들며) 좋아하겠네요.

경만, 차마 독고를 쳐다보지 못하고 눈물짓는다. 이때 딸랑. 인경 들어온다. 인경, 두 사람을 오묘하게 쳐다보는데 민

망해진 경만이 초콜릿을 주머니에 넣고 꾸뻑 인사하고는 서둘러 나간다.

인경 저분 아세요?

독고 다, 단골인데요.

인경 뭐 하는 분이신데요? 5

독고 ……참참참 좋아하시는 분이죠.

인경 참참참요? (놀라며)

독고 참○ 라면 컵라면이랑…… 참치김밥이랑 참○○ 소주…… 그것만 드세요.

인경 그래서…… 참참참? 10

독고 그렇죠. 참참참.

인경 그런데 좀 전에 그분 우시는 것 같던데.

독고 제가 술 그만 드시고 이거…… 옥수수차 드시라 했거든요…….

인경 옥수수차요? 왜요? 15

독고 술 대신 먹기 좋아요…….

인경 아니, 그렇다고 우신다고요? 혹시 강매하신¹ 건 아니죠?

독고 …… (씨익)

인경 아저씨 원래 뭐 하던 분이세요? 20

독고 그거…… 물어보러 오신 거예요?

인경 아, 물건. 살게요. 산다고요.

인경, 참참참 세트와 옥수수차를 계산대에 내려놓는다.

인경 자, 여기 저도 참참참! 아저씨, (오른팔에 힘을

잔뜩 주며) 원래 힘깨나 쓰던 사람이었어요?

독고 아, 아노.

인경 그럼 교도소 같은 데 다녀와 갱생하는 중이예요?

5 독고 봉투 드려요?

인경 네. 아니면, 기러기 아빠?

독고 그것도 아닌데요.

인경 아, 명퇴! 요새 희망퇴직이니 해서 이른 명퇴가 많더니. 맞죠?

10 독고 5,050원이에요.

독고 물건이 담긴 비닐봉지를 내민다. 인경, 받지 않는다.

인경 그럼 정체가 뭐예요, 도대체? 저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예?

독고 노숙자였어요.

15 인경 앵? 서울역 노숙자요?

독고 ……예.

인경 그 전엔요?

독고 그, 그 전엔…… 몰라요. 술 너무 마셔 치매 왔어요.

20 인경 알코올성 치매라……. 그럼 노숙을 몇 년 한 거예요?

독고 그것도 잘…… 몰라요.

인경 아니, 그럼 여긴 어떻게 취직한 건데요? 어떻게 여기서 일하게 되신 거냐고요.

25 독고 그제…… 사장님이 날 추운데 서울역에 있지

말고…… 여기서 겨울 나라고 해 주셔서…… 하게 됐어요.

인경 우아! 우아아! 아저씨, 진짜 기억이 없다 이거죠? 와…… 이걸 미담²이라고 해야 하나?

독고 예. 5

인경 (번득) 아저씨, 알코올성 치매에는 대화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독고, 뚱하다.) 아니, 대화를 많이 해야 기억이 활성화된다고요.

독고 5,050원이에요.

인경 그럼 이렇게 합시다. 새벽마다 수다 좀 떨어 10
요, 저랑! (인경, 아이스크림 가져온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아저씨, 저 갈게요. 참,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독고 독고.

인경 독고…… 오, 느낌 있어……. 내일 배요! (딸랑) 15

짧은 암전.** 음악.

인경 (계산대 의자를 빼서 앉는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질문. 아저씨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것 같아요?

20 독고 음……. 확실한 거는…… 나는 원래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런 따뜻한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인경 따뜻한 기억이라면…… 무얼 말하는 거죠?

독고 지금처럼 허물없이 대화를 나누는 거냐 하는 거요…….

인경 참참참 드시던 분하고도 친하신 거죠? 25

* 경만이 독고의 말에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

1 강매하다
남에게 물건을 강제로 떠맡겨 팔다.

2 미담
사람을 감동시킬 만큼 아름다운 내용을 가진 이야기.

** 극의 흐름에서 짧은 암전은 어떤 기능을 할까?

독고 편의점에서 일하며…… 사람들과 친해진 거 같아요. 진심 없이 그냥 친절할 적만 해도 친절해 지는 것 같아요.

인경 그 얘기 좋은데요? 내가 좀 써도 될까요?

5 독고 이미 쓰고 있잖아요…… 거기 수첩에…….

인경 아니, 내 작품에 쓴다고요. 나 극작가라고 말 씬드렸잖아요. (인경, 계산대 의사 정리한다.)

독고 마, 맛다. 연극 대본 쓴다고 했죠? 그럼 나 도…… 나오는 건가요?

10 인경 그냥 뭐 스케치¹ 같은 거니까……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아저씨가 저한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글쓰기를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덕분에 힘이 났거든요.

독고 도움이라니…… 좋네요.

15 인경 아저씨, 오늘도 즐거웠어요. 다시 올게요. (탈랑) (인경, 편의점 야외 탁자로 나간다.)

인경 (전화 중) ……실은 작가 생활을 끝내려고 토지 문학관²에 갔던 건데. 거기서 교수님을 만나 마음의 여유도 조금 갖게 됐고, 덕분에 마지막으로 희곡 한 번 더 써 보고 싶어졌어요. 빌려주신 이 집필실도 큰 도움이 됐고요. 아…… 그리고 희수 쌤, 문학관에서 산책하며 해 주셨던 말 기억하세요? 밥 달린³의 외할머니 이야기…….

S#6. 올웨이즈 편의점 앞 거리

1 스케치
어떤 사건이나 내용의 전모를 간략하게 적음.

2 토지 문학관
소설가 박경리의 작품 「토지」를 주제로 만든 문학관. 문학관 내 창작실을 문인과 예술인에게 개방하여 창작 활동에 진념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3 밥 달린
미국의 가수, 작가, 화가.

♪ 노래_ 밥 달린 외할머니 이야기 - 인경*

행복은 뭔가 얻으려고 가는

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 자체가 행복이란다

네가 만나는 사람은

모두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

그러니 친절해야 해

그러니 친절해야 해

인경 그 이야기가 위로가 많이 됐어요, 희수 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인경은 편의점 앞 거리에 앉아 있고, 김 대표는 사무실에서 인경에게 전화를 건다. 김 대표가 객석의 문에서 등장한다.**

인경 어보세요.

김 대표 정 작가. 올해도 다 갔네. 연말인데 잘 지 내나 궁금해서.

인경 작년 연말에는 안 궁금하셨어요?

김 대표 작년에는 전화해도 안 받을 것 같으니까 못 했지. 벌써 2년이다. 이제 화 좀 풀렸어?

인경 용건이 뭔데요? 대표님이 어디 용건 없이 전화하는 사람인가…….

* 인경의 노래는 극에서 어떤 기능을 할까?

** 김 대표가 무대가 아닌 객석의 문에서 등장한 까닭은 무엇일까?

김 대표 하여튼. 알았어. 정 작가 각색⁴ 하나 해 봐. 내가 소설 판권 하나 산 게 있거든.

인경 각색이요? 됐어요.

김 대표 일단 한번 읽어 봐. 술술 읽히고 재밌어.

5 인경 아뇨. 안 읽을게요.** 읽으면 하고 싶을 것 같아서.

김 대표 오랜만에 연락해 제안하는 거다……. 이러면 서운하지.

인경 대표님, 사실 저 절필할지도⁵ 몰라요. 그래서

10 김 대표 야, 정인경! 너 배우도 은퇴한다, 작가도 때려치운다……, 너 진짜 대학로⁶ 뜰 거야?

인경 더 이상 20대 배역은 어렵지 않겠냐며 자발적 은퇴를 강요하신 게 누군데요?

15 김 대표 그러니까 각색하라니까.

인경 됐다고요. 지금 4개월째 틀어박혀 마지막 작품 구상하는 중이에요.

김 대표 그래서 톨톨한 것 좀 나왔어? 혹시 엉뚱한 공상만 하고 있는 것 아니니?

20 인경 구상 다 끝났거든요! 쓰기만 하면 된다고요.

김 대표 그래? 그럼 한번 읽어 봐.

인경 미리 털면 부정 타요. 됐습니다.

김 대표 뭐길래 이래? 정 작가, 말해 봐. 괜찮으면 자기 것 먼저 할게.

25 인경 그제…….

4 각색
서사시나 소설 따위의 문학 작품을 희곡이나 시나리오로 고쳐 쓰는 일.

*** 인경이 김 대표의 각색 제안을 거절한 까닭은 무엇일까?

5 절필하다
붓을 놓고 다시는 글을 쓰지 아니하다.

김 대표 있긴 있어? 그냥 내가 말한 각색 그거 하자. 인경 (편의점을 보며) 편의점. 편의점 이야기예요.

김 대표 편의점?

인경 독고를 관찰한다. 독고, 인경이 훑쳐보는 것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

인경 무대는 편의점이에요. 온갖 인간들이 드나드는 편의점. 주인공은 편의점의 밤을 지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야간 알바고.

김 대표 음…….

인경 이 야간 알바는 중년 사내인데 자신의 과거를 몰라요. 알코올성 치매가 왔거든요. 손님들은 이 중년 사내의 정체를 자기들끼리 추측하죠. (독고를 보면서) 명퇴자에서 심지어 외계인까지!

김 대표 야, 외계인은 지나치지.

인경 아, 좀! 그런데 이 사내는 손님들에게 낯선 상품을 추천하고……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사내가 추천하는 상품을 사고 나면 고민이 해결되는 거예요.

김 대표 「심야 식당」⁷이잖아!

인경 아, 편의점이라고요.

김 대표 발끈하긴. 누가 뭐래?

인경 이 이야기는 이 주인공 야간 알바의 정체를 알아 가는 게 핵심이에요. 사내의 과거가 회상 장

6 대학로
서울에 있는 공연 문화 예술의 거리.

7 심야 식당
요리를 소재로 한 일본 만화. 밥 열두 시부터 아침 일곱 시까지 열리는 작은 식당에,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찾아와 배편만 아니라 마음을 채워 간다는 내용이다.

면으로 교차하며 등장할 거고, 그 편의점에서 일해야만 하는 이유도 알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내는 그 편의점에서 밤새 기다려야 해요, 무언가를.

5 김 대표 물건 들어오는 것 기다리겠지.

인경 아, 좀 좀! 「고도를 기다리며」 같은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깨닫길 기다리는. 늦은 밤에 오는 단골손님과 얘기도 나누고 중간중간 찹찹도 하면서.

10 김 대표 찹찹? 게임도 해?

인경 있어요. 일종의 패키지. 찹○ 라면에 찹치김밥에 찹○○.

김 대표 괜찮은데, 그거? 간접 광고 딸 수 있겠다.

인경 맞아요. 아, 그리고 여자 작가도 나와요. 밤마다 와서 이 야간 알바한테 말을 붙여요. 미스터리 하니까. 작가의 호기심이라고나 할까?

15 김 대표 그거 너지?

인경 (야의 탁자에 앉는다.) 아니거든요. 이 여자 작가는 처음엔 이 편의점을 되게 싫어해요. 좋아하는 물건도 거의 없고……. 새벽에 끼니 때우러 먼 데 갈 수 없으니까 불편해서 가는 거죠.

김 대표 정인경. 인경아.

인경 왜요?

김 대표 나랑 그거 하자.

25 인경 (정색) 왜요? 아직 시작도 못 했는데요.

김 대표 다 썼네. 머릿속에서. 그거 내년에 올리자. 그거 네 마지막 작품 아니야. 그 작품 올리면 다음 것 또 온다.

인경 ……진짜? (통박스럽게)

김 대표 응.

인경 뭐죠? 나 진짜 버랑 끝인데……. 대표님이 너무 쉽게 받아서 이상하거든요.

김 대표 내일 제목만 써서 가져와. 원래 계약서 쓰야 글도 써지는 거야.

인경 김 대표님.

김 대표 왜?

인경 고마워요, 진심.

김 대표 내가 바보냐? 이거 괜찮아. 네 목소리에서 간절함도 느껴지고……. 잘 쓸 것 같아.

인경 나 원래 잘 썼습니다.

15 김 대표 (객석의 문으로 가며) 칭찬하기가 무섭다. 그래서 제목은 뭐야?

인경 제목이요?

김 대표 그래, 작품 제목.

인경 음……. 편의점인데요, 아주 불편한…… 그래 20
서…… 불편한 편의점.

암전. 음악.

— 극단 지우



1 고도를 기다리며

극작가 사무엘 베케트가 지은 2막 희곡. 인간의 삶을 단순한 기다림으로 정의하고, 그 끝없는 기다림 속에 나타난 인간 존재의 부조리성을 보여 주는 작품.

작가와의 대화

김호연

소설가

1974~

2013년 『망원동 브라더스』로 세계 문학상을 받으며 등단했다. 영화, 만화, 소설을 넘나들며 여러 이야기를 써 나가고 있다. 『연적』, 『고스트 라이터즈』, 『파우스터』 등을 썼다.

홍현우

연출가

1974~

연극학을 공부하고, 연극을 가르치면서 공연 연출을 하고 있다. 연극 『망원동 브라더스』, 『체움, 여자를 읽다』, 『연적』 등을 각색·연출했다.



원작 소설 『불편한 편의점』이 많은 독자에게 사랑을 받아 온 만큼 수많은 감상 평은 각색자의 '선택과 집중'에 가장 훌륭한 조인자였습니다. 또한 주인공인 독고에 대한 생기 있는 의견들이 독고의 캐릭터를 상상하고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국 독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제 방식으로 작업에 녹이는 것이 희곡 『불편한 편의점』을 완성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었고,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소통의 의미'를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불편한 편의점』을 감상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질문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답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든 질문으로 『불편한 편의점』을 더 따뜻하게 해 주세요.

선숙과 그의 아들처럼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 주지 않아 힘들었던 적이 있었나요? 혹은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는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있었나요?

경만에게 '찹찹'은 자신을 위로해 주는 유일한 음식이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위로 혹은 용기를 낼 수 있게 해 주는 편의점 음식이 있나요?

Blank area for user response to the first question.

Blank area for user response to the second question.

내가 만든 질문

학습 활동

1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대사나 행동을 찾고 그들을 소개해 보자.



1 독고: 알코올성 치매에 걸린 서울역 노숙자 출신.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 줌.

2 선숙:

3 인경:

4 경만:

2 작가가 이 작품의 주요 배경을 야간의 편의점으로 설정한 까닭을 짐작해 보자.

3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이 작품의 인물들이 갖고 있던 고민이 해결되는 과정을 파악해 보자.

“등장인물들이 편의점에서 상품을 얻거나 사고 나면, 고민이 해결된다!”

	선숙	경만	인경
인물이 얻거나 구입한 상품			
상품에 담긴 의미			독고에 대한 경계를 풀고 독고의 이야기를 듣는 계기가 됨.
고민 해결 방법	선숙이 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됨.		

4 다음은 소설 『불편한 편의점』에서 독고가 편의점 주인 영숙과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다. 이를 회곡 형식으로 고쳐 쓰고, 소설과 회곡의 차이점을 말해 보자.

“그쪽 도움 받으려고 일부러 지갑을 잃어버리라고요?”

“아뇨..... 잃어버리면 안 되고..... 아무튼 뭐든..... 도움 거 있으면..... 말해요.”

영 여사는 기특한 마음과 허탈한 기분이 동시에 들었다.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할 정도로 도움이 절실하진 않다. 아니면 그에게도 우리 편의점이 한심해 보이는 걸까? 그녀는 독고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화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독고 씨, 먼저 스스로를 도우세요.”

그가 연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소설은 서술자가 있어서 등장인물의 심리나 성격을 묘사하고 해설하는구나.



인물과 사건 구성하기

인물의 특성과 인물을 둘러싼 사건을 상세하게 고민할수록 풍부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 내가 평소에 편의점을 이용하며 있었던 사건이나 마주친 사람을 떠올려 본다.

5-1 활동지



5 이 작품에 새 손님을 추가하고 그 인물과 관련한 사건을 구성해 보자.

1 새 손님이 어떤 인물인지, 그 인물을 둘러싸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자.

인물의 이름, 나이, 성별, 직업은?	인물의 성격은?
인물이 이 편의점에 오는 까닭은?	인물의 고민이나 문제점은?
독고가 인물에게 추천하는 상품은?	인물의 고민이나 문제점이 해결되는 방식은?

2 1의 인물과 사건을 만든 의도를 친구에게 설명하고 친구의 의견을 들어 보자.

3 1, 2를 바탕으로 새 인물과 관련한 이야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줄거리를 정리해 보자.

5-2 활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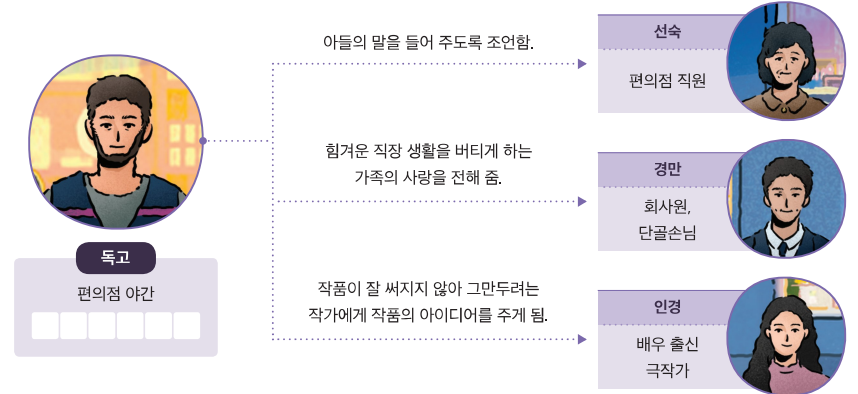


소단원 마무리



해당하는 표정에 표시하여 나의 이해도를 점검해 보자.

1 「불편한 편의점」 내용 정리



2 「불편한 편의점」에 드러난 극 갈래의 특성

- 극 갈래는 연극, 영화, 방송극 같은 예술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 양식으로,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을 보여 주고 주제 의식을 드러냄. 대표적인 갈래로 희곡과 시나리오가 있음.
- 희곡 「불편한 편의점」은 편의점에 드나드는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따뜻한 인간애를 느끼게 함.



3 「불편한 편의점」에서 살펴본 구성의 유기성과 맥락

구성 요소와 주제 의식	주요 맥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삶에 어려움이 있는 인물들을 설정하여, 이들의 문제를 극 중에서 해결함. 작은 동네에 있는 아간의 편의점은 힘든 하루를 마친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간으로, 누구나 겪을 법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함. 연극 중간에 <input type="checkbox"/> 을/를 삽입하고 초콜릿, 참참참 세트 등의 상품을 활용하여 극의 재미와 사실감을 더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 <p>▶ 주제 의식: 공감과 위로를 통한 관계 회복</p>	<p>독자 맥락: 평소 편의점을 이용하며 있었던 일, 마주친 사람 등을 떠올리며 작품을 수용함.</p>



「수오재기」는 필자가 큰형의 서재 이름을 보고 그것을 소재로 쓴 고전 수필이다. 필자의 경험을 따라가는 동안 내가 지켜야 할 '나'의 모습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

- 소단원** | · 형상화 방법의 특성을 고려하며 교술 갈래의 작품을 수용한다.
학습 목표 | · 작품 구성 요소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에 유의하여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한다.

(4) 수오재기

정약용

5 수오재(守吾齋), 즉 '나를 지키는 집'은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 그 이름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며, "나와 단단히 맺어져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다.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라고 생각했다.

장기²로 귀양 온 이후 나는 홀로 지내며 생각이 깊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환히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별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집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동산의 꽃나무와 과실나무 들을 뽑아 갈 수 있겠는가? 나무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다. 내 책을 훔쳐 가서 없애 버릴 수 있겠는가? 성현³의 경전은 세상에 퍼져 물과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내 옷과 양식을 도둑질하여 나를 궁색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천하의 실이 모두 내 옷이 될 수 있고, 천하의 곡식이 모두 내 양식이 될 수 있다. 도둑이 비록 훔쳐 간다 한들 하나둘에 불과할 터,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다 없앨 수는 없다. 따라서 천하 만물 중에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유독 이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며 출입이 무상하다⁴.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가고, 위협과 제앙으로 겁을 주면 떠나가며, 질탕한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미인의 예쁜 얼굴과 요염한 자태만 보아도 떠나간다. 그런데 한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잡아 만류할⁵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으로는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러니 공공 무고

1 큰형님
필자의 큰형인 정약현을 가리킴.

2 장기
경상북도 포항시 장기면.

3 성현
성인(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나 길이 우리에게 본받을 만한 사람)과 현인(어질고 현명하여 성인에 다음가는 사람)을 아울러 이르는 말.

4 무상하다
일정하지 않고 늘 변하는 데가 있다.

5 만류하다
붙들고 못 하게 말리다.

자물쇠로 잠가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은 사람이다. 어렸을 때는 과거 시험을 좋게
 5 여겨 그 공부에 빠져 있었던 것이 10년이다. 마침내 조정의 벼슬아치가 되어 사모관대¹
 에 비단 도포²를 입고 백주 도로를 미친 듯 바쁘게 돌아다니며 12년을 보냈다. 그러다 갑
 자기 상황이 바뀌어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한강을 건너고 문경 재재를 넘어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때 ‘나’도 땀을 흘리고 숨을
 10 물어쉬며 허둥지둥 내 발뒤꿈치를 쫓아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나는 ‘나’에게 말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어우나 도깨비에게 흘려서 왔는가? 바다의 신이
 불려서 왔는가? 너의 가족과 이웃이 소내³에 있는데, 어쩌서 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그러나 ‘나’는 멍하니 꿈쩍도 않고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안색을 보니 마치 얽매인
 15 게 있어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는 듯했다. 그래서 ‘나’를 붙잡아 함께 머무르게 되
 었다.

이 무렵, 내 둘째 형님 또한 그 ‘나’를 잃고 남해의 섬으로 가셨는데, 역시 ‘나’를 붙잡
 20 아 함께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다.

유독 내 큰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편안하게 수오재에 단정히 앉아 계신다. 본디
 부터 지키는 바가 있어 ‘나’를 잃지 않으신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 이름을 ‘수오’라고 붙이신 까닭일 것이다. 일찍이 큰형님이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의 자(字)⁴를 태현⁵이라고 하셨다. 나는 홀로 나의 태현을 지키려고 서
 25 재 이름을 ‘수오’라고 하였다.”

이는 그 이름 지은 뜻을 말씀하신 것이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일인가? 자신을 지키는 것이 큰일이
 다.”라고 하셨는데, 참되도다, 그 말씀이여!

드디어 내 생각을 써서 큰형님께 보여 드리고 수오재의 기문⁶으로 삼는다.

— 박혜숙 번역, 『다산의 마음』

1 사모관대
 옛날 벼슬아치들이 관복을 입을 때
 에 쓰던 모자와 조정에 나아갈 때 입
 던 제복을 아울러 이르는 말.

2 도포
 예전에 통상에복으로 입던 남자의
 겹옷. 소매가 넓고 등 뒤에는 띠 폭
 을 낸다.

3 소내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농내
 리 마천 마을.

‘나’를 붙잡아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
 는 말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4 자(字)
 본이름 외에 부르는 이름.

5 태현
 ‘심오하고 현묘한 이치’를 뜻하는 말.

6 기문
 기록한 문서.

작가·전문가와와의 대화



정약용 **Q** **학자** 1762~1836

문장과 경학(經學)에 뛰어난 학자로, 유흥원과 이익 등의 실학을 계승하고 집대성하였다. 신유박
 해 때 전라남도 강진으로 귀양 갔다가 18년 만에 풀려났다. 『목민심서』, 『흙흙신서』 등을 썼다.

—
 행동과 말과 안색을 바르게 하는 것이 학문의 첫 출발점이다. 진실로 이 세 가지에
 힘을 쏟을 수 없다면 아무리 재주가 탁월하고 지식이 출중해도 끝내 어디에도 발붙
 이고 서 있을 수 없다. 그 폐단으로 인해 어긋난 말을 하고, 거칠게 행동하고, 도적이
 되고, 큰 잘못을 저지르고, 이단과 잡술에 빠져 멈출 줄을 모르게 될 것이다.

나는 서재에 ‘삼사(三斯), 즉 ‘이 셋’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었다.

— 박혜숙 번역, 『다산의 마음』

박혜숙 **Q** **국문학자** 1959~

이 땅에 살았던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매우 귀중한 공
 부라고 여기며, 한국 고전 문학을 연구하고 있다. 『한국 고전 문학의 여성적 시각』, 『한국 한시의
 장르적 시각』 등을 썼다.

—
 정약용은 신유박해에 연루되어 죄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형제와 친구를 잃었고,
 가족과도 헤어져 유배지에서 고통과 고독을 견뎌야 했습니다. 외견상 그의 삶은 끝
 났습니다. 『수오재기』는 이런 상황에서 쓴 글입니다. 현실의 좌절과 고통, 억울함과
 슬픔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성찰하며 지
 난 40년의 인생이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제 진정한 나를 찾을 기회가 주어졌 것이라 여기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수오재기」를 감상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질문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답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
 분이 만든 질문으로 「수오재기」를 더 깊게 해 주세요.

정약용은 자신이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허투루 간수한다는 것은
 정약용의 경우와 여러분의 경우 각각 어떤 것일까요?

땅이나 집, 옷과 음식은 우리 생활에 매우 필요한 것들인데도,
 그것을 꼭 지킬 필요는 없다고 한 정약용의 말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가 만든 질문

학습 활동

1 필자가 장기로 귀양 오기 전과 후에 '수오재'라는 큰형의 서재 이름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써 보자.



2 '나를 지키는 것'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 바뀌게 된 과정을 정리해 보자.

1 필자가 천하 만물에 대해 스스로 물은 내용에 어떻게 답했는지 적어 보자.

밭, 집, 나무를 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가?	→	
책을 훔쳐 가서 없애 버릴 수 있는가?	→	
옷과 양식을 도둑질하여 나를 궁색하게 만들 수 있는가?	→	

2 필자가 지켜야 할 것이 '나'뿐이라고 깨닫게 된 근거를 찾아보자.



3 이 작품의 표현 방법상 특징을 파악해 보자.

1 필자가 다음 물음을 자신에게 던진 것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말해 보자.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왔는가? 바다의 신이 불러서 왔는가? 너의 가족과 이웃이 소내에 있는데, 어째서 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2 필자가 큰형의 말과 맹자의 말을 인용한 까닭을 추측해 보자.

4 다음 작품을 읽고 진짜 나의 모습을 소재로 하여 작품을 창작해 보자.

나는 산책자이면서 수집자이다. 아니, 수집보다는 '줍줍'이라는 사전에 없는 낱말이 더 어울리겠다. (견다가) 줍(고) (견다가 또) 줍(고).

역시 쓸모 있는 물건인 경우는 드물다. 벌레 먹은 잎, 열매, 나무껍질, 돌멩이, 조가비—누군가는 쓰레기로 여길— 같은 것들을 다람쥐나 들쥐 뺨치게 줍는다. 그래서 집을 나서기 전에는 주머니도 꼭 챙겨야 한다. 동물 친구들처럼 볼 속에 육여넣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작고 어여쁜 자연의 물건들은 가져와서 요모조모 보다가, 보관함에 넣어 두거나 일부는 본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낸다.

그런가 하면, 오직 귀를 가만히 열어 줍는 것도 있다. 소리와 말이다. 바람, 물, 날개, 낙과가 만드는 다채로운 소리.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말.

여주를 심기에는 너무 늦었지. 물이 뛰는데 안 뛰어요. 언제까지 미안하지만 할 건데? 사브사브 같은 놈. 같이 굶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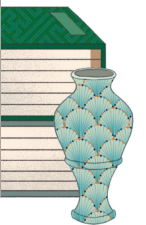
걸으면서 하나씩 줍는 말이라 앞뒤 맥락은

알 수 없다. 맥락을 모를 때, 말이 맥락에서 이탈할 때, 말속의 희비극이 돌연 짙어지는 것을 느낀다. 나는 어떤 말에는 피식 웃고, 어떤 말에는 마음이 무거워진다. 몇 개는 집까지 가져와 노트에 옮겨 둔다. 내 노트에는 주워 온 말이 가득하고, 그것 역시 내가 가져거나 다시 돌려보낸다.

눈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는 나의 산책 동선은 직선이 아니다. 모든 방향을 만끽하고 싶은 나비처럼 나선을 만들어 움직인다. 그러나 산책 시간이 특하면 길어지고 만다.

견다가 죽어 가는 벌레 곁에 있어 주고, 창을 내다보는 개에게 인사하고, 고양이와 코딱지를 파 주며 탕진하는 시간이 나는 부끄럽지 않다. 그 시간의 나는 진짜 '나와 가장 일치한다. 또한 자연이나 스치는 타인과도 순간이나마 일치한다. 그 일지에 나의 희망이 있다. 부조리하고 적대적인 세계에서 그러한 검침마저 없다면, 매 순간 훼손되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견딜까.

— 한정원, 「언덕 서너 개 구름 한 점」



1 이 작품에 나타난 필자의 경험과 그에 따른 정서 및 깨달음을 정리해 보자.

경험	정서 및 깨달음

2 내가 보내는 시간 중에서 진짜 '나'와 가장 일치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때는 언제인지 떠올려 보자.

3 2에서 나타나는 진짜 '나'의 모습에 대한 경험과 깨달음이 잘 드러나는 글을 써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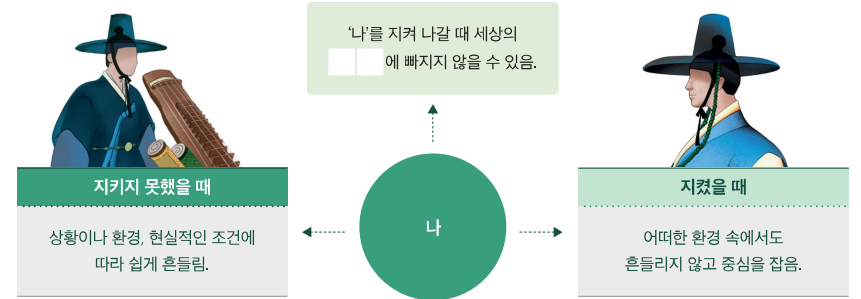


소단원 마무리



해당하는 표정에 표시하여 나의 이해도를 점검해 보자.

1 「수오재기」 내용 정리



2 「수오재기」에 드러난 교술 갈래의 특성



- 교술 갈래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글쓴이의 체험, [] 을 기록하여 독자에게 전하는 문학 양식이다. 교술 갈래에는 설(說), 기(記), 가사, 일기, 편지, 수필, 기행문 등이 있다.
- 「수오재기」는 '기'에 해당한다. '기'는 어떤 사건이나 경험의 과정을 기록한 것으로, 독자에게 교훈이나 깨달음을 주려는 목적을 지닌 글이다.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님의 서재 이름을 봄. • 유배지로 귀양을 떠남.
깨달음	서재에 '수오재'라는 이름을 붙인 형님의 뜻을 깨달음.

3 「수오재기」에서 살펴본 구성 요소의 유기성과 맥락



구성 요소와 주제 의식	주요 맥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오재'라는 서재 이름을 의아하게 여겼다가, 천하 만물 중에 지킬 것은 [] '였음을 깨달음. • 자신이 품었던 의문에 대해 계속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함. • 자문자답 형식으로 자신의 깨달음을 전하고, 맹자의 말을 [] 하여 그 깨달음을 강조함. <p>▶ 주제 의식: 참된 자아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p>	<p>작가 맥락: 필자가 살았던 시대, 신유박해 등 처했던 상황과 관련하여 작품을 수용함.</p>

깊고 넓게 읽기

❓ '나'는 이야기의 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삶의 발명

정혜윤

삶은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과 관련된 것이고 모든 생명체는 모두 자기 나름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인간젠가 우리는 모두 이야기 속으로 사라진다.

내 평생 가장 많이 해 온 말이 있다.

“그 이야기 참 좋다.”

이 말의 힘을 나는 백 퍼센트 믿는다. 이야기가 좋으면 나도 모르게 감탄하면서 마음이 환해진다. 감탄할 때 현실이 달리 보였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란 게 분명 존재한다고 느껴졌고, 사는 것이 더 재미있어지고 더 좋아지고 내가 뭘 해야 할지도 알 것 같았다. 그때는 세상은 따라 해야 할 일투성이로 보였고 세상 또한 사랑할 만한 것으로 보였다. 감탄 속에 있을 때 나는 잘 살고 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왜 사는지 잘 모르겠다. 어디에 마음을 뒀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힘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다르게 시작하는 이야기가 있어.”

공허할 때는 이렇게 말한다.

“다른 이야기가 필요해.”

지겨울 때도 그렇게 말했다. 변화가 필요할 때도 그렇게 말했다.

선택이 어려울 때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만이 되고 싶어?”

말을 해야 할 때는?

“어떤 이야기를 살아 있게 하고 싶어?”

가장 삭막한 사이는?

“만나도 할 이야기가 없는 사이.”

사랑한다는 것은?

“오로지 그 사람 이야기만 하고 싶어 하는 것.”

나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걸 빼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것.”

행복할 때는?

“내가 찾고 기다리던 이야기를 만나는 것.”

「삶의 발명」은

반복하는 일상 속에서 '나'를 조금 더 앞으로 가 보게 해 주는 이야기의 힘에 대해 쓴 글이다. 나의 삶에는 이야기가 얼마나 관여하는지 생각하며 글을 읽어 보자.

내가 나 자신을 발견하고 싶은 곳은?

“좋은 이야기 속.”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법은?

“적어도 내가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는지 안다.”(나는 있을 법하지 않은 이야기를 좋아한다.)

최선의 나로 사는 법은?

“감탄한 이야기에 나를 결합시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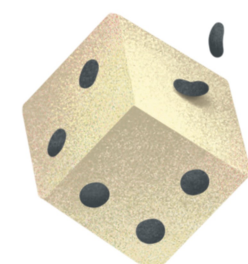
사는 동안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은?

“자신의 이야기를 찾고 만나고 만드는 것.”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동물로 진화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가 아니면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해하고 나눌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야기는 공동체로서 좋은 이야기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야기하는 공동체로서 좋은 이야기를 돌려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없다.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들려주는 이야기는 내적 정체성의 핵심이다.

나에게 삶은 좋은 이야기를 찾는 과정이나 다름없었다. 내가 마음으로 언제나 불러낼 수 있는 이야기들은 에너지로 변해 나를 내 자아 바깥으로 끌고 나오고 움직이고 살아 있게 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많은 에너지는 이야기가 변신한 것이나 다름없다. 영향을 받는 이야기, 의미를 두는 이야기가 바뀌면 에너지의 방향이 바뀌고 에너지의 방향이 바뀌면 삶의 방향도 바뀐다. 창조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뭔가에 의미를 둘 줄 안다는 뜻이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더 나은, '더 좋은', '더 새로운'이라는 단어만 넣으면 삶은 값자기 도전할 가치가 있는 모험으로 변한다. 이것도 삶의 발명이다. 이럴 때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더 깊은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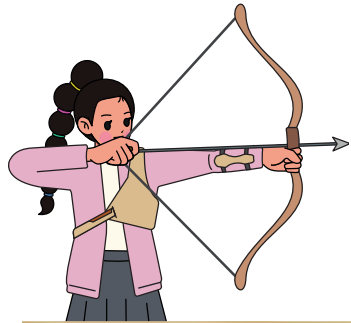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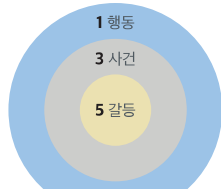
— 「삶의 발명」



대단원 마무리

배운 어휘 확인하기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단어를 과녁판에서 찾고, 재이가 받은 총점을 맞춰 보자.



첫 번째 경기

형체로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은 것을 어떤 방법이나 매체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형상으로 나타냄.

두 번째 경기

연극, 영화, 소설 따위에 나오는 인물.

세 번째 경기

소설이나 희곡에서 인물 사이에 일어나는 대립과 충돌 또는 인물과 환경 사이의 모순과 대립을 이르는 말.

네 번째 경기

서사시나 소설 따위의 문학 작품을 희곡이나 시나리오로 고쳐 쓰는 일.

다섯 번째 경기

다른 사람이나 개체와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

첫 번째 경기 점

두 번째 경기 점

세 번째 경기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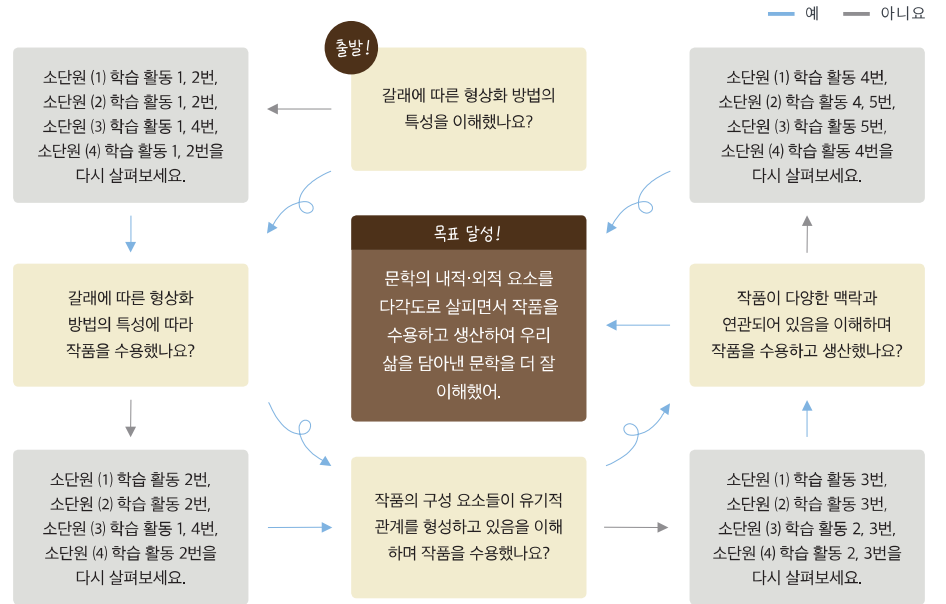
네 번째 경기 점

다섯 번째 경기 점

총점 점

스스로 점검하기

다음 순서도의 질문에 답하며 나의 학습 정도를 점검해 보자.



이 단원을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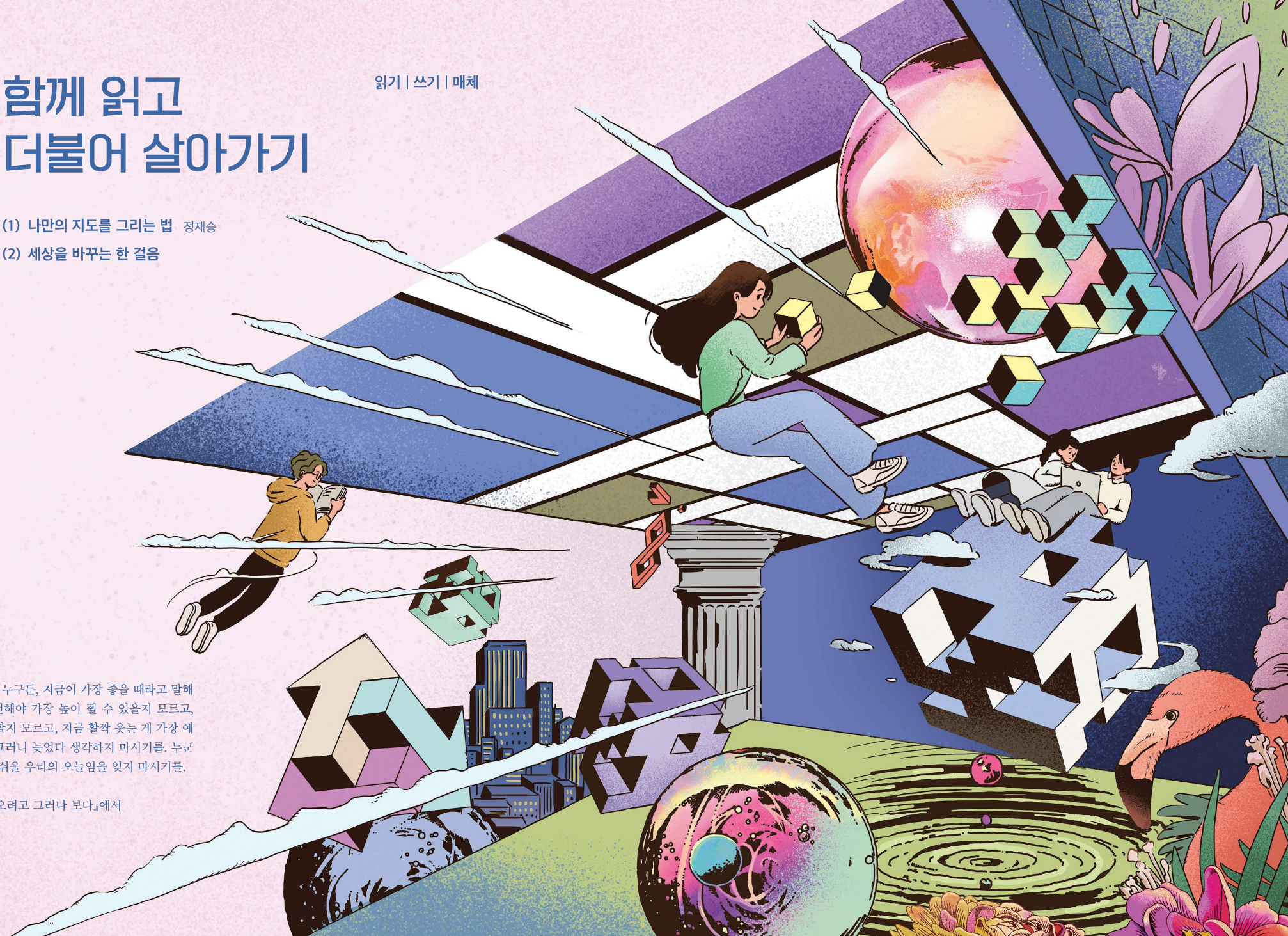
우리는 앞으로 문학 작품을 세심한 눈으로 감상하고 작품에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는 사람으로, 또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거야.

- ★ 이 단원을 모험한 소감이 어때? _____
- ★ 앞으로 무엇을 더 공부해 볼까? _____

5 함께 읽고 더불어 살아가기

읽기 | 쓰기 | 매체

- (1) 나만의 지도를 그리는 법 정재승
- (2) 세상을 바꾸는 한 걸음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누구든, 지금이 가장 좋을 때라고 말해 주고 싶다. 지금 도전해야 가장 높이 뛸 수 있을지 모르고, 지금 고백해야 행복할지 모르고, 지금 활짝 웃는 게 가장 예쁜 모습일 수 있다. 그러니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기를. 누군가는 가슴 시리게 아쉬울 우리의 오늘임을 잊지 마시기를.

- 박여름, 『좋은 일이 오려고 그러나 보다』에서

대단원 길잡이

🔍 무엇을 배울까

(1) 나만의 지도를 그리는 법



- 진로나 관심 분야의 글과 자료 주제 통합적으로 읽기
- 주제 통합적으로 읽은 결과 공유하기

(2) 세상을 바꾸는 한 걸음



- 내용 전개의 일반적 원리를 고려하여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글 쓰기
- 소통 맥락과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매체 자료 분석하고 제작하기

창의·융합 활동

- 엉뚱! 뉴스레터 보내기

깊고 넓게 읽기

- 홍민지의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은 모두 한통속이다」 읽기
- 하기 싫은 일을 극복해 낸 경험이 주는 의미 생각하기

? 왜 배울까

삶의 방향을 정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나요? 그럴 때에는 진로나 관심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글과 자료를 주제 통합적으로 읽어 보면 고민이 어느 정도 해소될 거예요. 읽은 결과를 친구들과 나눈다면 소통의 기쁨도 얻을 수 있겠지요.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종종 개인이나 집단의 견해가 충돌하고, 이에 따라 사회적 쟁점이 생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견해를 정교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해요. 견해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글쓰기와 매체 자료 제작하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신에게 알맞은 방법을 찾아 능동적으로 사회적 소통에 참여한다면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이 단원을 배우면

- 자신의 읽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글과 자료를 읽으며 자기 성찰·계발 역량을 기를 수 있다.
-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자신의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글을 쓰며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을 기를 수 있다.
- 매체 자료의 주제적인 생산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적 의미 구성 과정에 관여하며 디지털·미디어 역량을 기를 수 있다.

대단원 학습 목표

- 자신의 진로나 관심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글이나 자료를 찾아 주제 통합적으로 읽고 읽은 결과를 공유한다.
- 내용 전개의 일반적 원리를 고려하여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교하게 표현하는 글을 쓴다.
- 소통 맥락과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목적의 매체 자료를 제작한다.

📁 생각 열기

다음 단계에 따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하나를 고르고, 이를 선택한 까닭을 말해 보자.

● 가치 카드



- 1단계 | 스무 장의 가치 카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카드 네 장을 고른다.
- 2단계 | 1단계에서 고른 가치 카드 중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카드 두 장을 고른다.
- 3단계 | 2단계에서 고른 가치 카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카드 한 장을 고른다.

공정	관용	긍정	끈기
성실	성취	소통	신뢰
안정	용기	열정	인내
자유	전문성	정직	창의
책임	혁신	혁신	효율



「나만의 지도를 그리는 법」은

처음 방문한 도시에서 해면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에게 방향하고 탐색하며 세상을 탐구하라고 권유하는 글이다. 나는 '지도를 그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지 생각하며 글을 읽어 보자.

**소단원
학습 목표**

- 자신의 진로나 관심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글이나 자료를 찾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 읽기 목적에 알맞게 정보를 통합하고 재구성하며 읽은 결과를 공유한다.

(1) 나만의 지도를 그리는 법

정재승

제가 2008년에 튀르키예의 한 의학회로부터 강연 초청을 받았어요. 이스탄불에 내려서 차를 빌리고, 태어나서 처음 가 보는 테키르다라는 곳으로 지도를 옆에 끼고 출발했습니다. 두 시간 정도 운전하니 테키르다가 나오더군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학회¹가 테키르다에서 열린다는 건 알겠는데, 테키르다 어디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도착했

10 더니 오후 4시 무렵, 제 강연은 저녁 8시, 차를 타고 미친 듯이 테키르다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학회가 열릴 법한 곳들을 뒤지기 시작한 겁니다.

먼저 제일 큰 호텔로 가서 “여기서 혹시 오늘 학회가 열리고 있나요?”라고 묻고, 다음 호텔로 가서 같은 것을 반복했습니다. 큰 호텔들을 다 돌아다녔는데, 결국 허탕²이었습

15 간은 거의 7시 반,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저는 덩그러니 그 도시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전략도 없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학회를 잘 찾았는데, 어느 웹 페이지에도 ‘테키르다’까지만 나와 있었어요. 운전하면서 미친 듯이 도시를 헤매는데, 라디오에서 시보³가 울리더군요. 저는 아직도 그 도시 한복판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사람이 참 희한하게 시간이 이미 지나서 아무 소용이 없는데

20 도 계속 학회 장소를 찾아 헤매게 되더라고요. 차로 테키르다를 돌아다니는 동안 ‘아, 나는 이제 학계에서 매장되는 것인가.’, ‘다시 튀르키예에 입국할 수 있을까?’, ‘너무 미안하다.’ 등등 온갖 생각이 났죠. 그렇게 10시쯤 되어서야 제정신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 깨끗하게 포기! 마음 깊숙이 엄청난 짐이 있으나, 그쯤 되니 자포자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돌아다니면서 봐 두었던 작은 호텔에 들어가서 잤어요. 다음 날 거기

1 학회

학문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더욱 발전하게 하기 위하여 공부하는 사람들이 만든 모임.

2 허탕

어떤 일을 시도하였다가 아무 소득이 없이 일을 끝낸, 또는 그렇게 끝낸 일.

3 시보

표준 시간을 알리는 일.

——
필자는 왜 테키르다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게 되었을까?

서 제일 경치 좋은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었고, 어제 봐 두었던 제일 좋은 산책로를 걸었고, 제일 근사한 호텔에서 점심도 먹었어요. 바닷가를 걷고, 산도 탔어요. 저는 그날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이스탄불로 돌아왔어요.

필자는 어떻게 테키르다의 좋은 곳을 모두 즐길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스탄불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전날 미친 듯이 도시를 돌아다녔잖아요. 그랬더니 머릿속에 테키르다 지도가 훤히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은 어디서 먹고 싶다, 여길 걷고 싶다, 점심은 여기서 먹으면 좋겠다, 이 산을 오르면 좋겠다, 이 꽃길을 다시 가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그 도시의 진짜 좋은 곳을 모두 즐기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시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으세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래서 미친 듯이 돌아다녔더니 그 도시를 잘 알게 되는. 저에게는 바로 그게 인생의 큰 경험이었어요. 우리는 평소 길을 잃어 본 경험이 별로 없죠. 길을 잃어 본 순간, 우리는 세상에 대한 지도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방향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1 학부 대학을 대학원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제가 연구실 대학원생들 외에 학부¹ 학생이나 다른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목요일 오후마다 면담을 해요. 학생들이 저와 만나서 고민을 얘기하잖아요, 그 고민의 70퍼센트는 이런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재미없는 건 아니다. 하려면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절실함은 없다.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대학원에 가야 할지, 취직해서 회사를 다닐지, 유학을 갈지. 뭐든 하라고 정해 주면 하겠는데,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다.’ 대개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를 알려면 세상에 대한 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에서 뭘 하고 싶은지, 누구와 함께 어떤 일을 해야 행복한지 내가 그린 그 지도 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젊은이들에게 지도 기호와 지도 읽는 법을 가르쳐 주고, 목적지까지 빠르게 도착하는 법을 알려 줍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길을 잃지 않게 하려고 길 찾기를 열심히 훈련시켜서 세상에 내보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도를 그리는 일입니다. 누구도 지도를 건네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지도는 여러분 스스로 그려야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나는 어디에 가서 누구와 함께 일할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10년 후 지도는 어떤 모습일지, 나는 누구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지,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지도 위 어디에 있는지, 자신만의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지도를 주지 않아요.

세상에 나온 우리는 적극적으로 방향하는 기술을 배워서 자기 나름대로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실패하더라도 수많은 시도를 해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을 귀찮게 하고, 직접 가서 여행하고, 책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하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전체적인 지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해요. 사람들이 그 지도 위에서 어디에 모여 있는지 파악하고, ‘나는 사람들이 없는 어딘가에 가야겠다.’ 혹은 ‘나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내 인생을 다 걸 만한 선택을 하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 지도가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도를 그리기 위한 ‘방향의 시간’을 젊은이들에게서 박탈하고 있습니다. 학기가 끝나도 방학 동안 끊임없이 스펙을 쌓게 만들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뒤로 밀리는 세상으로 그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다들 남들이 뭘 하는지 보고, 남들이 가는 데로 우르르 몰려가는 거죠. 집단적 선택 안에 있을 때 나약한 개인은 안전함을 느낍니다. “저 정도 성적이면 이런 걸 하더라고요.,” “제 상황이면 다들 고시를 준비하더라고요.,” “뭘 일단 대기업에 쪽 넣어 보는 거지요.” 제가 학부생들에게 만날 듣는 얘기입니다. 타인의 욕망을 나의 욕망인 줄 착각하도록 부추기는 세상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대한 여러분만의 지도를 그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자신만의 지도를 그리지 못하면 40대, 50대, 60대가 되어서도 남의 지도를 기웃거리게 됩니다. 남의 지도를 뜯어내 대충 맞춘 ‘누더기 지도’를 들고, 그걸 자기 지도라고 믿게 됩니다. 먼저 세상을 살아 낸 여러분에게 후배들은 틀림없이 물어볼 겁니다.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젊은 시절에 지도 그리기를 게을리하면, 여러분만의 시각이 담긴 지도를 그들에게 보여 줄 수 없습니다. 지도를 그리는 빠른 방법이란 없습니다. 길을 잃고 방향하는 시간만이 온전한 지도를 만들어 줍니다. 유치원생의 마음으로 미친 듯이 세상을 탐구하세요.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지도를 얻게 되는데, 그 지도가 아무리 엉성하더라도 자신만의 지도를 갖게 되면 그다음 계획을 짜고 어디서 머물지를 계획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은 인생 동안 그 지도를 끊임없이 조금씩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근사한 선택들이 기다리고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생을 마라토너가 아니라 탐험가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탐험에 흥미로운 행운들이 잔뜩 깃들길! 마지막 목표가 아니라 그 여정에서 말입니다.

필자는 왜 우리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지도를 그리기 위한 시간을 박탈하고 있다고 말했을까?

마라토너가 아니라 탐험가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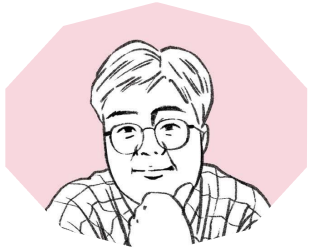
작가와의 대화

정재승

물리학자, 뇌 과학자

1972~

인간의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연구하고 있다.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 『물리학자는 영화에서 과학을 본다』 등을 썼다.



저는 책과 함께 성장하는 학자입니다. 제가 쓴 글에 저의 성장 나이가 고스란히 담기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하는 마음을 담아 『나만의 지도를 그리는 법』을 썼습니다. 제가 혹독하게 경험해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이 제 책을 읽고 스핀지처럼 흡수할 수 있다면, 인생을 조금 더 현명하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발걸음이 '가볍지만 의미 있도록' 함께 걷고 싶습니다. 나만의 지도를 들고 발걸음을 내디뎌 봅시다.

「나만의 지도를 그리는 법」을 읽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질문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답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든 질문으로 「나만의 지도를 그리는 법」을 다채롭게 채워 주세요.

일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나요?

나만의 지도를 그리기 위해 무엇을 해 보았나요?

살면서 이것은 꼭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게 있나요?

내가 만든 질문

학습 활동

1 이 글의 내용을 살펴보자.

① 필자의 경험과 깨달음을 파악해 보자.



② 필자가 말하는 '지도'에 대해 정리해 보자.

• 세상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까닭

• 세상에 대한 지도를 그리기 위해 해야 하는 일

2 이 글을 읽고 내가 깨달거나 느낀 바를 이야기해 보자.

3 다음 질문에 답하며 나의 진로나 관심 분야를 탐색해 보고, 나는 어떤 분야의 지도를 그리고 싶은지 적어 보자.

자신 있는 분야는 뭐야?	무언가에 푹 빠져 본 경험을 말해 줄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야?
어떤 삶을 살고 싶어?		

나는

10년 후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직접 질문을 만들고 대답해 보았어. 질문에 답하다 보니 나는 방송에 관심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방송 분야에 대한 지도를 그려 볼 거야.



주제 통합적 읽기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과 형식의 글이나 자료를 선택적으로 읽고, 읽기 목적에 맞게 정보를 통합하고 재구성하며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제 통합적 읽기 경험을 통해 관심 분야를 더 깊이 이해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 '나만의 지도'를 그리기 위해 주제 통합적으로 읽을 글과 자료를 선정해 보자.

1 진로나 관심 분야가 비슷한 친구들과 모둠을 구성하고, 읽기 활동을 하며 알아보고 싶은 정보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모듬명:

• 공통된 진로나 관심 분야:

• 알고 싶은 정보:

2 진로나 관심 분야와 관련한 글과 자료를 찾고, 친구들과 목록을 만들어 보자.

형식	제목	내용	출처
글 (책, 논문, 기사 등)			
자료 (통계 자료, 영상물 등)			

3 2에서 만든 목록 가운데 각자 읽을 글과 자료를 선정해 보자.

글	자료
<p>• 제목:</p> <p>• 선정한 까닭:</p>	<p>• 제목:</p> <p>• 선정한 까닭:</p>

글과 자료를 선정하는 기준

- 진로나 관심 분야에 맞는 글과 자료인가?
- 읽기에 너무 쉽거나 어렵지는 않은가?
- 정해진 시간 안에 읽을 수 있는 분량인가?
- 친구들과 겹치지 않게 글과 자료를 골랐는가?

5 글과 자료를 읽고, '나만의 지도'에 넣을 유의미한 정보를 선별하여 공유해 보자.

1 4-3에서 고른 글과 자료를 읽고, 알게 된 내용을 각자 정리해 보자.

10년 후 세상

필요한 공부



2 다음 기준을 참고하여 1에서 정리한 내용 중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선별해 보자.

선별 기준

- 읽기 목적에 부합하는가?
- 새로운 정보인가?
-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가?
- 정보끼리 상충되거나 모순되지 않는가?

유의미한 정보:

3 2에서 선별한 유의미한 정보를 내용별로 통합하여 친구들과 공유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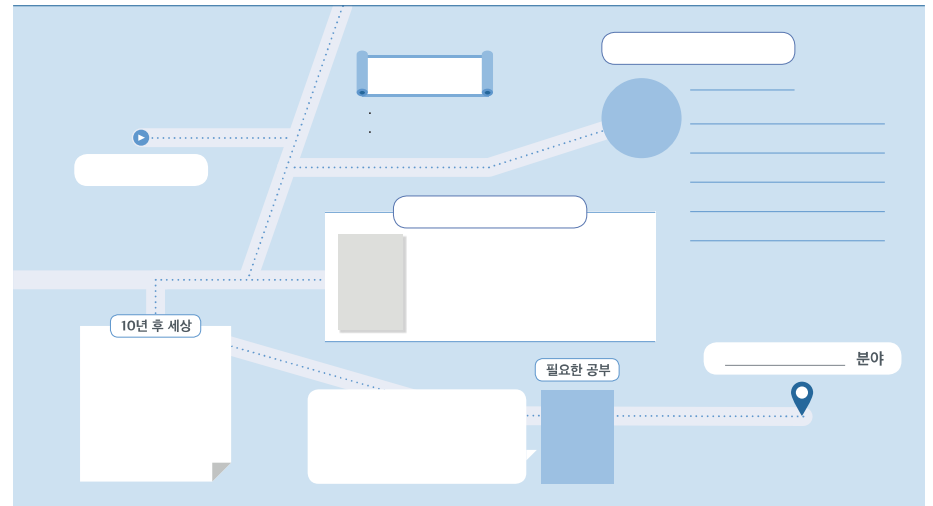
6 다음 지도를 참고하여 '나만의 지도'를 완성해 보자.



6-0 활동지



1 5-3에서 공유한 정보를 재구성하여 '나만의 지도'를 채워 보자.



2 완성한 지도를 모아서 전시해 보고, 친구가 만든 지도에 응원의 한마디를 붙여 보자.

프로듀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문OO** 프로듀서
재치 있는 편집으로 시청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프로듀서야. 편집 지정을 잡아내는 기술을 배우고 싶어.

추구하고 싶은 가치
무심코 지나쳤던 장면 속에 차별과 혐오 표현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어. 방송을 만들 때 소외되거나 속상함을 느끼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어.

10년 후 세상
인공 지능의 도움
인공 지능이 영상 편집을 도와주기 때문에 방송국 종사자들의 야근이 줄어들 것 같아.

필요한 공부
이 책을 보면서 영상 편집하는 방법을 익히고 있어. 편집 방법을 다 배우고 나면 내 의도가 잘 전달되도록 영상을 직접 편집 해 볼 거야.

필요한 공부 **외국어 공부**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려면 외국어 공부는 필수!

이 책을 읽고 작사에 관심이 생겼어. 내 생각을 담은 가사를 써서 부르고 싶어.

10년 후 세상
케이팝은 앞으로 더 많이 사랑받을 것 같아. 그럼 지금보다 더 다양한 나라에서 콘서트를 할 수 있었지?

필요한 공부 **외국어 공부**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려면 외국어 공부는 필수!

이 책을 읽고 작사에 관심이 생겼어. 내 생각을 담은 가사를 써서 부르고 싶어.

10년 후 세상
최OO 촬영 장소 섭외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속 장소를 모두 이분이 섭외했다는 인터뷰를 보고 '촬영 장소 섭외가'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어. 함께 일하면서 장소를 찾고 섭외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추구하고 싶은 가치
주말은 소중한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이 책은 주말이나 휴일에 가면 좋은 장소들을 소개하고 있어서 흥미로워, 주말마다 새로운 곳에 가 볼 생각이야.

활영 장소 섭외가

가수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이OO** 가수
콘서트에 다녀오고 나서 가수를 꿈꾸게 되었어. 함께 무대를 서고, 듀엣곡도 내고 싶어. 노래뿐만 아니라 연기,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 주고 싶어. 나도 여러 분야에 도전하고 싶어.

추구하고 싶은 가치
필자가 노래를 들으며 느낀 것처럼 내가 부른 노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

10년 후 세상
케이팝은 앞으로 더 많이 사랑받을 것 같아. 그럼 지금보다 더 다양한 나라에서 콘서트를 할 수 있었지?

필요한 공부 **외국어 공부**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려면 외국어 공부는 필수!

이 책을 읽고 작사에 관심이 생겼어. 내 생각을 담은 가사를 써서 부르고 싶어.

10년 후 세상
최OO 촬영 장소 섭외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속 장소를 모두 이분이 섭외했다는 인터뷰를 보고 '촬영 장소 섭외가'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어. 함께 일하면서 장소를 찾고 섭외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추구하고 싶은 가치
주말은 소중한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이 책은 주말이나 휴일에 가면 좋은 장소들을 소개하고 있어서 흥미로워, 주말마다 새로운 곳에 가 볼 생각이야.

활영 장소 섭외가

방송 분야

목표 진학 학과
· 언론 정보학과
· 미디어 콘텐츠학과

필요한 공부
· 문예 창작학과

소단원 마무리



해당하는 표정에 표시하여 나의 이해도를 점검해 보자.

1 「나만의 지도를 그리는 법」 내용 정리



학회가 열리는 장소를 찾아 테키르다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게 됨.

□□을 찾아 헤맨 경험 덕분에 테키르다의 좋은 곳을 모두 즐길 수 있었음.

적극적으로 방향히고 길을 찾으며 나만의 □□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함.

2 주제 통합적 읽기



동일한 주제

관점이 다른 글과 자료

형식이 다른 글과 자료

다양한 분야의 글과 자료

하나의 □□을/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과 형식의 글이나 자료를 선택적으로 읽고, 읽기 □□에 맞게 정보를 통합하고 재구성하며 이해하는 독서 활동

3 진로나 관심 분야에 관한 읽기 과정



진로나 관심 분야와 관련한 글과 자료 찾기

목적, 수준, 읽기 분량 등을 고려하여 읽을 글과 자료 선정하기

진로나 관심 분야를 탐색하는 데 도움되는 내용을 정리하며 읽기

정리한 내용 중 유의미한 정보 선별하기

유익한 정보를 통합하여 읽은 결과 □□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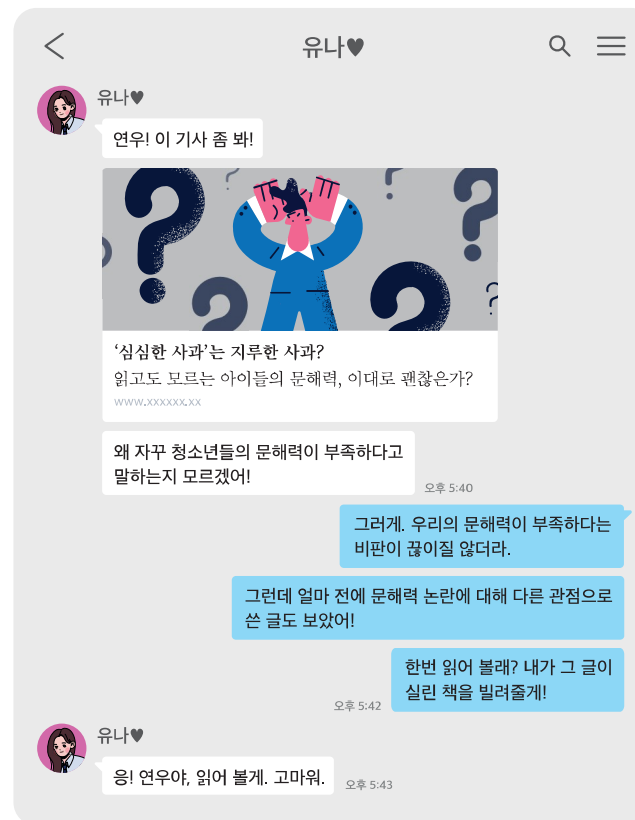
「세상을 바꾸는 한 걸음」에서는 문해력에 관한 견해를 나타낸 글과 상호 존중의 필요성을 알리는 공익 광고를 살펴본다. 견해를 정교하게 드러내기 위해 어떻게 내용을 전개하는지, 매체 자료를 만들 때 고려할 요소는 무엇인지 살피며 글과 매체 자료를 읽어 보자.

소단원
학습 목표

- 내용 전개와 일반적 원리를 고려하여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교하게 표현하는 글을 쓴다.
- 소통 맥락과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목적의 매체 자료를 제작한다.

(2) 세상을 바꾸는 한 걸음

■ 활동 1. 견해를 표현한 글과 매체 자료 이해하기



1 다음 글을 읽으며 사회적 쟁점에 관한 필자의 견해를 살펴보자.

유나야, 이 글이야.
천천히 한번 읽어 보!
- 연우 -

문해력 위기의 또 다른 배경

정지우

한국 교육 방송 공사(EBS) 「당신의 문해력」이 방영된 이후로 사회 전반에서 문해력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문해력에 대해 경제 협력 개발 기구는 ‘문장을 이해, 평가, 사용함으로써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목표를 달성하며, 지식과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쉽게 말해 문해력이란 글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렇다면 한국 청소년들의 문해력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그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금일’을 ‘금요일’로, ‘사흘’을 ‘4일’로 어휘를 잘못 사용하는 사례들이 공개되면서 문해력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한국 청소년들은 읽기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들의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과도한 우려라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2018년에 경제 협력 개발 기구가 실시한 평가 결과를 보면 회원국 중에서 한국 청소년들의 읽기 수준은 높은 편이다. 하지만 매년 점수가 떨어지고 있고 청소년들 간의 문해력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또한 한국 청소년들은 가짜 뉴스나 스팸 메일 등 디지털 정보의 진위를 분별하는 디지털 문해력 영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 청소년들의 읽기 능력 자체는 준수할지 몰라도 글에 담긴 의도를 명확히 식별하고¹, 다양한 맥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문해력이 부족해지고 있음은 사실로 봐야 할 것이다.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독서가 부족하고 디지털 기기 사용이 과도해서라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온라인 세계에 폭넓게 퍼진 이분법적 대립 구조와 자극적인 콘텐츠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어 보인다. 청소년의 대부분이 이용하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에는 상대를 공격하는 영상이나 댓글들이 매우 폭넓게 퍼져 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대개 아군과 적군을 나누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틀에 가두거나 평가해 버린다. 언뜻 보면 통찰력을 발휘하여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고 비판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이런 일의 핵심은 오히려 상대방의 의도를 곡해하는² 데 있다. 어떻게든 공격할 만한 점을 찾아내서 의도를 왜곡하고, 공격하는 이가 원하는 대로 상대의 의도를 조작하는 것이다.

1 식별하다
분별하여 알아보다.

2 곡해하다
남의 말이나 행동을 본뜻과는 달리 좋지 아니하게 이해하다.

이러한 이분법적 대립 구조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 속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그의 맥락을 풍성하게 상상하면서 그가 하는 말의 다차원적인 맥락을 고려하는 일은 사라지고, 공격하는 이가 자신의 생각과 의도만을 재생산하는 행위만 남게 된다. 따라서 아무리 온라인에서 다양한 견해가 담긴 영상과 텍스트를 접하더라도 그것을 맥락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상대를 공격할 대상으로 미리 일반화하고 규정짓는 일만을 반복하게 된다.

문해력의 핵심은 내가 모르는 것을 새로이 받아들이고 상상하며 이해하는 능력에 있다. 하지만 이분법적 문화에 익숙해지면 이러한 문해력의 핵심이 사실상 간과된다. 타인을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고, 자기의 입장만을 반복 생산하는 폐쇄적인 세계관에 갇히는 것이다. 결국 한국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각종 집단 갈등, 혐오, 차별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타인의 의도와 발화의 맥락을 고려하는 문해력이 풍성한 사회에서는 함께 사는 삶이 가능해진다. 인간의 이해력이 가장 필요한 지점 중 하나는 이분법 가운데 제3 지대를 발견하는 데 있다. 적과 아군의 구별은 단세포 생물도 할 수 있지만 타협, 화해, 제3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고등 동물만 가능하다. 문해력은 이러한 능력과 결을 같이하는 것이다.

나와 타자가 속한 맥락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 부족이 문제라면, 단순히 독서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의 극단적이고 이분법적 성향을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온라인상의 각종 자극적인 콘텐츠를 통해 누군가를 공격하고 일방적으로 규정짓는 문화에 길들고 있다. 바로 그런 문화가 문해력 그 이상의 총체적인 이해력을 갉아먹으면서 우리 사회에 위기를 불러오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 『내가 잘못 산다고 말하는 세상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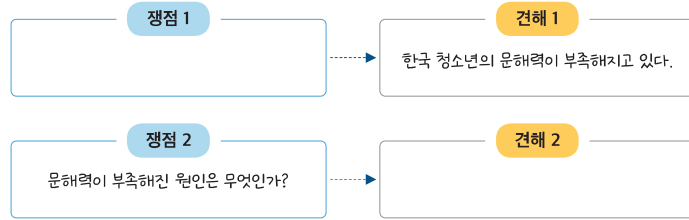
필자가 생각하는 문해력의 핵심은 무엇인가?



... 사회적 쟁점

특정한 사안에 대해 개인이나 집단의 견해가 충돌할 때 발생한다.

1 이 글에 제시된 사회적 쟁점과 그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파악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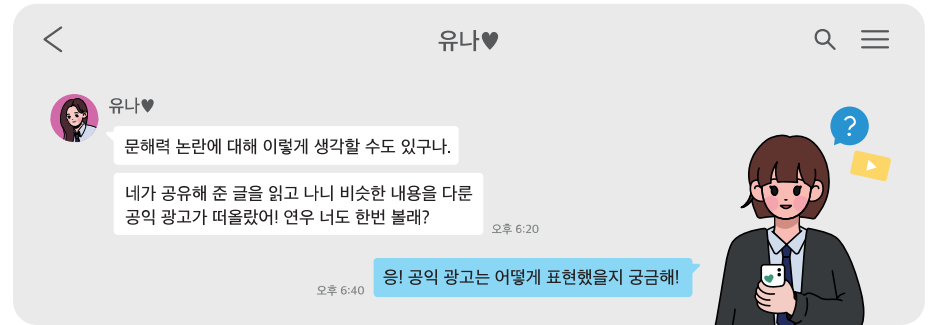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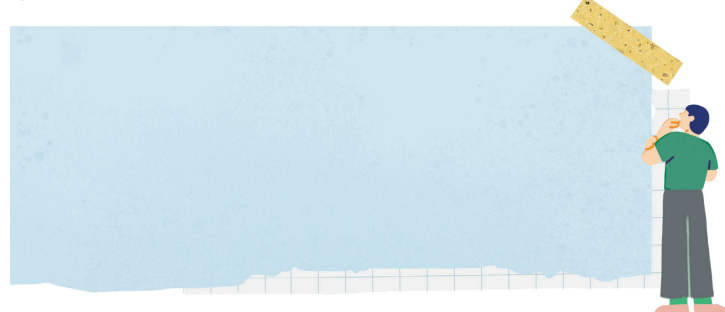
2 이 글에서 다음의 내용 전개 방법이 나타난 부분을 찾고 그 효과를 정리해 보자.

내용 전개 방법	내용	효과
정의		
인용		
인과		
대조		

▶ 예상 독자 설정하기

글을 쓸 때는 예상 독자의 연령대와 집단의 범위, 관심사나 주제에 대한 입장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자신의 견해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사람, 해당 쟁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중 등으로 예상 독자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3 필자가 어떤 독자를 예상하고 글을 썼는지 추측해 보자.



2 다음 공익 광고를 보고 매체를 활용한 사회적 소통을 살펴보자.

● 공익 광고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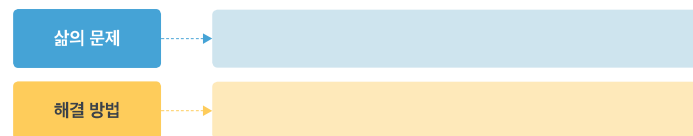


... 공익 광고

기업이나 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



1 이 공익 광고가 다루고 있는 삶의 문제와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2 이 공익 광고와 「문해력 위기의 또 다른 배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보자.

	「나는 맛고 남들은 틀리다」	「문해력 위기의 또 다른 배경」
공통점	다양한 입장과 맥락을 이해하자고 말함.	
차이점		평가 자료를 인용하여 신뢰성을 높임.

... 매체

소통을 매개하는 도구, 기술, 환경을 말한다. 책, 텔레비전,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등이 있다.

... 매체 자료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형태로 그림책, 뉴스, 광고, 웹툰, 영화 등을 말한다. 각각의 매체 자료는 매체의 특성에 맞는 매체 언어를 활용하여 구성된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어떤 매체를 활용하면 이 공익 광고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을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보기]

공익 광고의 매체 집행은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기본으로 하고, 인터넷 등 기타 매체는 보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화된 매체 환경에 맞추어 공익 광고의 효과적인 노출 및 확산을 위하여 매체 전략을 수립 및 실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 방송 광고 진흥 공사 누리집

활용할 매체

선정한 까닭

유나야, 알려 준 광고 봤어!

영상으로 보니까 글보다 더 생생하게 느껴지더라.

유나♥

그치? 매체에 따라 전달되는 내용이나 표현 방식이 다른가 봐.

나도 쟁점에 대한 내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싶어!

유나♥

이참에 우리도 한번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을 표현해 볼까?

그래. 글도 써 보고 매체 자료도 만들어 보자.

전문가와와의 대화

이제석

광고인

1982~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광고,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공익 광고를 만드는 전문가이다. 광고 연구소를 운영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고 천재 이제석』을 썼다.



남들이 관심 없이 하거나 외면하는 문제들을 세상에 큰 소리로 알리고 싶어서 공익 광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대기 오염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매연이 뿜어져 나오는 뉴욕의 한 건물 굴뚝 아래에 거대한 총 이미지를 부착한 적도 있죠. 광고는 꼭 상품을 팔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에요. 잘 만든 광고 한 편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변화시켜서 결국 사회 문제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어요. 형식과 수단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의 표현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견해를 표현한 글과 매체 자료를 살펴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질문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답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외에도 세상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내가 쓴 글로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준 적이 있나요?

신문 기사, 책 등에서 다룬 사회적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내가 만약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 광고를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고 싶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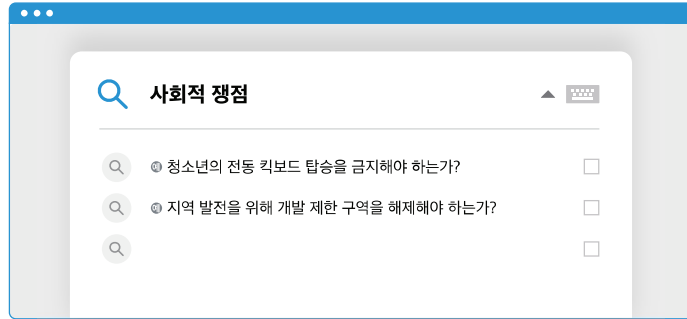
* 답변은 늘 네모 칸을 벗어나도 됩니다.

내가 만든 질문

활동 2. 사회적 쟁점에 대한 견해를 표현하는 글 쓰기

1 다음 과정에 따라 사회적 쟁점에 대한 나의 견해를 표현하는 글을 쓸 계획을 세워 보자.

1 다음 예를 참고하여 내 주변의 사회적 쟁점을 하나 선택하고, 그 쟁점에 관한 다양한 견해나 자료를 조사해 보자.



자료 조사하기

정보가 부족하면 자신의 견해가 타당함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전문 서적, 논문, 신문 등 출처가 분명한 자료를 충분히 조사한다.

쟁점에 관한 견해	쟁점에 관한 자료
• 견해 1:	• 자료 1:
• 견해 2:	• 자료 2:
• 견해 3:	• 자료 3:

2 1에서 선택한 쟁점에 대한 나의 견해와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정리해 보자.

쟁점에 대한 나의 견해

근거

3 다음 항목에 따라 글쓰기 계획을 써 보자.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매체 선정하기

쓴 글을 인터넷 게시판 또는 개인 블로그에 올릴 수도 있고, 신문이나 잡지에 투고할 수도 있다. 전달 매체의 특성에 따라 글의 내용과 형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글쓰기 계획을 세운다.

2 내용 전개 일반적 원리를 고려하여 글의 개요를 작성해 보자.

내용 전개 일반적 원리

시간적 순서의 원리
 공간적 순서의 원리
 논리적 순서의 원리

내용 전개 방법

정의 예시 인용 분석 분류 서사 과정
 인과 묘사 비교 대조 유추 연역 귀납

내용 전개의 일반적 원리

- 시간적 순서의 원리: 시간의 흐름이나 시간의 전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 공간적 순서의 원리: 가까운 곳에서 먼 곳, 또는 좌우 등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 논리적 순서의 원리: 추상적 개념이나 현상과 관련된 중심 내용을 그 내용 사이의 논리적 관계에 따라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2 활동지



처음

중간

끝



3 활동지



3 사회적 쟁점에 대한 나의 견해를 표현하는 글을 써 보자.



4 다음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한 글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보자. 그리고 1-3에서 정한 매체로 글을 공유해 보자.

점검 항목	점검	
	예	아니요
사회적 쟁점에 대한 견해가 분명하게 드러났는가?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었는가?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가?		
예상 독자의 관심사나 입장을 고려하였는가?		
글의 내용이 짜임새 있게 전개되었는가?		
효과적인 표현 방법을 사용하였는가?		

활동 3. 소통 맥락과 매체 특성에 맞는 매체 자료 제작하기

1 활동 2에서 선택한 사회적 쟁점과 관련된 매체 자료를 만들 계획을 세워 보자.

1 제작하고 싶은 매체 자료의 주제와 목적, 수용자를 정해 보자.

주제	
목적	<input type="checkbox"/> 정보 전달 <input type="checkbox"/> 설득 <input type="checkbox"/> 정서 표현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상호 작용
수용자	연령대
	관심사
	주제에 대한 입장

소통 맥락

목적, 수용자 등 매체 자료를 만들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말한다.

• 목적: 정보 전달과 설득, 심미적 정서 표현, 사회적 상호 작용 등 생산자가 수용자의 소통하려는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 수용자: 수용자의 특성에 따라 전달할 매체와 매체 언어 등을 다르게 하여 매체 자료를 생산해야 한다. 따라서 수용자의 연령대와 집단의 범위, 관심사나 주제에 대한 입장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1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한 매체 자료를 선정하고, 그 매체의 특성과 영향력을 고려해 선정한 까닭을 적어 보자.

매체 종류	매체 자료 종류
<input type="checkbox"/> 인쇄 매체 <input type="checkbox"/> 음성 매체 <input type="checkbox"/> 영상 매체 <input type="checkbox"/> 인터넷 매체	<input type="checkbox"/> 종이 신문 <input type="checkbox"/> 포스터 <input type="checkbox"/> 라디오 방송 <input type="checkbox"/> 텔레비전 광고 <input type="checkbox"/> 노래 <input type="checkbox"/> 영화 <input type="checkbox"/> 카드 뉴스 <input type="checkbox"/> 웹툰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매체별 특성

• 인쇄 매체: 글, 사진, 그림 등의 시각적 이미지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필자와 독자가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간접적으로 소통한다.

• 음성 매체: 소리, 음성을 활용해 특정 사람 혹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대량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문자 해독 능력과 상관없이 지식과 정보를 수용할 수 있다.

• 영상 매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소리, 음성, 문자, 이미지, 영상 등의 대량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 인터넷 매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시간적 제약이 적다. 여러 사람이 동시적 또는 비동시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선정한 까닭

2 1에서 세운 계획에 따라 매체 자료를 만들어 보자.

1 매체 자료를 만들 때 활용할 자료를 수집해 보자.

글	사진, 그림
영상	기타

2 매체 자료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고, 매체 자료를 제작해 보자.



제목: _____

제작 기간: (~) 분량: _____

내용 구성

3 다음 항목에 따라 완성한 매체 자료를 평가하고, 목적에 맞는 누리집이나 플랫폼 등에 공유해 보자.

소통하려는 목적에 맞게 매체 자료의 내용을 구성하였는가?	예	아니오
수용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는가?	예	아니오
소통 맥락에 적합한 매체를 선정하였는가?	예	아니오
매체의 특성을 적절하게 활용하였는가?	예	아니오
매체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는가?	예	아니오

소단원 마무리



해당하는 표정에 표시하여 나의 이해도를 점검해 보자.

1 사회적 쟁점에 대한 견해를 표현하는 글 쓰기



사회적 쟁점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 개인이나 집단의 이/가 충돌할 때 발생함.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교하게 표현하는 글을 쓰며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음.

2 내용 전개와 일반적 원리



시간적 순서의 원리

공간적 순서의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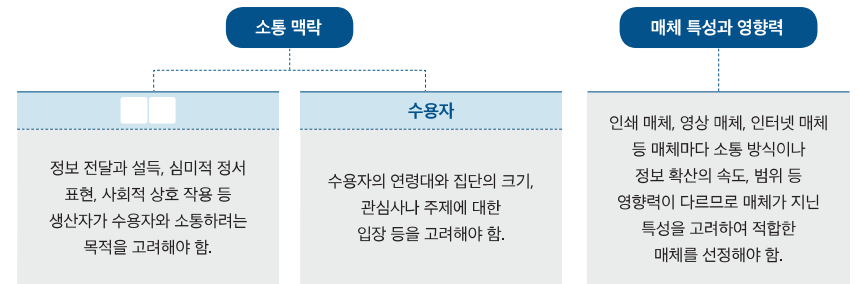
논리적 순서의 원리

시간의 흐름이나 시간의 전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함.

가까운 곳에서 먼 곳, 또는 좌우 등에 따라 내용을 전개함.

추상적 개념이나 현상과 관련되는 중심 내용을 그 내용 사이의 관계에 따라 전개함.

3 매체 자료 제작 시 고려할 사항



창의·융합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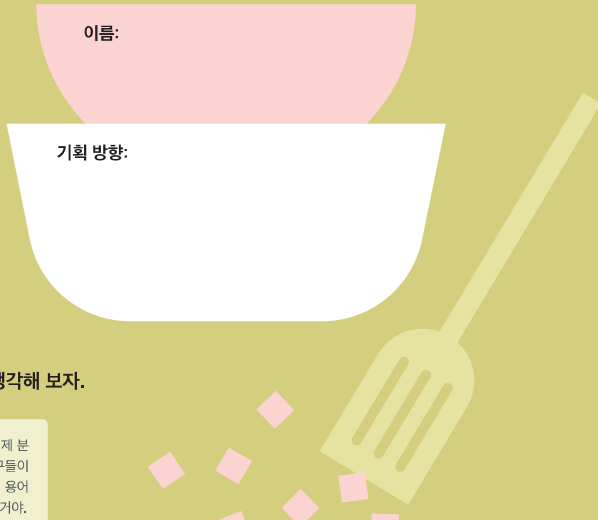
띵동! 뉴스레터 보내기



저녁으로 무얼 먹을지 고민하다가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소개해 주는 뉴스레터를 보게 되었어. 제철 식재료와 그 재료로 요리하는 방법을 알려 줘서 유용했어! 짧은 시간 안에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정보를 선별하고 정리해서 보내 주니까 배경지식이 부족해도 쉽게 읽을 수 있더라고. 나도 내 관심 분야를 다룬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어떤 글을 쓰든 사람들이 내 뉴스레터를 구독해 줄까?

- 1 이름과 기획 방향 정하기 ▶
- 2 독자 예상하기 ▶
- 3 꼭지 구성 및 배치하기 ▶
- 4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하기

1 관심 분야가 드러나게 뉴스레터의 이름과 기획 방향을 정해 보자.



2 어떤 사람들이 뉴스레터를 읽으면 좋을지 생각해 보자.

나는 경제 뉴스레터를 만들 거야. 경제 분야에 관심은 있지만 잘 모르는 친구들이 읽으면 좋을 듯해. 그래서 낯선 경제 용어를 쉽게 설명해 주는 캐릭터를 넣을 거야.



3 각 꼭지별 제목과 하위 주제를 정하고 어떤 순서로 배치할지 생각해 보자.

- [오늘의 재료] 여름을 기다리는 이유, 복숭아
- [제철 주방] 복숭아로 만드는 색다른 요리
- [계절 맛집] 복숭아의 고장, 원주로 놀러 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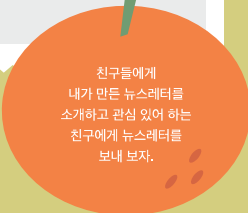
순서	제목	하위 주제
꼭지 1		
꼭지 2		
꼭지 3		

4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뉴스레터를 작성하고 친구들에게 발송해 보자.

꼭지 제목

내용

활용할 자료 (사진, 영상, 누리집 링크 등)



내용이 길어지면 지루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꼭지 세 개 정도만 구성할 거야.



뉴스레터 예

오늘이 제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따금씩 송골송골 맺히는 걸 보니 어느새 여름이 오니 봐요.
여름하면 역시 과일이지요.
오늘은 여름 과일의 대명사, 복숭아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재료]

여름을 기다리는 이유
복숭아

복숭아는 초여름부터 나오기 시작해 늦여름까지 맛볼 수 있는 과일입니다. 복숭아는 천도, 황도, 백도 등 다양한 품종이 있어요. 딱딱한 복숭아와軟爛한 복숭아로 나누는 게 더 익숙하죠? 어디쯤은 어떤 복숭아를 더 좋아하세요? 이걸 비밀인데 저는 딱딱한 복숭아를 좋아합니다.

[제철 주방]

복숭아로 만드는 색다른 요리

요즘 과일에 설탕물을 얹혀 가열한 과일 고치가 유행이더군요. 과일을 가열해 먹는 것에 서툰바다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지만, 과일을 가열하면 단맛이 강해진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단맛이 약하거나 딱딱한 복숭아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 1 잘 씻은 복숭아를 반으로 자르고 씨를 도려내다.
*반으로 잘랐을 땀 후 한쪽만 비닐팩에 넣어 보관한다.
- 2 자른 단면에 올리브유를 살짝 바르고 설탕을 충분히 묻힌다.
- 3 프라이팬을 달군 후, 설탕 바른 부분을 위향 불로 5분 동안 가열한다.
- 4 팬에서 복숭아를 꺼내고 알기를 식힌다.
- 5 전자레인지에 복숭아를 넣고 달콤한 시럽을 뿌린다.
*기호에 따라 가래기류를 뿌리거나 치즈를 올려 먹는 것도 추천!

깊고 넓게 읽기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은 모두 한통속이다

홍민지

가끔 인터뷰나 강연을 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삶’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는다. 이 원고의 청탁을 받았을 때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것 같은 모습이라 이렇게 제안을 주셨다고 한다. ‘서울, 방송국, 피디’라는 솔깃한 키워드 덕분에 이런 오해가 생기지는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그냥 ‘먹고살려고 하는 일’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다.

나는 원래 하기 싫은 일은 죽어도 못 하는 성격이었다. 싫어하는 반찬이 올라오는 날에는 금식을 포기했고, 흥미 없는 과목은 절대 공부하지 않았다. 취향이 아닌 노래는 일절 듣지 않았고, 관심 없는 분야의 책은 읽어 본 적이 없다. ‘하기 싫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싶었던 것도 같다.

그런데 회사원 7년 차, 나는 하기 싫은 일을 매일 한다. 회사는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신경 쓰지 않는다. 회사에 다닌다는 건 월급을 받는다는 건 때로는 하고 싶은 일이면 하기 싫은 일이면 주어진 일을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할까?

돌아보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아주 하기 싫은 일에 더 가까웠다. 학과 선배들이 방송국 피디로 입사하고 나날이 피폐해지는 걸 보면서 절대 방송국 근처에는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광고 일이었다. 그런데 대형 광고 회사 두 곳의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다.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취업을 준비한다고 학원에서 하던 아르바이트도 그만둔 상태라 생활비가 없었다. 취직을 시켜 주는 곳은 없고 생활

비는 점점 떨어져 가던 차에 들어간 곳이 모 방송국 뉴미디어국의 ‘○○○뉴스’ 인턴 자리였다. 정규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위치에, 당시 사회에서는 내 때를 ‘88만 원 세대’라고 불렀는데 그에도 못 미치는 87만 원을 받는 자리였다. 그래도 에스비에스는 우리 집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여서 교통비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회사에서도 인턴에게 많은 걸 기대하지는 않는 것 같았다. 게다가 지상파 방송국에서 뉴 미디어라는 분야는 메인 요리가 아니라 고급 레스토랑의 품격을 실추시키지만 않으면 다행인 테스트 메뉴 같은 존재였다. 회사 선배들은 뉴 미디어는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아직 젊을 때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했다. 하고 싶던 일도 아니었고, 안정적인 일자리도 아니었지만 달리 갈 곳도 없었다.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었다. 일단 살아남는 게 먼저였다. 다른 선택지도 없는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지 어찌겠는가.

그렇게 일을 시작하고 나를 가장 괴롭게 한 일은 기획안을 쓰는 것도 아니고 제작비를 정산하는 일도 아닌 바로 편집이었다. 긴 시간이 걸리는 파일 백업, 싱크 맞추기, 자막 달기, 모두 재미는커녕 고통스럽고 인내만이 담긴 과정이다. 밤을 꼬박 새워야 하는 날이 부지기수였고, 장시간 모니터를 보며 편집을 하다 보니 눈도 나빠지고 귀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처음 편집한 영상은 세계 기록을 세운 다이베에 대한 30초 내외의 영상이었다. 관심 있는 주제는 아니었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은 모두 한통속이다.는

하기 싫은 일을 극복해 낸 경험에 대한 필자의 성찰이 담긴 글이다. 나는 어떤 일을 하기 싫어하는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단점을 장점으로 바꾼 경험이 있는지 생각하며 글을 읽어 보자.

지만, 팀장님이 시키니까 꾸역꾸역 만들었다. 고등학교 시절 가장 싫어하던 과목이 체육과 정치였는데 하필 내가 인턴으로 근무하던 시절 월드컵이 열렸고 정권도 바뀌었다. 자연스럽게 스포츠와 정치에 대한 콘텐츠를 수도 없이 제작해야만 했다. 하지만 나의 장점이라면 눈앞의 현실에 압박하게 순응할 줄 안다는 것이다. 어찌겠는가. 먹고살려면 일을 해야 한다. 군말 없이 편집을 했다. 이왕 하는 거 잘하려고 애썼다. 편집을 잘하고 싶어서 가장 먼저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했다. 엄청난 실력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영영이 싸움밖에 없었다. 영상 내용이 내 관심 분야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편집 기술 하나 정도는 얻어 갈 수 있지 않은가. 어느새 이상하게 내가 편집을 잘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리고 하기 싫은 것만 시키던 팀장님이 새로운 기회를 던져 줬다. 프로그램 하나를 단독으로 연출해 보라는 것이다. 그렇게 기획을 시작한 것이 「△△ 특급」이라는 프로그램이다. (중략)

학교라는 우물 안에서 나와 사회에서 직업인으로 살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현실에서는 원하는 것만 갖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은 1+1 행사 상품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하기 싫은 일도 해야만 했다. 하기 싫은 일을 잘할 때까지 하다 보니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기 싫은 편집을 하고 쓰기 싫은 글을 썼더니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좋은 동료들과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회사원 7년 차, 나는 이제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

을 나누지 않는다. 그저 해야 하는 일과,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을 뿐이다. 염세적으로 들린다면 틀렸다. 눈앞에 있는 일을 묵묵히 하는 게 아직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 준다는 걸 안다. 싫어하던 갯잎을 먹어 보니 맛의 새로운 세계가 열렸던 것처럼, 하기 싫은 영어 공부도 했다니 자막이 없는 영화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하기 싫은 일이 주어지면 이 일이 나를 어떤 좋은 일로 이끌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버티려고 노력 중이다.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은 어차피 한통속이다.

—「일잘잘」



?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단원 마무리

배운 어휘 확인하기

다음 낱말 놀이를 하며 이 단원에서 배운 어휘를 확인해 보자.

방법 뜻풀이를 고려하여 각 자음과 모음을 회전하지 않은 채로 올바르게 배치하여 단어를 완성한다.

예 개별적인 것이나 특수한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됨. 또는 그렇게 만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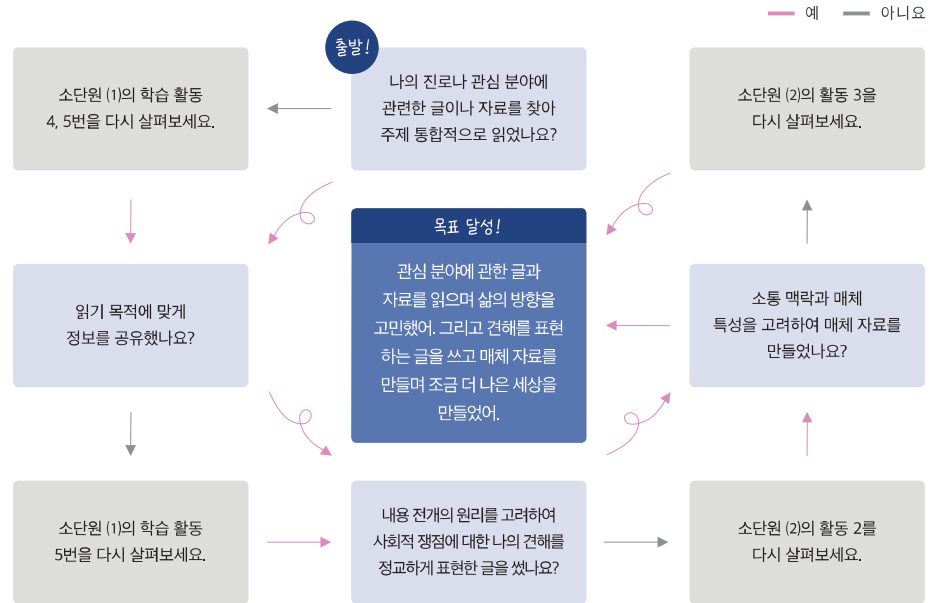
힉 와 날 ▶ **일 반 화**

- ㉠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
- ㉡ 한 번 구성하였던 것을 다시 새롭게 구성함.
- ㉢ 분별하여 알아보다.
- ㉣ 남의 말이나 행동을 본뜻과는 달리 좋지 아니하게 이해하다.
- ㉤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 ㉥ 어떤 일을 시도하였다가 아무 소득이 없이 일을 끝냄. 또는 그렇게 끝낸 일.

㉠	내	혁	▶						
㉡	억	주	새	▶					
㉢	다	혈	살	기	▶				
㉣	해	독	하	가	▶				
㉤	루	견	햄	▶					
㉥	타	형	▶						

스스로 점검하기

다음 순서도의 질문에 답하며 나의 학습 정도를 점검해 보자.



이 단원을 마치며



우리 앞으로도 관심 분야와 관련한 글과 자료를 읽고 공유하자. 그리고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하면 내 생각을 글로 쓰거나 매체 자료로 제작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자. 소통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기쁨을 더 잘 알게 될 거야.

- ★ 이 단원을 모험한 소감이 어때? _____
- ★ 앞으로 무엇을 더 공부해 볼까? _____

부록

▶ 듣기 대본 225

📁 토론 기록지 226

❗ 글과 자료 출처 - 제시문/사진 및 그림 227

듣기 대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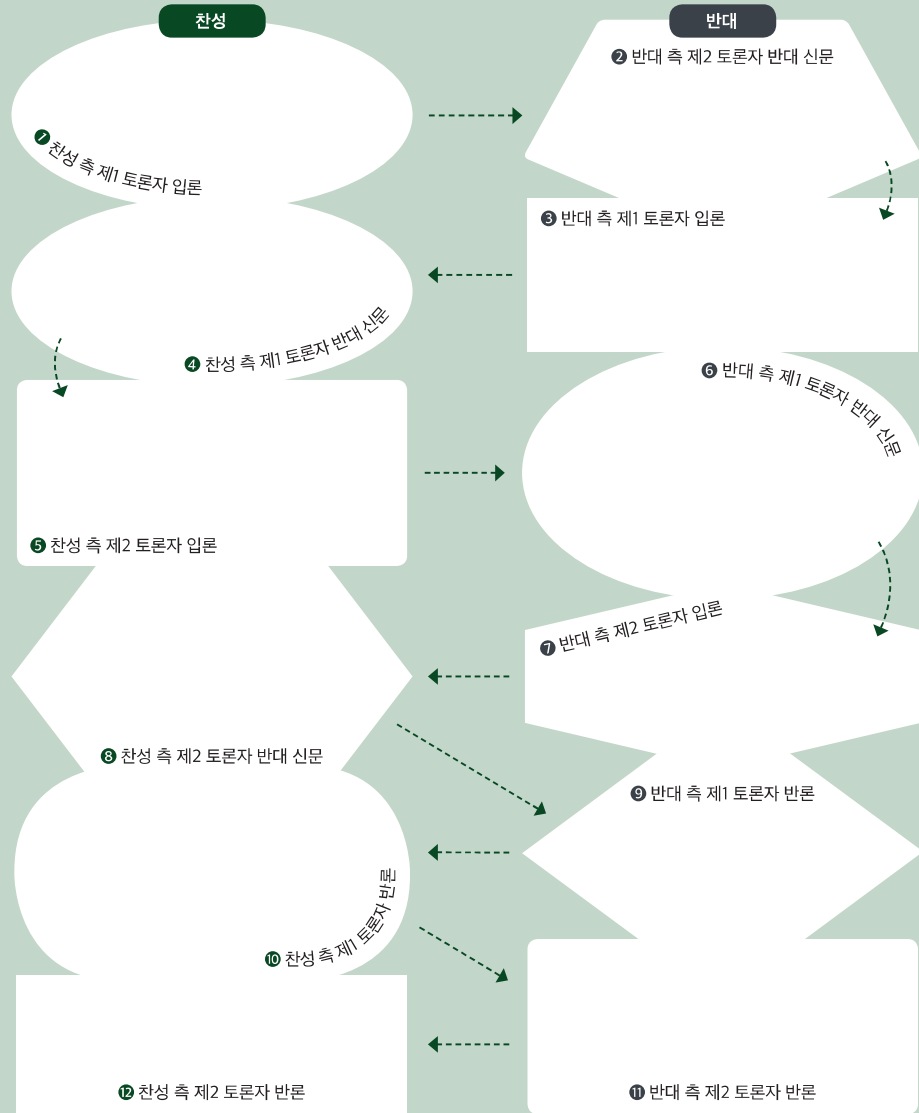
5 함께 읽고 더불어 살아가기

(2) 세상을 바꾸는 한 걸음 | 활동 1-2 | 209쪽

자막	‘나는 맞고 남들은 틀리다’는 사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 내레이션	‘나는 맞고 남들은 틀리다’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관	왜 저럴까 싶죠.
여학생	그건 아니죠! 네.
오토바이 앞 남자	별로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 요새.
남학생 1	너 있잖아.
꽃집 직원	속상하기도 하고.
음식점 직원	이기적이지 않을까요?
자막	그렇다면 당신은 나와 생각이 다른 누군가를 틀렸다고 한 적 없나요?
여 내레이션	그럼, 생각이 다른 누군가를 틀렸다고 한 적 없나요?
꽃집 직원	어…….
음식점 직원	하하…….
오토바이 앞 남자	음…….
남학생 2	애는 있어. 확실해.
여학생	나는 있는 것 같아.
소방관	사실 저도 있죠.
자막	다양한 생각이 존중받는 사회.
남 내레이션	다양한 생각이 존중받는 사회. 서로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토론 기록지

124쪽 학습 활동 4-①



글과 자료 출처

제시문 집필진이 직접 집필한 글은 출처를 밝히지 않았음. 일부 글은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고려하여 원문의 내용이나 표현을 수정하였음. '작가-전문가의 대화'의 글과 질문은 작가와 전문가가 직접 쓴 것임.

1 문학 소통과 개성적 표현

단원 구성	쪽수	제재	저자	출처
대단원 표지 문구	10	순간적	안미옥	『저는 많이 보고 있어요』(문학 동네, 2023), 56~57쪽
(1) 나는 오늘	15~16	나는 오늘	오은	『마음의 열』(창비 교육, 2023), 8~10쪽
	19	학습 활동 3 자료 글	자체 집필	『오은 시인과 함께하는 '한 학기 한 권 시 집 읽기'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pZzNPoEDKeE&t=32s), 『오은 시인이 얻은 영감의 원천』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uYWmbltHPs&t=167s), 『만화가 재수, 시인 오은 "우리 책 한 권 만들어 볼까?"』 인터뷰(https://ch.yes24.com/Article/View/43933)를 참고하여 집필
(2) 브로콜리 편지	23~30	브로콜리 편지	이유리	『브로콜리 편지』(문학과 지성사, 2022), 96~99쪽, 103~112쪽
	34	성장의 계절	박서양	『문학과 사회』 2022년 봄 호(문학과 지성사, 2022), 249쪽
(3) 소곤소곤	37~38	외우기로 해요	김소영	『일상의 날말들』(사계절, 2022), 254~257쪽
	39~40	수어로 비밀 말하기	이길보라	『일상의 날말들』(사계절, 2022), 258~261쪽
깊고 넓게 읽기	48~49	이해라는 문	박준	『계절 산문』(달, 2021), 46~49쪽

2 슬기로운 국어생활

단원 구성	쪽수	제재	저자	출처
대단원 표지 문구	52	말의 주인들을 위하여	한성우	『말의 주인이 되는 시간』(창비 교육, 2020), 6~7쪽
(1) 음운 변동	64	7시에 들어 줘	부석순(세븐틴)	음반 『세컨드 윈드(SECOND WIND)』(와이디 플래츠, 2023)
(3) 대화 예절과 책임감 있는 국어생활	82	낭만 닥터 김 사부 3	강은경·임혜민	『낭만 닥터 김 사부 3』 14화, 에스비에스(SBS), 2023년 6월 10일 방영
	83	말에 대한 설	윤휴(정선용 해설)	한국 고전 번역원 누리집(https://www.itkc.or.kr/bbs/boardView.do?id=75&bdx=31735&menuId=10063)
깊고 넓게 읽기	88~89	당연하지 않은 부모	이슬아	『날씨와 얼굴』(위고, 2023), 129~131쪽

3 세상과 만나는 말과 글

단원 구성	쪽수	제재	저자	출처
대단원 표지 문구	93	버럭	안희연	『단어의 집』(한겨레 출판, 2022), 73쪽
(1) 인간과 동물의 공존	97~101	인간은 동물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고봉준	『나는 반려동물과 산다』(다산 예뉘, 2021), 95~114쪽 일부 발췌
	102	해외에서는 사라지는 펫 숍, 국내에서는 불법 유통	조유정	『쿠키 뉴스』, 2023년 5월 12일 기사
	103	반려견과 함께 기적을 만든 반려인과의 만남	전성호	『고독한 훈련사』 9화, 티브이엔 스토리(tvN Story), 2023년 1월 5일 방영
	107	설문 조사	리얼리서치 코리아	리얼리서치 코리아 블로그(https://blog.naver.com/mrrk20/223124381807)
깊고 넓게 읽기	128~129	가짜를 판별하는 능력 기르기	조병영	『읽는 인간 리터러시를 경험하라』(쌤 앤 파커스, 2023), 229~233쪽

4 문학의 갈래

단원 구성	쪽수	제재	저자	출처
대단원 표지 문구	132	사람의 시	유현아	『슬픔은 겨우 손톱만큼의 조각』(창비, 2023), 85쪽
(1) 뿌리에게	137~138	뿌리에게	나희덕	『뿌리에게』(창비, 2021), 8~9쪽
	141	흙의 시학	나희덕	『문명의 바깥으로』(창비, 2023), 45~46쪽
(2) 아홉 컬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145~154	아홉 컬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윤홍길	『아홉 컬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문학과 지성사, 2019), 153~157쪽, 163~173쪽
(3) 불편한 편의점	161~168	불편한 편의점	김호연 원작 · 홍현우 각색	극단 지우 제공
	171	불편한 편의점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나무 옆 의자, 2023), 37~38쪽
(4) 수오재기	175~176	수오재기	정약용	『다산의 마음』(박해숙 편역, 돌베개, 2012), 21~24쪽
	177	작가와와의 대화	정약용	『다산의 마음』(박해숙 편역, 돌베개, 2012), 191쪽
	179	언덕 서너 개 구름 한 점	한정원	『시와 산책』(시간의 흐름, 2021), 156~157쪽
깊고 넓게 읽기	184~185	삶의 발명	정혜윤	『삶의 발명』(위고, 2023), 9~11쪽

5 함께 읽고 더불어 살아가기

단원 구성	쪽수	제재	저자	출처
대단원 표지 문구	188	우리 모두 좋은 날	박여름	『좋은 일이 오려고 그러나 보다』(하룻, 2023), 235~236쪽
(1) 나만의 지도를 그리는 법	193~195	나만의 지도를 그리는 법	정재승	『열두 발자국』(어크로스, 2023), 60~67쪽
	206~207	문해력 위기의 또 다른 배경	정지우	『내가 잘못 산다고 말하는 세상에게』(한겨레 출판, 2022), 52~55쪽
(2) 세상을 바꾸는 한 걸음	209	나는 맞고 남들은 틀리다	심상	『나는 맞고 남들은 틀리다』, 한국 방송 광고 진흥 공사, 2017
	210	활동 1-2-④ 자료 글	한국 방송 광고 진흥 공사	한국 방송 광고 진흥 공사 누리집(https://www.kobaco.co.kr/site/main/content/what_public_ad)
창의 융합 활동	219	뉴스레터 예	자체 집필	『오늘 이 계절을 사랑해』(세미클론, 2023), 103~105쪽을 참고하여 집필
깊고 넓게 읽기	220~221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은 모두 한통속이다	홍민지	『일잘잘』(창비, 2023), 47~52쪽

뒤표지 인용 문구

최민석 『능력자』(민음사, 2017), 9쪽

큐알(QR) 코드 유알엘(URL) 목록

단원	단원 구성	쪽수	내용	유알엘(URL)
1 문학 소통과 개성적 표현	(1) 나는 오늘	15	오은 작가 시 낭송 영상	https://me2.do/5gFREigG
			오은 작가 인터뷰 영상	https://me2.do/xOxe6Cge
		20	4-① 활동지	https://me2.do/Gpfbk6yJ
	4-② 활동지		https://me2.do/GEIUOFhJ	
	(2) 브로콜리 펀치	23	이유리 작가 인터뷰 영상	https://me2.do/xKEdQvv
			중략 부분 내용	https://me2.do/5W0lloWM
34		4-② 활동지	https://me2.do/GfbnWulG	
(3) 소곤소곤	44	4-③ 활동지	https://me2.do/5Ea0IDHJ	
2 슬기로운 국어생활	(1) 음운 변동	58	표준 국어 대사전 누리집	https://stdict.korean.go.kr
	(2) 문법 요소와 어휘	76	6 활동지	https://me2.do/F6baM6Hk

3 세상과 만나는 말과 글	(2) 교실에 시시 티브이(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120	1-① 활동지	https://me2.do/F0txyDEr
		122	3-① 활동지	https://me2.do/52T16nRU
		123	3-② 활동지	https://me2.do/x95sY7R6
			3-③ 활동지	https://me2.do/FRcyP5k2
4 문학의 길래	(1) 뿌리에게	137	나희덕 작가 시 낭송 영상	https://me2.do/5JSJ2gxh
			나희덕 작가 인터뷰 영상	https://me2.do/GV215SVa
	(2) 아홉 컬러의 구두로 남은 사내	142	4-① 활동지	https://me2.do/FUz22qdM
		147	중략 부분 내용	https://me2.do/GQ1mmllk
	(3) 불편한 편의점	172	5-① 활동지	https://me2.do/F0tSXMxs
			5-② 활동지	https://me2.do/xmtbQ5ZC
	(4) 수오재기	180	4-② 활동지	https://me2.do/5MSbZkxW
	5 함께 읽고 더불어 살아가기	생각 열기	191	가치 카드
(1) 나만의 지도를 그리는 법		201	6-① 활동지	https://me2.do/GCaLv8P
		209	공익 광고 영상	https://me2.do/5tJKUPQV
(2) 세상을 바꾸는 한 걸음		213	2 활동지	https://me2.do/FM13sXDB
		214	3 활동지	https://me2.do/GxN3u95d
		216	2-② 활동지	https://me2.do/G2xi2h20

사진 및 그림 출처 표시를 안 한 사진 및 그림은 저자 및 발행사, 디자인 회사에 저작권이 있음.

1 문학 소통과 개성적 표현

단원 구성	쪽수	내용	작가 및 출처
대단원 생각 열기	13	『브로콜리 펀치』 책 사진	『브로콜리 펀치』(문학과 지성사, 2021), 91쪽
		『마음의 일』 책 사진	『마음의 일』(창비 교육, 2020)
창의·융합 활동	47	『좋아하는 마음이 우릴 구할 거야』 책 표지 사진	『좋아하는 마음이 우릴 구할 거야』(휴머니스트, 2020)
		『긴긴밤』 책 표지 사진	『긴긴밤』(문학 동네, 2021)

3 세상과 만나는 말과 글

단원 구성	쪽수	내용	작가 및 출처
(1) 인간과 동물의 공존	103	『고독한 훈련사』 동영상 캡처 사진	『고독한 훈련사』 9화, 티브이엔 스토리(tvN Story), 2023년 1월 5일 방영
깊고 넓게 읽기	128	나무 문에 관련 누리집 캡처 사진	『멸종 위기에 처한 태평양 북서부 연안 지역의 나무 문어를 구하자』 누리집 (https://zapatopi.net/treeoctopus/)

5 함께 읽고 더불어 살아가기

단원 구성	쪽수	내용	작가 및 출처	
(1) 나만의 지도를 그리는 법	201	『이 장면 나만 불편한가요?』 책 표지	『이 장면 나만 불편한가요?』(자음과 모음, 2021)	
		『진짜 쓰는 프리미어 프로 영상 편집』 책 표지	『진짜 쓰는 프리미어 프로 영상 편집』(제이펍, 2023)	
	202	『이 장면 나만 불편한가요?』 책 표지	『이 장면 나만 불편한가요?』(자음과 모음, 2021)	
		『진짜 쓰는 프리미어 프로 영상 편집』 책 표지	『진짜 쓰는 프리미어 프로 영상 편집』(제이펍, 2023)	
		『아무튼, 인기 가요』 책 표지	『아무튼, 인기 가요』(제철소, 2020)	
		『보통의 언어들』 책 표지	『보통의 언어들』(위즈덤 하우스, 2020)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책 표지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유유, 2016)	
		『무엇이든 대신 써 드립니다』 동영상 캡처 사진	『무엇이든 대신 써 드립니다』 「지식 채널 e」 3787화, 한국 교육 방송 공사, 2023년 5월 24일 방영	
	(2) 세상을 바꾸는 한 걸음	209	『여기 가려고 주말을 기다려』 책 표지	『여기 가려고 주말을 기다려』(빅피서, 2023)
			『나는 맞고 남들은 틀리다』 동영상 캡처 사진 4컷	『나는 맞고 남들은 틀리다』, 한국 방송 광고 진흥 공사, 2017

〈집필진 소개〉

최원식	인하대학교	1단원	권태운	부산 경혜여자고등학교	1단원
곽기영	부산고등학교	3단원	박연환	부산 개성고등학교	4단원
김승정	서울 잠일고등학교	2단원	이삼남	광주 고려고등학교	4단원
오연경	고려대학교	1단원	이종호	서울 독산고등학교	5단원
이종은	서울 삼각산고등학교	3단원	정지영	충남 복일고등학교	4단원
임요한	인천논현고등학교	2단원	최형용	이화여자대학교	2단원
최윤영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5단원			

편집	김현정, 김나은, 고한별	편집 총괄	박선영
디자인	디자인스튜디오4월	디자인 총괄	조혁준, 최윤창
조판	이주니, 김지영		
일러스트	디자인스튜디오4월		

〈검정심의회〉

- 위원장
- 간사
- 연구 위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 검정 위원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검정 심사를 하였음.

고등학교 공통국어1

2025. . . 초판 발행	정가	원
저은이	최원식 외 12인	
발행인	김종곤 (㈜창비교육(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2길 7)	
인쇄인	대산인쇄공사(경기도 파주시 적지길 368)	

교과서의 본문 용지는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을 받은 재활용 종이를 사용하였습니다.

교과서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전화: 1566-8572, www.textbook114.com 또는 www.교과서114.com)'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전화 02-2608-2800, www.kolaa.kr)에서 저작 재산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내용 및 구입 관련 문의: (주)창비교육 전화: 1833-7247 전송: 070-4838-4938

ISBN



공통국어2, 20쪽

공통국어2, 65쪽

“우선, 내가 주인공임을 밝혀 둔다.”

— 최민석, 『능력자』에서



고등학교

공통국어1

새로운 세상을 만날 열일곱,
자기 언어로 세상에 질문을 던질 열일곱,
스스로 길을 찾아 나갈 열일곱에게

